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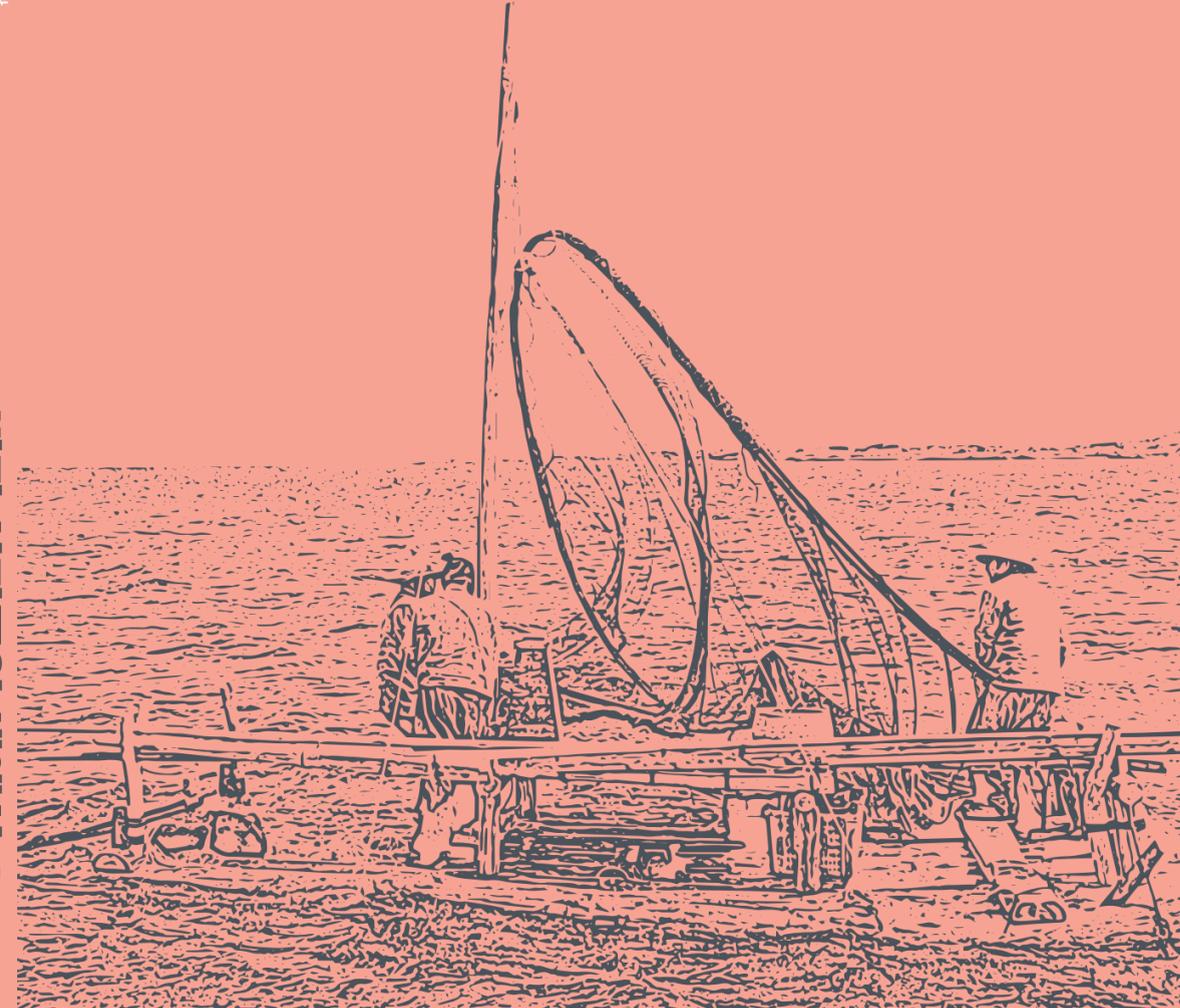
K O R E A

N A T I O N A L

M A R I T I M E

M U S E U M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3



국립해양박물관  
총서 / 보고서  
20200403

발간등록번호 11-B553496-000015-01

국립해양박물관  
총서 / 보고서  
20200403

국립해양박물관  
총서 / 보고서  
20200403

Life history of  
the sea people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3

Life history of  
the sea people

산업·환경	전통음식	민속
강창언	이강윤	김동언
김관일	정성수	배재적
김진수		정경용
김창명		최병천
박명호		
최신일		

©국립해양박물관(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2020  
이 도서의 저작권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의미로도  
재생산하거나 재 활용 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www.knmm.or.kr  
ISBN 979-11-88805-23-5 비매품  
93990



##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3**

#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 3

Life history of the sea people

###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3

총괄 : 이종배(국립해양박물관)

기획 : 윤리나(국립해양박물관)

진행 : 권유리, 권현경(국립해양박물관)

교정 : 권유리, 권현경, 전경호, 제아름, 김현수(국립해양박물관)

책임연구원 : 김태만(한국해양대학교)

조사 : 김태만, 강병관, 박진명, 최민영(한국해양대학교)

원고 : 강병관, 박진명, 박정오(보조), 우동준(보조)

전사 : 박진명, 박정오, 우동준

사진 및 영상 촬영 : 강명수

주관 : 해양수산부

발행일 : 2020년 11월 30일

발행인 : 국립해양박물관 [www.knmm.or.kr](http://www.knmm.or.kr)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제작 및 인쇄 : (주)호밀밭

©국립해양박물관(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2020

이 도서의 저작권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의미로든 재생산하거나 재촬영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 발간사

### 바다 사람들의 삶을 담은 숨겨진 역사의 기록들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를 사는 우리, 바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포구에서 항구로 발전하면서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태우와 돛배의 수요는 거의 없어졌고, 신안의 많은 염전 부지들은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부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년의 전통을 이어온 부산 가덕도의 송어잡이는 최근 신항 준공 이후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심지어 선원들의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바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그들의 드러나지 않은 일상의 역사를 온전히 남기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박물관은 벌써 3번째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해양·수산과 연안 어업에 이어 올해는 해양문화를 주제로 구술자 12인의 바다와 함께한 삶들을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3>에 고스란히 담아보았습니다. 12명의 구술자 한분 한분의 인생, 그 인생의 기록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바다의 역사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민중의 역사라 생각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권의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를 발간하였으나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구술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평범했던 지난날이 추억이 되고 오히려 많은 제약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불편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애써주신 한국해양대학교 김태만 교수와 연구진들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이형기 연구관, 송지은 주무관과 우리 박물관 권유리 학술연구팀장, 권현경 학예사에게 특히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자 본업을 제쳐두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12인의 구술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물관은 지난 2018년부터 휴먼스토리 조사를 통해 축적된 소중한 구술 생애사 자료와 수집된 자료를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많은 직원과 참여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모아온 이 귀한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내년에는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널리 배포되어 기록되지 않아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들의 생애사가 영원히 남겨지고 또한 기억되길 기대합니다.

2020.11.

국립해양박물관장

## 차례

발간사 ..... 04

### 산업·환경

강창언·김희선 테우 ..... 10

김관일 어로장 ..... 30

김진수 물범지킴이 ..... 46

김창명 조선장 ..... 66

박명호 머구리 ..... 84

최신일 염전 ..... 104

### 전통음식

이강윤·이화봉 어간장 ..... 126

정성수·신애자 가자미식해 ..... 142

### 민속

김동언 동해안별신굿 ..... 164

배재적 창리 영신제 ..... 182

정경용 거문도 뱃노래 ..... 200

최병천 초분 ..... 216

# 산업·환경

## 일러두기

1. 이 책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2020년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보고서로,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해양문화 분야 12인의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2. 구술생애사 조사방법에 따라, 구술자가 사용한 사투리나 말투는 대부분 그대로 담아냈으며, 이해가 어려운 단어는 각주를 통해 설명하였다.
3. 명칭 통일은 아래와 같다.
  - 현재는 초등학교이지만,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학교로 표기함.
  - 단위의 표기는 kg, g, km, m 등으로 표기하고, 톤(ton), 노트(knot) 등의 경우 한글 표기만을 명기함.

강창언·김희선

김관일

김진수

김창명

박명호

최신일

# 제주 전통 테우 복원 과정 기록한 강창언 선생과 제주 국선장 김천년 선생의 차남 김희선 선생

강창언·김희선 (테우제작자)\*



\* 강창언 선생을 비롯한 제주의 배 전문가들은 배를 셀 때 '척' 대신 '개' 단위를 사용하여 본문에서는 이를 고치지 않고 표기했다. 강창언, 김희선 두 분 모두 제주식으로 '테위' 라고 발음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테우' 로 통일했다.

## 들어가며

강창언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순전히 독학으로 공부와 답사를 병행하며 최근에는 <탐라야사>를 출판하기도 하는 등 제주도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어릴 때부터 혼자서 도자기 조각을 주워 모으는 게 유일한 놀이였고, 이후에도 제주도 곳곳을 답사하며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왔다. 사설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꿈을 키우다가 본격적으로 도자기 수집을 시작했고, 현재는 제주전통옹기를 복원하고 돌가마에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도기를 만드는 제주도예촌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제주배의 원형에 대해 의문을 갖고 탐구를 시작했다가, 1996년에 처음으로 故김천년 선생을 만나 전통배 복원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생전에 국선장<sup>國船匠</sup>이라 불렸던 김천년 선생은 덕판배 기능을 두 명에게 전수했는데 그 중 김천년 선생의 조카 강정식 선생은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힘든 상태이고 다른 한 명인 둘째 아들 김희선 씨가 강창언 선생과 함께하고 있다. 김희선 씨와 강창언 씨는 故김천년 선생의 덕판배 제작 과정에 참여하였고, 이후 제주도 뗏목배인 테우를 함께 만들었다. 이들은 복원한 테우의 제작 설계도와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지금은 김천년 선생이 복원했던 덕판배를 온전히 재현하겠다는 것이 다음 목표이다.

덕판배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제주어사전>에는 '바닷가 바위에 배를 대어 우마 따위를 신고 내리기에 적합하게 선수를 넓고 평평하게 만든 제주도 고유의 배'라고 나와 있다. 제주도에서 덕판배는 한반도와 일본을 연결하는 연륙선이었고, 일부에서는 고기잡이배로 쓰였다. 덕판배가 없었다면 백제, 신라, 왜 등과의 교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배는 바다와 인간을 연결했던 대표적 해양유산이다. 우리나라 전통 한선은 특히 지역 별로 특징을 지니는데, 전남 신안군 가거도 지역의 멸치잡이 배인 가거도배,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의 고기잡이 배인 통구마니배, 서해안의 새우잡이 배인 명탕구리배, 전라도 영산강 일대에서 고기잡이배를 하던 소형 안강망어선의 닻이 대표적이다. 테우와 덕판배 뿐 아니라, 산지천 중국 피난선, 하멜 표착선, 김대건 신부의 '라파엘호' 등 제주 바다로 찾아든 배들도 제주 전통 속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01

## 제주 곳곳을 홀로 돌아다니며 도자기 조각을 모으던 어린 시절

선생님, 먼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960년도에 제주시 용담동에서 태어난 강창언입니다. 제주도는 누구나 다 바다하고 연을 안 닿으려고 해도 안 닿을 수가 없어요. 저도 바로 옆이 바다였죠. 완전 바닷물 철썩철썩 하는 데서 태어났거든요. 위에 누님 계시고 2남 2녀 중에 제가 장남입니다.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어릴 때부터 바다 보면서 배랑 고기 잡는 거 보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바람으로 가는 돛배, 풍선<sup>風船</sup>들이 있었어요. 전라도 쪽에서 항아리 싣고 오는 배들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그걸 보면서 '저 배가 언제쯤 어디로 들어올까' 생각하는 게 혼자만의 일과였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도 근해에는 노 젓고 가는 풍선이 많았어요. 80년대 되면서 배에 엔진이 달리고, 목선들이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혼자 제주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뭘 줌고 하셨다던데 그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혼자 지내면서 관찰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하천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도자기 편을 주웠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당시에는 제주에 포장된 도로나 높은 다리도 없고, 시멘트로 된 다리 정도 밖에 없었는데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가서 그저 쪼가리 주워서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나중에 중산간으로 이사한 뒤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는 일부러 안 가고 뺑 돌아서 화분 굽는 데라든지 그런 데를 지나서 학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답사를 다니신 셈이네요. 그럼 학교 다닐 때 역사 과목도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전이라든가 문학도 좋아했어요. 역사는 물론이고요. 저는 그런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시험은 맨날 빵점 맞았어요. 지금도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떻게 백자만 보면 조선백자라고만 합니까, 고려백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려백자'라고 하면 선생님이 틀렸다고 때려요. 하지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고려하고 조선이 하루 차이인데 어떻게 도공들이 하루아침에 전에 만들던 걸 다 버리고 새로 백자를 만드나요. 하늘에서 뭐가 푹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웃음) 호기심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아버님이 목공일을 좀 하셨어요. 손재주가 좋으신 편이었죠. 바닷가에서 살다 보니까 마차로 물건 실어 나르는 일도 했고 농사도 짓고요. 그래도 유복한 편은 아니었고, 살아가는 데 급급했어요. 다 일하러 밭에 가고, 어릴 때 부모님 얼굴 보는 것도 힘들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 지낼 때가 더 많았죠.

선생님도 일을 빨리 시작하셨지요?

아버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그 전에 어느 정도 생계 유지하던 게 완전히 끊겼어요. 국민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완전히 집안이 기울었죠. 육성회비도 제대로 못 내 중학교도 못 갈 뻔 했는데 겨우 진학했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신문 배달 같은 거 하면서 학교 결석도 하고요. 들어가지만 했지, 사실 졸업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고등학교 진학은 완전히 꿈이었고요. 제가 다녔던 중앙중학교가 공과반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목공 일을 가르쳐줘요. 아, 이거면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싶어서 아이들이 다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한 열 달에 걸쳐서 소소한 목공일은 다 배우게 됐죠.



도예촌 한쪽에 마련된 작은 개인박물관에는 강창언 선생이 평생 모은 제주의 수많은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다.

### 그럼 첫 직장도 목공과 관련된 쪽으로 다니셨나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졸업도 하기 전에 가구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월급을 3천 원 받았는데, 100% 집에 갖다 줬어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월급봉투를 건드린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죠.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한 3, 4년 다녔는데, 겨울에 야간 작업 한다고 달력이 온통 새빨갰어요. 제가 보조였는데, 기술자가 저를 지명하면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술자가 저를 보조로 지명해서 거의 못 쉬었습니다. 거의 한 달 내내 쉬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 당시에 답사를 다녔거든요. 한 달에 두 번은 쉬게 해준다고 해서 그때 유적지 같은 데를 조사하러 찾아다녔는데, 아예 쉬지를 못하게 되고 고민하다가 답사를 다닐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차에 너무 과로한 거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 쓰러질 정도로 잔업을 하면서도 답사를 하셨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좋은 걸 어떻게 봅니까. 선생님이나 누굴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랬어요. 엄청 피곤해도 거기 가서 파편 같은 걸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제주도 중산간은 너무 험난했고, 하천이고 바닷가 같은 주변으로 계속 다녔죠. 그러다 쪼가리를 주우면 생각해요. 유적이구나. 그리고 그런 파편이 너무 많으면 여기는 사람들이 살았던 데겠구나. 추론해보는 거죠.

### 답사하며 알게 되신 건 자료로 만드셨나요?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아무 것도 모르던 시절이라, 자료 분류하는 법이나 만드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혼자 좋아서 모으고 다닌 거예요. 어른들은 무덤에서 가지고 온 거나 그런 걸 부정 탄다고 집에 못 들고 들어오게 했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밭에 막 숨겨두고 했죠.

### 그 시절 모았던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요?

남아있는 거 있죠. 절대 못 버리죠. 당시에는 제주도가 낙후되어 있어서 자전거도 타고 다니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걸어 다녔는데, 촌에 가면 아저씨들은 할 게 없어서 그런 거나 줍고 다니느냐며 욕도 하곤 했는데,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은 막, 병 같은 거를 줘요. 그런데 다 갖고 오질 못했어요. 걸어 다니는데 거리가 멀면 그것도 무거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맘에 드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만 추려서 가지고 오고 한 거예요.

### 또 다른 일도 하셨는지요?

뭘, 닥치는 대로 일했고요. 방위 다닐 때는 출·퇴근하니까 일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집 수리, 밭 갈기, 목수 일 같은 것도 도와달라면 하고요. 하여튼 안 움직이면 굶어야 되니까요. 가구사 나와서 중소기업에도 좀 다녔는데, 돈도 전보다 많이 받고 주말도 쉬고 연가도 줬어요. 아주 신이 나서 다녔죠. 그러면서 답사도 엄청 다닐 수 있었지요. 하여튼 답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나갔어요. 태풍 쳐도 나갔죠. 그러다 한 스무 살 때부터는 거의 답사 중심으로 다녔죠. 답사가 주가 되고 회사는 뒷전이 되어버리니까 회사에도 미안해지고, 그래서 양해를 얻어서 그만뒀죠. 답사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다니고 싶었어요. 198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 02

### 비행기 사고로 죽다 살아난 다음, 진짜 인생을 시작하다

#### 이십대부터 본격적으로 답사를 다녔으면,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1980년대, 그러니까 이십대 때 방위로 2년 근무하고 나와서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한 10여 년 일했죠. 박물관 일도 도와주고 실측하고 답사하면서 알게 된 게 있으니까 그런 곳 유적 조사할 때면 보조원으로도 참여하고요.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몇 년 지나고 교직원으로 올려줘서 또 몇 년 더 있었죠.

#### 학교에 있는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993년도 제주대학교 행사 때였는데,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경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살아났죠.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누가 도움 요청하면 찍어주고 그랬는데, 마침 그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 조금만 내려오면 제주목이라든가 여러 유적지를 더 잘 찍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가 보자고 했는데 앞으로 쭉 기울어 지더니 추락해버렸죠. 비행기가 고압선에 걸렸다가 활처럼 튕겨서 떨어졌어요. 그 사고로 조종사랑 저는 1년 가까이 병원 신세를 졌고요. 허리 같은 건 다 박살났죠. 완전히 뼈가 다 주저 앉아 가지고 병원에서 ‘아, 이거 꿈이고 뭐고 다 접어야 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병원에서 나와서 조금 움직이게 되니까 또 유적부터 다니게 되더라고요. 놀란 것은 1년 사이에 엄청나게 파괴되었더라는 겁니다. 죽다가 살아났더니 오히려 더 의지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인생 제대로 살려면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나야 하는 모양이에요.(웃음)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답사 한다고 나가시고 그러다 죽을 고비까지 넘길 정도였는데, 사모님이 안 말리셨습니까?**

결혼할 때 다 얘기했어요. 나는 돌아다녀야 한다, 결혼해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을 거다. 그 사람도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바뀔 줄 알았나 봐요. 살다보니 감당이 안 되었겠죠.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하고는 아들 둘 낳고 10년 정도 살다가 헤어졌어요. 그 양반은 도시 생활을 원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많이 이해해주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병원에서 나와 1년만에 다시 보니 유적이 많이 파괴되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제 기억에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그 시기에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답사 붐이 시작됐고 좋은 흐름이긴 한데 그 시기에 많이 파괴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70년대까지는 제가 수집한 걸 박물관에 가져가도 뭐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80년대부터는 박물관 사무실에도 책이 한 권, 두 권 늘어나는 게 보이더군요. 1984년에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고, 제주도에 박물관이 생긴 거예요. 거기를 정말 줄기차게 들락거렸죠. 그 전에는 개인 박물관만 있었어요.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 자리에 진성기 선생님이 하시던 조그마한 박물관이 있었고, 지금 제주돌문화공원의 전신인 돌 박물관을 70년대에는 ‘목물원’ 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입장료가 있으니까 어릴 때는 걸에서만 두리번 거렸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많이 모으면 박물관을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을 어렵פות이 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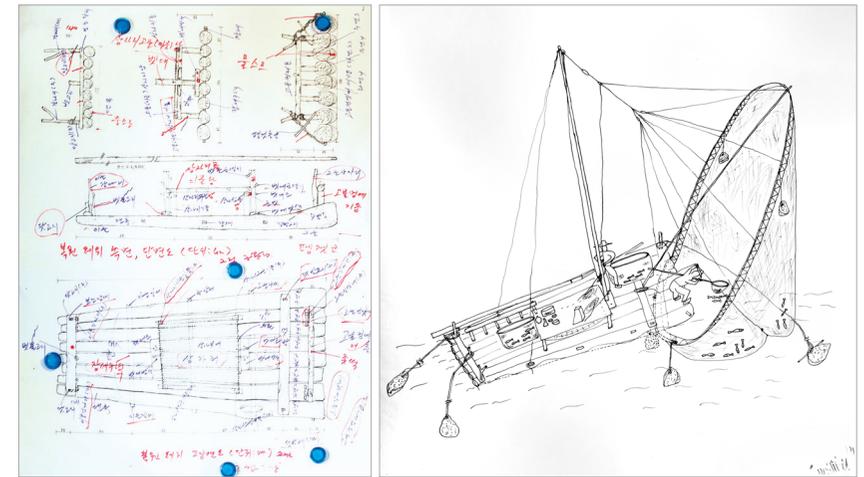
**박물관을 차리겠다는 구체적인 꿈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어디 외진 데 창고 하나 마련해서 다른 분들이 주겠다고 한 거 다 받아오면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바닷가에 가면 어류와 관련된 도구들 있죠, 그물이나, 망사니 이런 거. 이런 것들도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데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아르바이트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돈도 있었고요.

**흔히 뗏목배로 알고 있는데, ‘테우’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시간 날 때마다 제주도 사람들을 앉혀놓고 발음을 시켜보는데요. 저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표준어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예요. 테우는 완전히 100% 제주도 방언이고 정확

히는 ‘터으위’ 발음이 나요. 빨리 말하면 ‘터위’라고 하는 발음. 그러니까 저는 ‘테위’라고 씁니다. 이 사람들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말을 그대로 써버리니까 뜻은 아직 모르죠. 저도 계속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떼 벌<sup>뽀</sup>자를 한자로 써서 벌선<sup>復船</sup>이라고 하는 건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뗏목도 학자가 붙인 거고. 배에는 배 안과 배 밖이 있잖아요. 테우는 안팎이 없죠. 구분이 없고 대신에 침몰하지도 않아요.



강창언 선생이 직접 그린 테우 관련 설계 도면들

**2020년에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해양제주, 바다에서 바라본 제주바당> 기획전시에서 테우를 복원하셨는데요. 보관하고 계시는 목재와 노, 밧줄용 삼도 인상적입니다. 여기 있는 테우 설계도도 직접 그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원해서 제대로 만든 거죠. 만들어서 직접 물에도 띄웠고 노 젓는 거라든지 향해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부 작업도 직접 다했고, 국립해양박물관에서도 사진 작업을 했어요. 제주도에 다른 박물관 한 군데서도 테우가 향해하는 거라든가, 노 젓는 거, 그물 드리우고 올리는 거, 해초 작업 이런 것들을 기록했어요. 사진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덕판배와 테우는 완전히 다른 배죠? <제주어사전>에 보면 덕판배는 ‘선수를 넓고 평평하게 만든 제주도 고유의 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덕판배’를 ‘떡판배’로 적어놓은 곳도 있던데, 판이 크고 평평해서 떡판배인가요?**

덕판배와 테우는 완전히 다른 배가 맞구요. 하나 정확한 건 다른 배들은 덕판이랑 비슷하게 해서 편편하게는 됐는데 이렇게 뺏머리에 굽고 넓적한 판을 별도로 설치는 안 해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배를 다 만들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넓직한 판을 올려놔요. 그래서 이걸 덕판이라고 하더라고요.

덕판배가 일제 말기까지도 두 개 있었어요. 1940년경에 멩텅구리 배라고 해서 제주도 안을 뱅뱅 돌면서 항아리를 실어 나르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분명히 덕판배예요. 날렵하지도 않고 짐만 많이 싣고, 늦고, 뚫을 달고. 저도 어릴 때 봤던 배가 다 육지에서 오는 줄만 알았는데, 육지에서 온 것도 있었지만, 섬을 뱅 돌아서 온 덕판배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40년대에 배들이 운행했으면, 한 60년대까지도 이 배가 한두 개는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물건 실어 나르는 건 이 배를 따라갈 게 없었대요. 당시에는 제주도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다 비포장 길에다가 버스가 일주도로로 가다 보면 펑크 나는 게 예사였고요. 그러니 항아리 같은 걸 실어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배를 많이 탔죠.

**무거운 걸 주로 싣고 안정감 있게 운반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70년대까진 다 목선이었어요. 근처에 노 젓고 하는 해녀 배들도 다 목선이었고요. 제주도 주변이 다 암반이잖아요. 예전에는 말도 엄청 나게 실어 날랐는데, 옆으로 되면 말이 기우뚱 기우뚱해서 놀래요. 그러면 말을 못 싣죠. 배도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덕판배에 말을 실어봤는데 말들이 놀래질 않는 거죠.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강에 다니는 배들은 다 옆으로 배를 대고 물건을 싣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덕판배는 정면으로 대고 싣는단 말이예요. 배가 좌우로 출렁거리지 않아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테우나 덕판배 같은 목선을 만드는 분들이 있나요?**

거의 없고요. 80년대에 덕판배 만드는 분이 제주시 화북에 있다고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당시에 제가 몇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제주 전통방식으로 배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다는데 힘 합쳐서 이것 좀 같이 만들자고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1996년 김천년 선생 팀이 복원한 제주 덕판배의 모습

**1996년도에 KBS제주방송국에서 의뢰해서 재현한 배가 이 덕판배죠?**

네, 당시 KBS제주방송국 김승룡 PD가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과 함께 <제주도 승격 기념 덕판배 복원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덕판배를 재현해서 성산어랑 가고시마를 왕복 하는 건데 저는 처음부터 참여하고 싶었지만 직급이 낮다보니 못하다가 나중에 들어갔죠. 이미 김천년, 오원혁 옹 같은 최고의 장인들이 배를 거의 다 만들어서 마무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머지 잔잔하게 손보는 것들을 했어요. 만 4개월 만에 길이 9m, 폭 4.5m에 여객 20여 명을 태우거나, 말 28마리를 수송할 수 있는 돛대 두개의 2톤 규모 풍선<sup>風船</sup>이 복원됐습니다.



테우에서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을 설명 중인 강창연 선생

# 03

## 탐라의 국선장<sup>國船匠</sup>, 김천년 선생을 만나고 여생을 제주 기록에 바치다

### 그때 김천년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천년 선생님이 처음으로 덕판배 자체를 만드셨죠.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배 측량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저는 목공 배우면서 설계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잘은 못해도 알기 쉽게 그릴 수가 있었어요. 배는 처음이니까 어떻게 중심선을 잡을 데가 없잖아요? 평판 측량하는 걸로 해서 찍고, 레벨기 갖다가 경사도 측정하고, 나머지는 줄 쳐서 실측하는 방식으로 했죠. 근데 10cm 간격으로 줄 쳐서 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디지털 나오기 전에는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었어요.

### 눈으로만 보고 만드는데도, 정확도가 높았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작업 과정들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겠네요?

그분하고 계속 작업한 건 아니고 덕판배 끝나고 중간에 몇 번 찾아뵙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정도여서 그때는 세세하게 기록하진 못했어요. 덕판배는 먼발치에서 기록한다고 자세히 볼 수도 없었고, 돛을 만든다거나 무슨 닻줄을 묶는다거나 필요한 걸 구입해오는 소소한 것들을 담당했었고요. 반면 테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총괄했죠. 김천년 선생님 제자들과 같아요. 그때 김천년 선생님하고 아들 두 명이 모두 배를 만들었는데, 선생님과 큰아드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둘째 아들 김희선 선생이 지금 66세 정도인데 그분하고 더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 김천년 선생님은 배를 어떻게 처음 만들게 되셨나요?

10m 미만인 작은 배들은 당시에 계속 만들었던 말이에요, 덕판배도. 일제강점기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배들을 전부 다 일본화시켜 가지고 배를 엄청나게 없애버려요. 그래서 덕판배가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김천년 선생님이 1925년생인가 그래요. 우도에서 태어났는데, 선생님이 2살 때 역풍이 불어서 아버지가 탄 배가 행방불명됐어요. 그래서 백부님 댁에서 성장했는데, 거기가 배 만들고 수리하는 집이었어요. 백부님도 배 만들어서 타고 고기잡이를 했고요. 집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목선을 수리하고 만들면서 판자 같은 걸 붙이려고 하면 선생님한테 혼자서 못하니까 이거 조금만 잡아달라고 하는 식으로 같이 작업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 할아버지 밑에서 배 만드는 걸 배우게 됐어요. 얘기

때부터 불철주야, 학교 갈 시간도 없이 배하고만 산거지요. 크면서 배 밑에서만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배 만드는 게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내려온 집이기도 하고요.



김천년 선생이 살아계실 때의 복원 작업 풍경

### 김천년 선생님의 둘째 아들도 배를 만드셨니 이제 4대째 배 짓는 집안이겠네요. 선생님은 덕판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김천년 선생님이 일반 목선은 셀 수 없을 만큼 만들었어요. 일본식의 어선은 설 새 없이 만들었는데 너무 어릴 때라서 무슨 배를 만들었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대신 앞이 이렇게 넓직한 배가 있었는데, 밑창도 그냥 편편하고 했더니 그게 분명히 덕판배다, 일본 배가 아니었다고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덕판배를 새로 만들지는 않고 수리만 했대요. 그런데 옆에서 수리하는 걸 보고 모양이 어땠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말이에요. 당시에 판자는 얼마만한 게 붙어있고, 배 모양은 어땠고, 배 안에도 들어가서 뭘 봤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지식이 없어서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설계도를 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나중에 보니 기록과도 거의 다 일치해요.

### 복원작업 하실 때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건 아침에 다 끝나요. 옛날에 유적 답사할 때도 낮에는 직장 가야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가 잡혀있으니 새벽 3시에 보통 출발해서 아침 되면 조사 마치고 현장에서 바로 출근하곤 했습니다. 그 습관은 지금도 여전히인데 김천년 선생님도 비슷했어요. 새벽 5시면 사람들이 한창 작업하고 있어요. 4~5시에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9시 이럴 때 가면, 아무것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드는데도 모르고요. 본 작업은 오전에 이미 다 끝납니다. 오후 2~3시에 하는 건 마무리 작업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일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2월부터 5월 정도까지 테우를

만들었는데 현장이랑 집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가는데도 빨라야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래도 절대 늦게 나갈 수 없었어요. 총괄 맡은 사람이 늦게 오면 그것부터 일이 안 되기 시작해요. 무조건 빨리 가 있어야 했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힘든 점도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바다에 직접 배를 띄우고 항해할 때는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배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데 만들고 하는 건 못 찍었어요. 제가 막 작업하는 중간에 사진을 못 찍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제는 길어야 5년? 아무 것도 안 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천년 선생님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던 것도 잘 안되셨다고 하셨죠?**

배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배를 만들기 전까지는 배 만드는 분들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그분들을 탐라국 배를 만들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국선장이 라고 불러요. 김천년 선생님 일대기하고 배 만든 거, 그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측 해서 제출했는데 무형문화재 지정이 안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웠죠.

**안타깝네요. 그렇게 전통문화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은데요.**

김천년 선생님만 해도 너무 안타깝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복원해서 기증했던 덕판배가 2008년에 다시 해체된 건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덕판배가 부식되어 다시 뜯는다고 해서 제가 신문에 글도 쓰고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뜯는 다던 날 아침 8시에 가니까 이미 다 뜯어버려 놔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없앨 수 있는지 화가 납니다.<sup>(1)</sup>

**김천년 선생님이 복원했던 덕판배가 노후화되면서 해체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덕판배 복원을 꼭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테우가 끝나서 덕판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웠습니다. 복원한 테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이 조달이 돼야 인건비를 줄 수 있는데 인건비가 조달되면 저는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덕판배를 우리가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평생 제주도에서 어떤 지원도 받을 생각을 안 하지만, 받을 수도 없습니다.

(1) 국립제주박물관이 덕판배 복원품을 10년 넘게 바깥에 보관하다가 썩고 망가지니 해체하여 보관하겠다고 결정하자 강창언 선생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저항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주일보> 2008년 7월 24일 자 “덕판배 해체는 제주 해양역사문화의 말살”에 소개되어 있다.

제가 나이 오십까지 매일 문화재 파괴를 문제 삼으면서 비판을 많이 했으니 다 싫어하죠. 하지만 왜 싫어하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파괴하기 전에 조사 좀 해보고 하자는 건데. 50살 넘어가면서 저도 지쳐서 이제는 안 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죠.



강창언 선생은 작업장 마당에 컨테이너를 여러 개 두고 제주 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통 재료들을 직접 보관하고 있다.

### 선생님, 긴 시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실질적으로 해온 작업들이 완벽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할 때마다 마치고 나면 모자라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들어요. 하지만 뭐라도 작업을 하고나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도 있어야 하는데 관심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제가 작업한 자료나 책들도 좀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여하고, 기록을 많이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 04

### 김천년 선생의 둘째아들 김희선 선생 인터뷰

#### 선생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천년 씨의 둘째 아들 김희선입니다. 1955년에 태어났고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 형과 함께 제주도 목선을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 강창연 선생께서 본인은 아무래도 도예 쪽이 더 전공이니 테우 관련해서는 꼭 선생님을 찾아 뵙고 더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부친인 김천년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제 아버지라고 해서 크게 내세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숨은 장인이었습니다. 왜 숨은 장인이냐면, 본인이 하고 싶다면 다 만드실 수 있었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술도 다 전수해줬어요. 아버지는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의 대대로 배 짓는 집안 태생인데 2살 때 할아버지가 풍파를 만나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렸을 때 얘기는 저희한테 많이 안 하셨어요. 제가 많이 들었던 건, 일본에 가서 16살쯤 일을 배우셨대요. 굽은 자로 맞으면서 밥도 눈치밥 먹다 말고 하는 식으로요. 그러다 19살에 다시 제주에 와서 1969년 경까지 배 작업을 하셨어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제주 성산 남골짜기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실 소시적부터 배 만드는 일만 하시고 교육을 못받으셔서 글을 모르세요.

이름 겨우 쓰십니다. 목선을 만드시는데, 일이 잘못되어 돈을 벌리고 하다보니까 전에 벌여 놓은 것도 다 팔고, 집안이 어려워져서 70년도엔가 충청도 서산 쪽으로 가서 배를 수리했죠. 그런데 서해에는 물살이 세잖아요. 부서진 배를 수리하셨는데, 중간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인터뷰 중인 김희선 선생

아버지는 75년에 또 제주로 왔고요. 그때쯤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 가족끼리 관계는 어땠나요?

아버지가 만든 선박들이 수금이 안 되어 재산을 탕진하셨을 때 가족이라는 의미가 많이 사라져 버렸죠. 5년 정도 있다가 어머니도 돌아가시니까 형제간의 우애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일하러 다니셨고, 목수, 도공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 사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어찌다 와서 하룻밤 자면 자식이 태어나는 정도였으니까. 크면서 같이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형이 아버지랑 같이 살고, 저는 차남이니까 그냥 따로 살고. 아버지가 200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모시면서 같이 살았어요.

#### 말년에는 선생님이 아버님과 함께 지내셨네요. 김천년 선생님의 성격은 어떠셨나요?

성격이 좀... 앞에서 할 얘기 딱 하고, 성격이 진짜 급하셨죠. 진짜 좀 화통했어요. 우리 형제도 많이 맞으며 컸어요. 담배는 아프기 시작하면서 끊었지만 술은 좀 많이 드셨죠.

#### 같이 배 작업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형님하고 아버님하고 다 같이.

다 같이 했죠. 저는 예전에는 배 만드는 데 관심이 없어서 다른 도시로 많이 돌아다녔고요. 제주 덕판배 할 때 외지에 있어서 같이 안했지만 그전에는 일 시작해서 계속 같이 하다가 여기서 우리 형님이 2000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3년 뒤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형은 아버지랑 배 만드는 일을 저보다 더 오래했죠.

#### 덕판배도 테우도 참 소중하게 남겨야 할 기록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어 찾아 왔는데 많이 늦었네요. 그런 아쉬움이 있으시지요.

늦은 편이에요. 엄청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온 언론에서 전화가 다 왔는데 무형문화재가 안됐다는 게 좀 아쉽고요. 글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열심히 전수를 받았어야 하는데...

#### 현재 복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자들은 몇 분이나 남아계시나요?

테우나 덕판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거의 갖고 있는 분이 없죠. 참여할 사람들이 한두 명, 저까지 하면 세 사람 정도예요. 외사촌 강정식 씨, 지금은 몸이 안 좋으신데 이분이 부친의



성산에 있는 김희선 선생의 배 작업장 풍경

진짜 전수자입니다. 끝까지 보존해야 하구요. 그리고 여든 넘으신 분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무리해서 해야죠. 그래도 실제 작업을 같이 했으니, 제일 잘 아실만한 분들입니다. 저도 강창언 선생님과 의견을 많이 나누고요. 서로가 의논하면서 예전 전통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이번에 복원하신 테우가 궁금합니다.**

어릴 적에 배를 타다가 바다에서 조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가위를 올려가지고 배를 전부 다 분해합니다. 테우에 보면 구멍이 뽕뽕 뚫려있습니다. 위에 올려놔서 말렸다가, 또 시기가 되면 꺼내서 그대로 조립이 가능하죠. 그렇게 쓰는 게 테우입니다. 조립식 뗏목이죠.

**요즘에도 테우를 만드는 일이 많나요?**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주문이 안 들어오면 만들 일은 많이 없죠. 뗏목 하면 톱질 해가지고 아무 나무나 잘라서 만들면 뗏목 아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안 만들어요.

**테우를 복원하실 때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전기를 쓰면 몇 명에서 일주일 안에 만들어요. 몇 번 안 해서 구멍도 뚫려버려요. 나무가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세 사람이 이틀이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직접 합니다. 제가 아버지 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했고, 사촌 형이 와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고, 같이 끈을 하나하나 잡고 전부 다 수작업 했습니다. 원래는 한 달 잡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 이번에는 강창언 선생님과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기록할 거 기록도 하면서 제대로 재밌게 진짜 복원을 했어요. 정말 자부합니다. 이번 일을 하는 데 한 석 달 정도 잡았어요. 나무 주문하는 것까지 하면 1년 이상 잡아야 해요.

**덕판배 복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1996년도에 덕판배를 복원할 때는 제가 여기 없어서 참여를 안 했고요. 지금은 덕판을 못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들 수 있는데, 사촌 형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복원을 한다는 게 그냥 모양만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못 하나하나 다 옛날식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덕판배는 지금 만들기는 좀 그래요. 보통 풍선보다 어렵긴 하지만 만들 때는 재미있습니다. 나무못을 박아야하니까. 쇠는 조그마한 걸로 박아가지고 빼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 박으면 다 들어가거든요.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쉽게 들어가야 하는데 빼려다가 떨어지면 환장합니다. 그러면 또 옆으로 파야하고, 빼려다가 못 박으면 옆으로 또 파고.

**제주도에 나무가 귀한데 테우나 덕판배를 만드는 재료는 어디서 구해오나요?**

테우 만드는 나무는 중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주 옛날엔 수입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라산에 가서 톱으로 잘라와 말려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육지에서 수입한 거 사다가 만들기도 했어요. 제주도 숲에 있는 삼나무로 만들는데 좋기는 제주도 삼나무보다 일본나무가 좋아요. 거기는 앞보다 밑이 이렇게 굵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나무를 캐놓고 껍질 벗기고 말려야 돼요. 말리는 데 1년 이상 걸려요.

**1999년에 천주교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만든 라파엘호 복원에도 참여하셨죠? 제작하셨을 때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1845년에 우리나라 첫 번째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중국 상하이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귀국했어요. 바다에서 풍파를 만나 가지고 제주도 용수리 포구까지 왔었거든요. 당시 탔던 배가 라파엘호인데, 자료를 바탕으로 여기서 우리가 복원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했구요. 27톤짜린데 크기와 모양이 시공하는 것과 거의 같고, 위아래만 조금 차이난대요. 못 하나 안 들어가게끔 하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더라구요. 전통 방식으로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나무못으로만 했어요.

### 복원된 배는 지금 남아있는 게 있나요?

라파엘호는 한림 쪽 용수리에 보관되어 있구요. 천주교에서 복원해서 거기다 갖다 뒀다고 들었어요. 갈 땐 저는 안 가고 아버지만 갔어요. 그건 이제 덕판배와 비슷한 형태로 남아있는 거고. 국립해양박물관에 테우가 지금 하나 남아있고요.

### 기술자 선생님들이 건강하실 때 배를 더 복원해 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야 만들 용의가 있는데 저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만드는 동시에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신경 써서, 예를 들어 만들면 박물관에 놓고 아이들에게 옛날 역사 공부도 되게끔 활용과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 복원하는 배들이 타고 다닐 수는 있어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전시용이나 행사용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작비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는 더 드니까요. 전승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얘기입니다.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돈을 막대하게 들이고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배를 박물관 광장 앞 바깥에 진열해놨어요. 나무가 햇빛을 보고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썩어요. 그 배가 얼마 안가서 썩어버렸잖아요. 배를 만든다면 관리를 잘 하고, 복원해서 둘 건물이나 공간도 마련하고, 또 수시로 전문가한테 의뢰해가지고 손도 보고 해야죠. 가만히 놔두면 금방 썩잖아요. 나무는 항시 사람 손을 타야 오래갑니다.

### 이야기 나온 김에, 배를 좀 더 잘 관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는 해수를 맞아야 합니다. 이게 다 삼나무인데, 나무는 해수를 안 맞고 비만 맞으면 안돼요. 바닷물을 맞아줘야 하죠. 제주도에 오면 원목들을 바다에다 까놓잖아요. 이유가 그거예요. 깨지지 말고 선도가 오래가게끔 바닷물을 먹여야 해요. 지금 배들도 위에 상판을 보면 나무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물 안주면 벌어지고 나무가 썩썩 나가요. 그렇다고 비만 맞아버리면 이것도 금방 나무 연결 부분이 붙어서 썩기 시작합니다.

### 그럼 덕판배나 테우처럼 복원한 배를 보관하려면 박물관 안에 수조를 만들어서 바닷물을 넣고 띄워놔야겠네요?

바닷물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살살 뒤에 뿌려주기만 해도 훨씬 낫고 오래 갑니다.

###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려주세요.

모든 일은 다 서로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복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존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버지는 생전에 배를 수리하거나 복원할 때, 가격을 너무 높게 받지 않으면서도 잘 해드렸던 것 같아요. 먼저 그렇게 하셨다보니까 제가 뒤를 이어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자는 생각도 들구요. 아직도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때 전수를 다 받지 못한 게 정말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직업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 덜 들었던 걸 후회하고 기회가 된다면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 번 더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 작업장에서 연구진과 함께 한 강창언 선생(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희선 선생(왼쪽에서 세 번째)

### 연보

- 1925년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에서 김천년 출생
- 1955년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에서 김천년의 차남 김희선 출생
- 1960년 제주도 용담 한두기마을에서 강창언 출생
- 1980년 강창언, 본격적 답사하다가 1987년부터 10여년 국립제주대박물관 근무
- 1996년 강창언, 김천년 국선장을 만나 덕판배 복원 작업 참여
- 1999년 김천년과 사촌 강정식, 차남 김희선, 천주교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라파엘호 복원 작업
- 2003년 김천년 별세
- 2020년 강창언, 테우 복원과정 기록한 <탐라국선 테우> 발간

### 참고 자료

- 강창언, 『탐라야사』, 가시아히, 2019
- 현평호, 강영봉,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 각 출판사, 2018
- 강창언, 『제주박물관지』, 가시아히, 2016
- 연합뉴스, “제주 문화유산 답사·연구 외길 30여년 강창언씨”, 2016년 11월 20일
- 제주일보, “덕판배 해체는 제주 해양역사문화의 말살”, 2008년 7월 24일

# 2백년 된 가덕도, 승어잡이의 전통을 잇다

김관일 (어로장)



## 들어가며

한동안 잠잠하던 신공항 이야기가 다시금 흘러나온다.

여름의 초입에 향한 가덕도는 신공항에 대한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날씨였는데 그 폭염을 뚫고 가덕도 입구 대항 버스 정류장 앞, 김관일 어로장의 집에서 그를 만났다. 김관일 선생은 1944년 가덕도에서 태어나 한평생 가덕도에서 살아온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으며, 김관일 씨는 어로장으로 가덕도의 바다와 함께 일평생을 지내왔다.

가덕도 앞바다는 낙동강에서 흘러내린 민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그래서 예로부터 '가덕수로'라 하여 가덕도에서 잡은 고기는 최상품으로 쳤다. 고기 중에서도 승어의 맛이 좋다보니 무리지어 다니는 승어의 특성을 활용한 가덕도만의 승어 잡는 방식이 발달하기도 했다.

최소 150년에서 200년을 이어온 가덕도 전통 승어잡이 방식인 '승어들이'에 변화가 생긴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신항 준공을 전후로 승어 양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선원들의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노를 젓던 배에서 동력선으로,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물이 올라오게 되어 승어 잡는 방식도 바뀌었다.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 간 가덕도의 승어잡이를 진두지휘한 김관일 어로장. 그는 이 전통적인 승어잡이 방식의 변화 순간을 지켜봐 온 목격자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승어들의 고향인 가덕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 01

## 가덕도 송어와 함께 태어나 성장하다

**선생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가덕도 송어들이 어로장을 맡고 있는 김관일입니다. 1944년에 태어났으니 올해로 77세입니다. 여기, 부산 가덕도 대항동 대항마을에서 태어나 다섯 살에 외양포로 가서 40년 넘게 살다가 다시 대항마을로 온 지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대항마을에서 외양포로 이동하긴 했어도 내 평생 이 부산 가덕도를 떠나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 토박이지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항마을로 돌아올 때 사서 이후로 계속 살고 있어요.

**가덕도가 부산에서 가장 큰 섬이죠? 이곳에서의 어로장님 유년시절이 궁금합니다.**

바다마을에서 어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요. 6남 1녀, 7남매 중 셋째예요. 어릴 적 우리 집은 참 어려웠어요. 뭐 시절이 시절인지라, 다 먹고 살기 힘들 때였지만요. 나도 어부였던 우리 아버지 따라 국민학교 졸업하고서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나는 9살에 입학했다가 좀 늦게 졸업했어요. 15살 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덕문중학교에 입학했지만 가난한 살림 탓에 바로 그만두고 배를 탔죠. 그 당시에는 나 뿐만이 아니라 국민학교만 나와서 곧바로 배 타고 선원이 된 아이들이 많았어요. 국민학교는 저기 대항초등학교 다녔습니다. 학교가 그거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럼 이후로는 계속 배를 타고 일하며 지내신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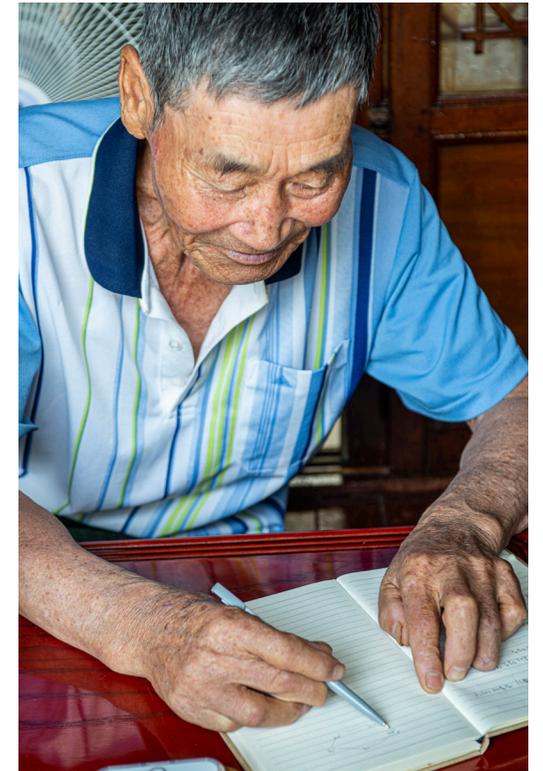
그랬죠. 그 길로 아버지 따라 나선 거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으니 다른 데 취직하기도 어렵고요. 봄이 되면 숨 한 번 돌릴 겸 배 타고, 그것도 끝나면 산에 가서 나무나 하고 그렇게 보냈지요. 봄부터 시작해 초여름까지 송어들이 조업은 물 때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오전에 진행됩니다. 오후 2~3시 경 조업이 끝나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굶어지고 오고 다시 소 풀을 뜯고요. 그러다가 1966년 3월에 군대를 갔죠. 창원 29사단에 입대해 수송병으로 101보에서 25사단으로 배속됐습니다. 경기도 전방에 있는 연천군에 있는 부대였는데 3년 동안 거기서 근무했어요. GOP서 근무했습니다.

**제대하시고 바로 결혼하신 것 같던데요.**

네, 그때 나이가 한 28살인가 되었죠. 1971년인지 2년인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같이 한 부락에서 키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네 살 차이 나는데 한 집에서 같이 살았죠. 옛날에는 양포라고 해서 일제 강점기 군인들 쓰던 막사 같은 건물에 두 가구가 함께 사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지붕은 하나인데, 중간을 갈라서 두 집이 사는 거죠.

**일제 때 일본 막사, 그거 말씀 하시는 거죠?**

일본 군대 막사 구조가 그랬지요. 여기 가덕도에 그런 막사가 많았거든요. 일본 사람들 물러간 다음에 거기에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반 나눠 살았어요. 한쪽에는 이 가족, 저쪽에는 다른 가족.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 옆에 살던 동생이 나중에 제 신부가 된 셈입니다. 이후로 고향에서 50년 넘게 송어를 잡으면서 아이들 낳고 잘 살아왔습니다.



인터뷰 중 가덕도 특유의 송어 잡는 방식에 대해 설명 중인 김관일 어로장

**슬하에 자식은 어떻게 되나요?**

셋 있죠. 2남 1녀. 딸이 첫째고 그 밑으로 아들 둘. 우리 딸이 지금 50살이고 그 밑으로 48, 46살인데 다들 가덕도를 떠나 외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선생님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송어잡이 안 시켰지요. 다 내보냈어요. 아이들까지 이 동네에서 제가 하는 일 시키면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딸은 결혼해서 부산 살다가 지금은 외국에 나가있고 큰아들은 부산 살다가, 지금은 진해 용원에서 살고 있고요. 대학원까지 보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있고 둘째 놈은 결혼해서 김해에 있어요. 송어잡이는 당연히 모르고 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내가 일절 안 가르쳤거든요.

## 02

### 200년 된 송어들이의 어로장이 되다

**가덕도에서 옛날부터 송어, 대구, 청어 같은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예, 특히 송어가 많았죠. 또 이 가덕도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어서 고기 맛도 좋았고요. 다른 데서 잡은 송어랑은 맛이 다릅니다. 특히 가덕도 송어는 붉이 제철인데, 육질이 부드럽고 향긋한 단맛이 일품이어서 임금님 수라상에도 진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가덕도에선 송어를 잡을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나요?**

송어들이라고 150~200년 된 가덕도만의 전통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로장’이라는 게 송어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가 언제 그물을 들어 올리면 좋을지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3월 초에서 5월 말까지 조업하는데, 잡은 송어는 크기에 따라 초등<sup>무찌</sup>, 중도리 등의 등급을 매깁니다. 우리 가덕도 사람들이 그렇게 송어를 잡은 수익으로 학교를 짓기도 했고 계속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마을 청년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가덕도 말고 다른 지역에선 그렇게 잡는 방식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가덕도 내 송어들의 이동 경로마다 모두 송어 어장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다 없어지고 외양포에서 가덕도등대 방향 고개 너머에 있는 내동섬 어장에서만 유일하게 송어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바다에서 알을 깨고 나온 어린 송어는 무리를 지어 연안으로 몰려와 플랑크톤을 먹으며 점점 커 갑니다. 특히 영도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앞바다에서 송도를 거쳐 다대포 물운대로 몰려온 송어가 낙동강 하구의 민물 냄새를 맡고 먹이를 찾아 큰 떼를 이루어 가덕도 등대가 있는 동두말에서 포구나무개, 큰내끝, 내동섬을 따라 이동해 가거든요.

**어로장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송어는 무리로 다니잖아요. 한 마리씩 잡지 않고 그 무리를 그대로 들어 올리는 게 가덕도 송어들이 방식입니다. 또 이 송어 무리가 지나갈 때는 바다색도 미묘하게 달라져요. 바다 빛은 푸른데 송어 떼가 지나갈 적에는 바다 빛이 살짝 붉은색을 띠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파악하겠어요. 육지에서? 그럼 당연히 안 보일 거고 배 위에서 볼까요? 그럼 배가

정박해 있는 그 언저리에서 조금 잡다 말 테죠. 그래서 ‘어로장’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산 위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망대’라고 부르는데요. 그 산 위 높은 곳 망대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바다 빛이 조금 바뀐다 치면, 때를 잘 맞춰서 송어 떼 지나간다고 알려줍니다. 어로장이 하는 역할이 그거죠. 1960년대까지 송어 잡는 조업 형태는 대부분 그랬고 제가 70살 되던 2013년까지 그렇게 계승되었지만, 갈수록 송어는 줄어들는데 인건비는 늘어나니까 어촌계가 조업방식을 변경하는 중입니다.

**보고 있다가 알려준다고 해서 어로장을 ‘망쟁이’라고도 부르는 거군요.**

그런 겁니다. 망대에서 물때를 맞춰 지켜보고 있으면 송어들이 왼쪽으로 가덕등대를 지나 연안을 타고, 만처럼 생긴 내동섬 안으로 쭈욱 들어와요. 어로장은 망대에서 육안으로 바다 속 송어 떼의 움직임을 파악해 어로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송어가 만을 휘익 돌아 완전히 그물 내에 들어왔을 때 메가폰으로 선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선상의 어부들은 원망의 지휘에 따라 재빨리 물속에 드리워졌던 그물로 송어를 들어 올리는 거고요. 이런 일을 총괄하기 때문에 ‘송어들이’이고, ‘어로장’이라 불리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망쟁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어로장은 한 마을에 한 명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로장이 되셨나요?**

어로장이 여럿이면 월급을 나누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두죠. 내가 한 10년 이상 배를 탔을 때, 우리 큰딸 태어났을 적인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한 34살 쯤 되었을 겁니다. 그때 어로장 후계자를 선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드니까 망을 볼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신청서를 내라 하더라고요. 한명 뽑는데 4명이나 신청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진갱(가위바위보)해가지고 내가 뒀어요. 운이 좋았어요.

**가위바위보라니, 좀 싱거운데요? (웃음) 그럼 34살 때부터 어로장 일을 시작하신 거네요?**

근데 또 그게 아닌 게 당시 우리 동네 구장<sup>무찌</sup>이 낫발이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자기가 어로장을 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하지만 동네사람들이 말렸죠. 제가 뽑혔으니 명분도 없는데다 평소에도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니 주변에서 이번엔 좀 쉬라고 만류하면서 결국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러는 사이 뽑힌 뒤로도 1년 정도는 쉬었어요. 지금 같으면 한 판 불기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힘을 못 썼어요. 그러던 차에 부어로장으로 있던 분이 몸이 아프게 됐고, 결국 뽑아놓은 사람이 있으니 시키자고 해서 제가 시작하게 된 거죠. 한 6년간 부어로장으로 일 하다가 40세, 1984년 즈음에 어로장이 됐어요.

### 맨 처음 책임자가 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원망이나 부망이나 다 조망하는 건 같습니다.

### 그럼 어로장이 승어 떼의 등장을 알리면 그 이후는 어떻게 작업이 이뤄지는 건가요?

승어들이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는 총 21명이 같이 일을 해요, 팀이지 팀. 목선 6척에 19명이 타고 어로장과 부어로장은 산으로 올라가서 때를 보지요. 지금처럼 동력선이 아니고 무동력선, 그러니까 노를 저어 나가는 배니까 노잡이도 필요하죠. 배 한 척당 1~7명의 어부가 승선을 합니다. 그때그때 배의 크기에 따라서도 필요한 인원은 달라지기도 하고. 딱 몇 명이다, 이런 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하죠. 그래서 육소장망어업 六艘張網漁業<sup>(2)</sup>이라고도 불렀어요. 예전에는 28명까지도 참여했지만 지금은 치솟는 인건비 탓에 그만큼 인원을 동원하지는 못하고요.



육소장망어업이라고 알려진 6척의 배로 승어잡이 하는 모습

### 노를 저어서 정확한 타이밍에 승어를 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선원들 간 호흡도 무척 중요했겠네요.

그렇지요. 사람 간 호흡이 안 맞으면 배가 안 나가요. 서로가 안 맞으면 여기서 저기 가는 데만도 한 40분씩 걸리고 그래요. 호흡이 잘 맞으면 한 달음에도 나가고요. 또 이게 파도가

(2) 100년이 넘는 전통의 어업 방식으로 모두 여섯 척의 배를 이용해 긴 그물을 다각형으로 설치한 후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말한다.

치고 바람이 불고하면 노를 한 사람이 저어서는 배가 안 나가잖아요. 세 사람 정도는 저어야 겨우 나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줄면 노 저을 사람이 없고 배가 못 나가니 사람을 자를 수도 없고. 근데 또 물고기는 없어지니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그때가 그런 시점이었지요. 한창 때는 한 해 어획고가 6억 원에 달한 적도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어촌계에 수익 50%를 넘겨주고도 선원들이 다른 일보다 훨씬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다들 승어들이 배 타는 것을 선호했어요. 심지어 고기를 많이 잡을 때는 한 번에 2만 마리도 잡았는데, 판로가 원활치 않았던 당시로는 1만 마리 정도만 판매처에 넘기고, 나머지는 다시 살려 주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제한된 판로와 구매력으로 인해 1만 마리 이상 넘어서면 그만큼 승어 값이 곤두박질쳐 결국 안 잡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죠.

### 작업 방식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어요. 사진을 보면 배 여러 척이 바다의 한 공간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어로장하고 부어로장이 망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배들을 배치해요. 원망이라 불리는 어로장은 부망을 거느리고 망대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6척의 배를 지휘합니다. 승어는 물가운데가 아니라 물가를 타고 오거든요. 승어 떼가 몰려올 때는 바닷물 색깔이 별경게 갈색으로 변합니다. 6척의 어선은 안목선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밖목선, 밖잔등, 밖귀잡이, 안귀잡이, 안잔등 순으로 배치하죠.

### 그럼 어로장과 부어로장이 망대에서 승어 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선원들도 배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로장이나 선원들이나 승어 떼를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든 일이죠. 배 위에서 잠을 자거나 낚시를 하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밥도 배 위에서 먹고 내 지시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로장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잠 자고 해도 나랑 부어로장은 그러면 안 되죠. 계속 보고 있어야 해요. 눈을 떼면 안 되니까요.

### 먼 바다를 보다가 고기가 왔다고 판단되면 배에다가 알려줘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멀리서 오는 건 별로 그렇진 않은데요. 산에서 볼 때 대충 가까워졌다 싶을 때 알려주는 거죠. 너무 먼 건 우리도 보이지 않아요. 거의 다 왔을 때 알려주는데 승어 양이 많으면 산에서도 꽤 멀리까지 잘 보이는데 양이 적으면 바로 옆에 와야지만 보여요. 고기가 항상 떠서 오는 게 아니고 물 밑에 숨어서 올 때도 있거든요. 너무 숨으면 고기가 아예 안보이지요. 알려주는 것도 적절한 선이 중요해요. 그때 ‘온-다.’ 이렇게 산에서 고함지르는 거죠.

### 기다리는 게 일의 팔 할일 것 같은데요?

그럼요. 송어들이 백미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송어가 들 길목 바다 밑에 그물을 쳐 놓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죠. 배에 있는 선원들은 잠을 자거나 낚시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눈은 어로장의 지시를 받기 위해 한 눈 팔아서 안 되죠. 당연히 숙식을 배 위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음식 도르래를 이용해 전달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리와 냄새에 민감한 송어를 들게 하려면 절대 배의 엔진 소리와 기름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한창 많이 잡히는 시기는 하루에 4~5번씩 그물을 들어 올리고, 비수기라도 2~3번은 들어 올립니다.

### 그런데 그냥 소리를 친다고 들리나요? 산에서 외치는 건데 잘 안 들릴 것 같은데요.

요새는 좋아졌지요. 확성기가 있으니 그걸 쓰는데 옛날에는 바람이 안 불고 우뢰도 안치고 고요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잘 전달되는데, 파도치고 하면 물소리에 산에서 아무리 고향을 쳐도 밑에선 안 들려요. 그래서 하다하다 안되면 고향지르면서 수건 흔들고 그렇게 했죠. 소리는 안 들려도 보이긴 하니까요.



어로장이 바다를 바라보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망대의 모습

###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약속 같은 걸 정하신 거네요. 망루 위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던데요. 그건 뭘 말하는 건가요?

그건 옛날에는 비가 오면 산에 올라가서도 쉴 데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망대<sup>망루</sup>라고 했지요. 망대를 지어두었다가 앉아 쉬면서 보고, 그러다가 고기가 보이면 다시 내려가서 외치고 알리고 했죠.

### 망대, 혹은 망루라고 하는 그걸 지금도 산에 올라가면 확인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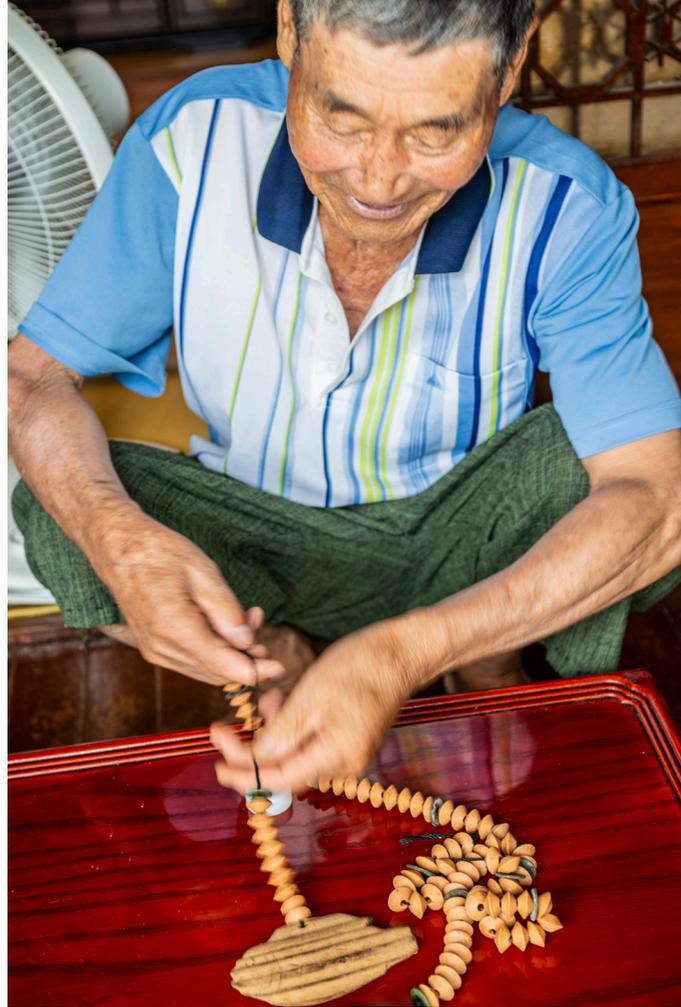
외양포 방향으로 새로 난 길을 가다가 왼쪽 7시 방향으로 급격히 꺾어 군부대가 관리하는 철문으로 허가를 받아 진입하면 풀숲 우거진 임도가 나옵니다. 임도를 따라 200~300m를 가면 내동섬 송어들이 어장이 내려다보이는 망대에 다다르게 되죠. 지금 그 자리엔 이제는 기관실이 있어요. 요즘은 다 기계로 하니까요. 그 밑에 아직도 망대가 있던 것지만요. 우리는 거기 앉아 있는데 망대 뒤편에는 역대 어로장들 14분의 위패를 모셔둔 사당이 있고요. 조성한 지 몇 년 밖에 안되어 아직은 깨끗한 편입니다. 그 위패들을 보면 이것만으로도 160~200년 정도로 추정되는 가덕도 송어잡이의 전통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날씨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마다 송어 철이면 역대 어로장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동시에 배에서도 풍어제도 지내요. 백설기와 흰쌀밥, 과일, 마른 명태와 나무새, 그리고 술을 올린 간단한 고사상으로 지냅니다. 제단에는 따로 가위, 칼, 화장품, 실패 따위의 용품이 든 플라스틱 바구니와 흰 여자 고무신 한 켤레를 오색 깃발의 서낭기<sup>(3)</sup>와 함께 진설<sup>진설</sup>했는데, 그 유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냥 내려온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 그리스 로마 신화의 테티스, 중국의 마조<sup>媽祖</sup>, 제주와 영도의 할망 등이 바다나 물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 작업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면요. 고기를 잡으면 알로 만든 주산으로 고기를 세잖아요. 그건 작업하면서가 아니라 작업이 다 끝나고 하시는 건가요?

(방에 가서 주산 알로 만들어진 긴 목걸이 같은 걸 들고 나오며) 이거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송어를 잡으면 주산 알로 썼습니다. 하도 많으니 헤아리다 헛갈리기 일쑤였으니까 아예 이런 기구를 만들어 사용한 거죠. 주산 알 하나에 고기 열 마리로 쳤어요. 맨 끝에는 고기 모양의 나무판을 매달고 그 위로 주산 알 200개를 매 20개마다 색이 다른 단추매듭으로 구분했어요. 1알이 20마리고, 10알마다 색이 다른 단추로 구분하니 50단추면 만마리가 되죠. 이 마을 어부들은 관습적으로 백 마리를 1동, 천 마리를 1첩이라 불렀습니다.

(3) 서낭기<sup>서낭</sup>에서 '서낭'은 마을 수호신을 지칭한다. 출세 혹은 소원성취를 위해 무당에게 바치는 천을 말하는데 단순히 서낭대를 장식하기 위해 매다는 오색 천을 말하기도 한다.



잡은 송어의 개수를 셀 때 쓰는 도구를 보여주며 사용법을 설명 중인 김관일 어로장

1만 마리는 10점이지요. 10점을 하면 옛날에는 서낭기를 달았습니다. 만약 그 날의 운수가 대통해 한 번 그물질에 1만 마리를 잡으면, 그날은 더 이상 그물질을 하지 않고 조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쉬었어요. 고기에 대한 예의랄까요. 아무튼 남획으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도 나 몰라라 하는 요즘 어부들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조상들의 지혜라고 봅니다. 올봄에도 3월 21일에 출어했는데, 고기가 많았어요. 양도 많았지만 맛도 좋았고요. 어부들이 고기 잡아오면 서기가 딱 이걸로 계산을 해주었던 거죠.

### 아, 서기가 아예 고용이 된 거네요.

서기가 있어야 계산을 해가지고 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잡아 들어왔을 때 바로 셀 필요가 있어서 이게 필요했지만 이제는 주산 알은 쓸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도 내가 이걸 보관은 하고 있어요.

### 어로장과 선원들 간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과거에는 선원과 마을 어촌계가 경비를 제하고 5:5로 나눴거든요. 그러니 선원들 개인한테 돌아가는 몫이 적잖아요.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8:2로 조정을 했지요. 그래도 뭐 수익이 좀 나아졌어도 배타겠다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니 어촌계가 개인한테 어장을 넘기게 된 거죠.

### 개인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기가 줄어든 걸 가덕도 신항 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 민감한 놈들인데, 가덕도 어민들은 “조류가 바뀌면 고기가 안 온다. 해류성 고기는 조류를 타고 오는 건데, 흐름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고기가 옛날만큼 안 온다. 신항만이 딱 막고 있어 물 흐름이 안 좋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항 건설 때문에 조류가 바뀌어 송어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거가대교 불빛이나 차량 소음, 그리고 물길의 변화 등이 다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니 수지가 맞지 않아 개인에게 어장을 팔거나 세를 놓은 건데 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의 협업으로 그 수익도 일정 비율로 나누었지만, 이제 어장주가 어로장 등을 고용하여 송어들이를 하는 판이라, 잡힌 송어는 모두 어장주가 판매하는 거죠. 예전에는 마을 전체가 공동조업으로 의도 좋고 사이도 좋았으니 뉘 집 부엌에 숟가락 몇 개 있는 지까지 알고 지냈는데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조업 방식이 기계식으로 바뀌니 배도 필요 없어지고 대신 바다에 바지선 3대를 띄워서 조업합니다.

## 03

### 송어들이의 현재와 미래

#### 송어가 주로 3월에서 6월에 많이 잡히는 거죠?

예, 양력으로 2월 20일경부터 3월 1일까지 나갈 때이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5월 말 6월 초에 끝납니다. 우리 가덕도에선 송어들이를 봄철에만 하는데 그 3개월 동안에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없이 일해요. 사람이야 뭐 빨간 날이면 쉰다 하지만 고기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 그 시기 안에서도 송어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크기가 다르다면가 하는거요.

처음에 들어오는 놈, 막바지에 들어온 놈, 중간에 들어온 놈이 다 다르죠.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요. 굵기는 뭐 대중이 없지요. 굵은 게 올 때가 있고, ‘모찌’가 올 때가 있고요.

### 모찌요?

제일 작은 걸 모찌라고 해요. 그다음 중간 정도 되는 걸 중도리라고 하고요. 한 4월쯤이면 중도리하고 모찌가 있을 때예요. 그렇게 한 번 확 타고 나면 살짝 없어졌다가 굵은 게 또 들어오죠.

### 승어 철 이외의 시간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철도 철이지만 승어들이는 아침에 나가서 해요. 밤이면 캄캄한데 뭐 보이나요? 그게 끝나고 한 5시면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뭐 소 밥도 주고, 주변 정리도 좀 해주고. 그러다가 또 아침 되면 배 타러 가고요. 틈틈이 산에 가서 땔감 나무도 좀 주워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는 가덕도 승어 잡는 방식도 기계식으로 바뀌어 그물을 자동으로 들어 올리는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덕분에 노동량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승어들이의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아요. 어부수가 격감한데다가 어로장 후계자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늘고 조업단가도 높아져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모든 전통산업이 그렇듯 혁신을 위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2013년을 기점으로 승어잡이 방식이 기계식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가덕도 신항 준공하면서죠. 2010년 즈음에 완료됐는데 그거 시작하면서부터 고기가 없어졌어요. 고기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고기가 안 올라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기가 올라와야 월급을 많이 주고 할 텐데요. 고기는 안 올라오지, 월급은 한 100만 원도 못 되고 한 80만 원 이렇게 주니까 아무도 배를 안 타려고 하죠. 그 당시 어촌계에 조합원이 26명 정도였는데 고기가 없으니 선원들도 줄여야 하고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조업방식을 변경하게 됐고요.



기계식으로 바뀐 승어잡이 기관실을 둘러보며 설명 중인 김관일 어로장

### 그래서 작업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신 건가요?

어렵게 해나가다가 사람을 결국 줄이고 사람이 없다보니 노는 노대로 저어야 되는데 힘들어져서 기계로 다 바꾼 거죠. 또 예전에는 생물이 아니라 죽은 물고기를 부산이나 마산에 가서 팔았어요. 발동선<sup>(4)</sup>이 있는데 부산이나 마산에 노 젓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발동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는 노를 저어서 가야 되니까 어장이 하는 말이 비는 배로 발동선을 두 대 움직이겠다는 거야. 두 대로 하나니까요. 한 척은 고기를 팔러 가도 다른 한 척 발동선이 있으니 끌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럼 마산으로 고기를 팔러 노를 저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가덕도가 섬이다 보니, 배가 교통수단이자 작업수단이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동력선에서 발동기 있는 배를 구해 사람을 줄이게 된 거네요.

네, 그게 한 2013년부터 15년까지 진행된 거죠. 2013년부터 기계식으로 하니 또 무동선 배는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건 이제 바닥에 바지선 3척만 있으면 그물로 설치해놓고 우린 걸어서 산에 가는 거예요. 배로 안가고요. 걸어서 가가지고 걸어서 오고요.

기계식으로 바뀐 게 7년 정도 됐는데요. 몇 십 년간 해오시던 작업방식이 바뀌니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칠십 일곱이니까 저도 그때 은퇴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또 계속 봐달라고 하니 고민이 되었죠. 사실 제가 그만두면 볼 사람이 실제로 없으니까요. 지금 이 나이 되도록 계속하는 것도 후계자가 없어 그만두지도 못하는 처지라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로장 후보들이 연습생으로 몇몇 있었지만, 지금은 할 사람이 없어요. 어로장의 지위가 높을 때는 배 타기 전에 어로장 집에 가서 풍오춤을 퍼주기도 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져버린 것 같아요.

### 지금 이 8월이니까 올해 승어잡이도 하셨겠네요?

막 끝났죠. 근데 올해는 코로나 바람에 늦게 나갔어요. 일찍 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3월 11일에 나갔으니 다른 해에 비하면 아주 많이 늦게 나간 편이지요.

(4)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이며, 주로 1~10톤 사이 규모로 사람이나 짐을 수송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럼 거의 50년 넘게 바다 일을 해오시면서 이제는 그만뒀다 싶은 생각도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그런 적은 없어요. 처음 할 때부터 먹고 살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이게 아니면 딱히 갈 데도 없었지요. 공부도 못했고 하니 무조건 배로 가야 거기서 먹고 사니까요. 배 그만 타자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지요.

다음 어로장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내 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64세입니다. 고기 좀 본다 해가지고 이 마을에 데려와서 내 밑에서 보는데 우리가 보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할 때만해도 앞에 말했듯이, 어로장 하려고 경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방이 바다인 이 섬에서 하루 반나절을 바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내년 봄 승어잡이 철에는 따로 한 번 와서 제대로 구경하고 싶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달라져있을지 모르지만 승어야 뭐 매년 오는 거니까요. 시간내서 한 번 오시지요. 저도 오늘 고맙습니다.



망대 바로 뒤 사당의 모습과 14위 어로장의 위패

## 연보

- 1944년 가덕도에서 출생
- 1953년 대항국민학교에 9살 나이로 입학
- 1959년 15살의 나이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배를 타기 시작함
- 1966년 입대
- 1972년 결혼
- 1984년 부어로장으로 일하다가 어로장이 됨

##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4』, 2012

# 경계 위에서 꿈꾸는 공존의 삶, 백령도 물범지킴이

김진수 (물범지킴이)



## 들어가며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언제나 아득한 규모로 모든 것을 받아내는 바다이지만 우리의 바다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서쪽 최북단. 그 멀고 외로운 바다 위에 작은 섬 백령도가 있다. 백령도는 인천항에서 200km 가량 떨어져 있지만, 북한 옹진반도에서 12km밖에 되지 않는, 육안으로 북녘의 해안과 능선을 바라볼 수 있는 섬이다.

이 아득한 섬에 서해를 자유롭게 오가는 생명 점박이물범이 있다. 점박이물범은 중국 보하이만, 랴오둥만의 유빙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이 되면 남하하여 백령도 인근에 머무는 동물이다.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의 마스코트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이지만 같은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과 물범의 공생 관계는 멀기만 했다. 물범은 어민이 쳐놓은 어망을 찢어놓았고, 어민의 그물은 먹이를 찾는 물범의 생명을 위협했다.

이곳에서 어민의 생계와 물범의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김진수 선장을 만났다. 3대째 백령도에 살며 까나리를 낚는 어부이자 어촌마을의 이장, '물범지킴이'로 꾸준히 활동해온 분이다. 김진수 선장의 할아버지는 북한 황해도 출신으로 '범 영감'이라 불렸다 한다. 그 '범 영감'의 손자가 이제 '물범지킴이'가 되어 점박이물범과 서해 바다 속을 유명하고 놀래미와 우럭, 해삼과 가리비 등 바다가 내어 준 선물을 함께 나눈다.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는 남과 북 양측의 군대가 직접 마주하는 긴장의 섬이다. 이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오늘도 홀로 물질하며 공존과 공생을 바라는 김진수 선장을 만나보자.

# 01

## 범선생의 손주, 백령도에서의 삶

### 선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수입니다. 백령도에 살면서 까나리 조업하고 마을 이장도 하고 물범지킴이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오늘도 바다에 나갔다 오셨나요?

바다는 매일 나가죠. 요즘은 까나리 철이라 까나리 조업하러 갔었어요. 어망은 개량 안강망<sup>(5)</sup>을 써놓고 까나리만 건져오거든요. 근데 이제는 슬슬 까나리가 없어질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일찍 그만뒀어요. 평소보다 한 달 정도 좀 일찍 까나리 철이 끝난 셈인데 아무래도 수온 때문에 그렇죠.

### 이렇게 안개가 잔뜩 낀 날에도 바다에 나가시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백령도는 원래 안개가 많습시다. 7월까지도 이렇게 안개가 끼요. 그래도 요즘은 장비가 좋아져서 까나리 조업할 때는 좌표를 GPS에 입력시켜 놓거든요. 찍어놓으면 항적을 그려놓고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월선도 없고 구역을 이탈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크게 위험하지도 않죠. 코스대로 자기 어망만 찾아서 고기만 건져놓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까나리는 어떻게 잡나요?

백령도에서 까나리 잡는 방법에는 안강망과 낭장망으로 잡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름이 낯설죠? 특히 백령도에서는 이중 낭장망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금처럼 쇠로 만든 닻을 쓰기 전에는 돌을 둥글게 짠 망태에 담아 배를 고정했는데 뱃사람들이 ‘고’라고 불렀던 겁니다. 배에 그물을 매달고 바다에 넣는 것을 ‘고 묻는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배 양쪽 현에 자루그물을 달아서 까나리, 새우, 조기 등을 잡는 겁니다.

(5) 안강망<sup>안강망</sup>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도록 고정해 놓고 물고기 떼가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자루에 밀려들어가게 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구를 말한다.

### 아까 수온을 말씀하셨는데 까나리 개체 수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나보죠?

까나리도 잘 나오는 해가 있고 안 나오는 해가 있어요. 꽃게도 그렇고요. 꽃게는 지금 전국적으로 잘 안 나거든요. 연평도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꽃게 철인데도 그래요. 낙지나 주꾸미도 수온 때문에 점점 올라오는데 이놈들이 치어를 잡아먹어요. 아마 앞으로 문젯거리가 될 거 같아요. 보통 까나리는 우리나라 모든 연안에 떼지어 서식하는 물고기인데 동해안에서는 ‘양미리’라고 부릅니다. 백령도에 사는 우리에게 까나리는 엄청 중요한 자원이예요. 백령도 뿐만 아니라 서해안에서는 까나리가 중요한 소득원이죠. 이걸 발효시켜 액젓을 만들어 먹잖아요. 까나리액젓 아시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연안의 까나리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남획과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경험상 20년 전만 해도 거의 1만 톤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열심히 잡아도 2천 톤에 못 미쳐요. 까나리는 새들도 먹고 고래도 먹고 물범도 먹고 우리도 먹고, 모든 생명이 먹는 중요한 자원인데 점점 줄고 있으니 인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생태계 전반적으로 큰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까나리 감소가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거의 연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앞이 깜깜합니다.



까나리 조업에 나선 김진수 선장의 모습

### 선장님, 그럼 본격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출생도 여기 백령도에서 하셨죠?

네, 여기서 태어났어요. 3대째 여기서 살고 있고 저는 젊을 때 잠깐 육지 다녀온 걸 빼면 평생을 백령도에서 살아왔어요.

### 3대째 백령도에 살고 계신다면 할아버지 때부터인가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을 오셨는데 거기 계실 때 농토가 많았대요. 여기 사람들은 거기 두고 온 땅이 아까워 가지고 육지로 안갔어요. 여기에 계속 있다가 해방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정착을 했더라고요.

### 그럼 원래 할아버지 연고지가 어디죠?

황해도 장연군 오채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할아버지 별명이 거기서 '범 영감'이었다고 해요. 일본순사들이 장연군에 와가지고 자꾸 못된 짓을 하니 할아버지가 가서 일본순사 두 명을 때려 눕혔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애들이 올 때 호랑이 온다고 해도 안 그치는데 일본순사라고 하면 똑 그칠 만큼 악명이 자자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본순사들을 때버린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별명이 범 영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백령도에 피난 와서 사시다가 88세에 여기서 돌아가셨죠.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도 제가 할아버지 머리를 다 깎아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할아버님도 집에서 조그만 대장간을 했었는데 굴 따는 도구나 칼, 호미, 그런 걸 만들 때면 꼭 나를 불러서 풀무질하라 그랬어요.

###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 아버지는 조기잡이 어업을 하셨어요. 그때는 하루에 조기가 많이 잡히면 1,000~1,500마리 정도 잡았고 못 잡을 때도 수백 마리 정도 잡던 시절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소금으로 간을 하고 재워뒀다가 상인들에게 팔아서 쌀을 사곤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버님이 선장을 하고 큰형님이 잠수부 일을 했어요. 일흔여덟까지 살다가 돌아가신지 10년 정도 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했죠. 연세가 예순이 넘어도 술 드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은 문으로 못 들어오고 담 넘어서 들어오실 정도였으니까요. 참 온순하고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산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님 떠나시고 3년쯤 있다가 팔순 안 되어 돌아가셨고요.

### 선장님도 아버님과 함께 어업을 하셨는지요?

육지에서 직장생활 1년쯤 하다가 돌아와서는 바로 잠수를 했어요. 그때 당시 오토바이도 없고 그러니까 자전거에다가 비료 포대 2개 정도를 접고 잠수복하고 실어서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마음껏 잠수할 수 있으니까요. 잠수해가지고 해삼을 담은 거죠. 그 해삼들을 나중에 삶아가지고 간해서 말렸다가 팔고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컴프레서라고 아시죠? 그 호흡기 가지고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제가 7남매입니다. 딸 둘, 아들 다섯이고 5형제 중에서는 제가 셋째로 컸고요. 어릴 때는 늘 바닷가에서 놀면서 지냈죠. 국민학교 다닐 때 여름에는 다들 팬티만 입고 막 뛰어나와서



김진수 선장의 집 베란다에서 바라본 풍경. 바로 앞이 사곶해안이다.

놀고요. 이 앞이 다 백사장이라 하얗게 모래가 쌓이거든요. 그땐 먹을 게 없으니까 감자 쥌 거를 갖고 나온다고요. 그거 먹어가면서 막 노는 거죠. 그때는 해군 수송배가 스크류를 돌리면 웅덩이가 파였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서 뿔 텅어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연 머드팩이에요. 그럼 우리는 수영하고 그 머드팩 몸에 새까맣게 바르고 백사장에 가서 얹드려 모래찜질을 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 마르면 물에 들어가서 닦고요.

### 말씀 들으니 눈에 풍경이 그려지네요. 지금도 아름답지만 당시 백령도는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선 물산이 풍부했죠. 꽃게도 많았고, 해삼, 전복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다가면 잡고 싶은 대로 막 잡았죠. 근데 지금은 양을 정해서 일정 분량 이상은 못 잡아요. 어릴 때 백령도는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여기 백령도가 얼마나 때문지 않은 곳이나면 천연기념물만 네 가지나 됩니다. 일단 점박이물범<sup>천연기념물 제331호</sup>이 있고, 저희 집 바로 앞에 펼쳐져있는 사곶해변<sup>천연기념물 제391호</sup>도 천연기념물입니다. (손으로 가리키며) 바로 저 백사장입니다. 또 섬 아래쪽으로 가면 콩돌해안<sup>천연기념물 제392호</sup>이 있고, 제주도 가면 만나게 되는 그 구멍 송송 난 바위들 있죠? 그런 돌들이 백령도에도 많은데 백령도 현무암 분포지가 천연기념물 제393호입니다.

### 네, 말씀하신 곳들이 다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저희는 두무진 가서 많이 놀랐습니다. 대단한 풍경이더라고요.

백령도 하면 물범만큼이나 육지 사람들에게 유명한 곳이 거기죠. 두무진은 정말 빼어난 곳입니다. 백령도 북서쪽이라 여기서 따지면 거의 대각선으로 끝에 있는데, 이게 바다의 칼바람을 맞으면서 수천 년에 걸쳐 해안선을 따라 바위가 아름답게 깎여 만들어진 것

이거든요. 높이도 한 50여m 될 겁니다. 이름 자체가 우선 멋있잖아요? 대장군들이 앉았다는 전설도 있고요. 언젠가 석양이 질 때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두무진을 바라본 적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와 조물주의 숨씨에 정신을 잃고 황홀경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지만 백령도가 참 아름다워요.

**집 바로 앞에 이렇게 사곶해안이 펼쳐져있으니 그럴 만도 했겠습니다. 저게 특별한 해안이라면서요?**

천연기념물이죠. 길이가 한 4km 될 것 같네요. 사곶해안의 모래가 다른 지역 모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게 높낮이도 없는 수평에 가까운 지역이라서 물이 빠지면 완전한 평야가 되죠. 제가 듣기론 중간 규모의 화물기가 착륙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이 단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도 미군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전략지로 이곳을 택하기도 했다더군요. 천연 비행장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데 둘 중 한 곳이 이렇게 저희 집 마당처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 아름다웠어요. 해안 바로 뒤로 구릉이 많고 그 사이마다 온갖 꽃들과 풀이 잔뜩 피어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런데 1975년에 안보상 이유로 약 3km의 거리에 시멘트 방벽을 쌓았거든요. 그때 백령도 자연경관이 많이 파괴됐죠. 그리고 대체한다고 설치한 것이 폭 100~200m의 솔밭인데 물론 소나무들이 방풍림 구실을 해 짠 바닷바람을 막아주어서 모래바람이 부는 걸 막을 순 있지만 아름다움은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니죠. 분명 시멘트를 뜯어내고 과거의 모습을 복원하면 온 세계 사람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휴양지가 될 테지만 아직 우리는 분단국가니까 그 시절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 시절의 김진수 선장 모습



부인과 함께 한 사진

## 02

### 떠날 수 없는 바다, 어부와 물범지킴이로서의 삶

**‘바다’라는 공간은 선장님한테 어떤 느낌인가요?**

바다는 어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보물이죠. 나가면 건져 오니까. 바로 건지면 바로 현찰이잖아요. 잠수를 하다보니까 이제 백령도의 지형을 물속에서도 다 아는 거예요. 바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를 다 아는 거지. 물이 흐르는 것도 이제 다 정확하게 알고요. 이게 머리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날씨도 느낌으로 다 아시는 건가요?**

기상도 바람 볼 거 같으면 갈매기들 몇 마리가 떠요. 무리 지어서 높이 뜨면 바람이 세계 볼 거고, 낮으면 조금 볼 거고. 가을철에는 빗방울만 딱 떨어지면 바람이 불지 안 불지도 알아요. 잠수하려면 시야가 좋아야하거든요. 북서풍이면 괜찮고 남동풍이면 파도가 많이 일어나는데 빗방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주로 몇 m까지 내려가세요?**

한 20m 선에서 작업해요. 컴프레서 사용하면서요.

**혼자서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할 거 같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컴프레서가 꺼져도 작업하다 보면 감각으로 알아요. 탱크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도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충분히 올라오고도 남거든.

**그래도 위험할 뻔 했다던가, 큰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없으셨나요?**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래도 물속에서 걸려서 위험한 건 없고요. 지금도 잠수는 혼자해요. 선원 없이 컴프레서 걸어놓고. 이제 바다 속에 들어가도 다 알아요. 대충 숨 쉬면서 작업 하다보면 ‘아 컴프레서가 꺼졌다.’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다시 올라오면 되죠.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숙달되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와 같이 하면 마음이 오히려 더 시끄러워서 안 돼요. 혼자서 작업하는 게 여유롭기도 하고 맘 편한 일입니다.



김진수 선장이 배 위에서 컴프레서를 사용해 잠수 작업을 설명 중이다.

### 주로 무엇을 잡으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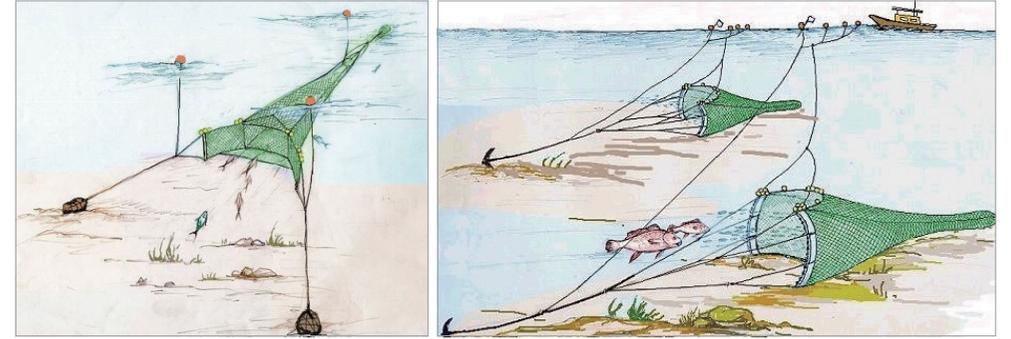
해삼 잡고, 비단 가리비도 잡아요. 여기는 밑에가 사질<sup>沙質</sup>이기 때문에 해산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까나리 철이 끝나면 우럭 낚시 다녀요.

### 작업도 철마다 다르죠?

그렇죠. 겨울에는 잠수를 해서 해삼을 채취하고 까나리 철은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까나리 철이 끝나면 우럭 낚시를 해요. 7월 1일부터 해삼은 또 산란기고 이게 6월 말이면 끝나는 거지. 조업기가 끝나면 다시 바다 속으로 들어가 해남 작업을 하는데 서해는 동해와 달리 바다 속의 시야가 흐려 물질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물범이 있는 바다 주변으로 가면 물고기뿐 아니라 전복이나 성게 등 해산물이 풍부한 편이라서 조금 낫습니다.

### 주로 사용하시는 조업 도구가 있으신가요?

까나리는 낭장망하고 개량안강망을 써요. 안강망 종류는 보통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 날개가 없는 긴 자루그물을 닻으로 고정해서 설치하는 그물인데요. 조류를 따라 회유하던 물고기들이 흐름을 따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겁니다. 보통 1개의 닻으로 어구를 고정하는 대신에 안강망 류는 자루그물 입구에 그물을 펼치는 별도의 장치를 부착해서 그물이 보다 넓게 전개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일반 그물은 조류의 방향이 180도로 바로 바뀌지 않고 서서히 방향이 바뀌는 해역에서는 조업이 곤란한데, 안강망 류는 조류의 방향이 180도로 급하게 바뀌든 서서히 바뀌든 상관없이 조업이



왼쪽이 낭장망이고, 오른쪽이 안강망이다.<sup>(6)</sup>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일반 그물에 비해 어구를 이동시켜 펼쳐두기가 쉬워요.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에서 조업하는 배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종류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 그물도 다 같은 그물이 아니네요. 복잡합니다.

그럼요. 또 근해안강망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쓰기도 하고 서해 연안에서 조업하는 배들이 많이 쓰는 연안안강망, 다른 말로 개량안강망이라고도 하는 것이 있고, 서해안 협수로에서 조업하는 배들이 사용하는 해선망이라는 도구도 있어요. 조업 도구가 차이나기 시작하는 건 배의 동력, 즉 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근해안강망은 어선규모가 8톤 이상 90톤 미만의 배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아까 말했던 제가 사용하는 그물인 개량안강망 혹은 연안안강망은 8톤 이하의 배에서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배 엔진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제일 큰 차이는 무엇을 잡으려고 하느냐에 달려있겠죠. 대상 생물에 따라 어구형태 및 조업 방법도 다소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 낭장망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그 낭장망 종류는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날개그물이 있는 긴 자루그물을 닻 또는 말목으로 고정해서 펼치는 그물이에요. 조류를 따라 물고기가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해 잡는 것으로는 어획 원리가 같은데 가장 큰 특징으로 어구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 그물은 날개그물이 없고 자루그물 입구 양측에 뽕침대를 대어 펼쳐지는 구조이지만, 낭장망 종류는 날개그물이 있어서 날개그물과 자루그물 입구 상부와 하부에 와이어 로프나 밧줄을 달아 상하로 전개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양 날개그물 앞쪽에 닻이나 말목을 박아 좌우로도 펼쳐집니다. 다른 어구는 조류 방향에 따라 어구 전개

(6) 그림 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용어사전』, 2020년

방향이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밀물이나 썰물이나 상관없이 조업 가능한 편인데 낭장망 류는 자루그물 뒤쪽에도 닻이나 말목을 박아 끝을 고정시키거든요. 그래서 밀물이나 썰물 중 어느 한쪽만 어획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주로 밀물 때 어획이 가능하도록 설치해둡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까나리를 잡으려면 코가 작아야 되잖아요? 빠져 나가니까요. 안강망은 꽃게 같은 거 홍어 잡을 때 쓰고, 그건 코가 조금 커요. 코 규격 사이즈가 2.5cm가 돼야 되거든요. 낭장망은 조금 더 작죠. 그래서 저는 낭장망을 더 많이 씁니다.

**선장님을 다들 ‘물범지킴이’라고 부르던데요. 그 수식어는 어떠신지요. 무게감을 느끼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민들에게는 진짜 애물단지야. 물범들이 까나리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어망들을 계속 찢어놓으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꺼내 먹어요. 그렇게 그물이 뚫리면 까나리들이 물속에서 술술 빠져나가고요. 물범지킴이 하면서 어민들에게 욕도 먹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공생하며 살아야지요. 지금 점박이물범은 전 세계에 걸쳐 약 300만 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들었어요. 서식 개체 중 200여 마리가 백령도에서 매년 여름을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포획과 서식지 파괴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백령도 물범바위 사정이 더욱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어민들이 버리고 간 폐그물에 걸려 물범들이 죽기도 하고, 물범들이 휴식하며 숨도 쉬고 일광욕을 즐기는 물범바위에 낚시꾼들이 올라와 낚시하는 등 자신들의 휴식처를 빼앗기고 있어요.

**마을 이장이기도 하신데 주민들과의 마찰도 꽤나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은 싫어하죠. 어망이 피해를 보니까 좋아할 수가 없지. 처음에는 물범 때문에 보호지역으로 정하자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보호구역에서 1km 정도는 조업을 못하거든요. 굴이나 미역도 채취를 못하니까 어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지금까지 물범을 잡지 않으며 보호해 왔는데 왜 그거를 보호지역으로 정하려고 그러는 거냐? 어민들만 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젠 해수부에서 어민들 피해를 보조하려고 조업도구 허가도 한시적으로 해주고 노후화된 어선 전자장비도 보조해줘요.

**‘물범지킴이’로 언제부터 활동하신 겁니까?**

15년 정도 됐네요. 물에서 작업하다 보면 물범이 쳐다보는데 그럼 엄청 귀여워요. 나와 같이 물밖에 나와서 숨쉬고, 눈 동그랗게 뜨고 코 끄뽁끄뽁하고, 뭐 달라고 코나 주둥아리로 콧코 밀기도 한다니까요. 오리발 물고 잡아당기기도 하고요. 작업을 하다보면 어망들이 떠다니다가 바위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바위에 굴이랑 이런 게 있으니까 물범들이 들락



물범바위 위와 근처 바다에서 놀고 있는 점박이물범 모습

날락하다가 그물에 걸려서 죽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대학생들 3명이 물범 때문에 조사한다고 섬에 왔다가 같이 백령도를 한 바퀴 돌았는데, 물범바위에 보니 안강망 폐그물에 물범이 걸렸더라고요. 그물을 끊어 살려주면서 계속 물범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물범은 다가왔다가도 금방 도망을 가는데 알고 보니 숨을 쉴 때 일어나는 내 거품에 놀라 달아났던 거더라고요. 그걸 알고 그때부터는 물속에서 물범이 다가오면 최대한 숨을 참는 편이에요. 그러면 물범들이 호기심에 오리발도 물어보고 와서 툭툭 건드려도 보고 제 걸을 떠나지 않아요. 언젠는 제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니까 악수까지 받아주더라고요.

**물범의 생태는 어떠한지요?**

이게 앞발과 뒷발의 모양이 지느러미처럼 생겨서, 물개와 함께 기각류<sup>(7)</sup>로 분류되는 걸로 알아요. 물개와 비슷하긴 한데 물개와는 달리 앞발이 발달하지 않아서 배로 움직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검은색, 흰색, 회색 등의 얼룩이 있어서 겉보기에는 표범처럼 날렵한 인상을 주는 편입니다.

**실제로 물개랑 많이 혼동되던데 또 다른 점도 있나요?**

물개는 여러 마리의 암놈을 거느리지만, 물범은 일부일처제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개보다 훨씬 귀여워요. 몸도 동그랗고 호기심 많은 큰 눈망울에 짧은 앞다리로 뒤뚱거리는 몸매가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스코트로 지정된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범은 보통 중국으로 가서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봄이나

(7) 기각류<sup>鰐鱗類</sup>는 바다에서 생활하기 알맞도록 지느러미 발을 가진 해양포유류 무리를 지칭한다. 크게 해마과, 물개과, 물범과 3개의 과로 나뉘며, 18종의 물범류와 14종의 물개류, 1종의 바다코끼리로 세분화된다.

가을에 기온이 풀리면서 날씨가 춥지 않은 거 같으면 좀 일찍 내려오고요. 안 추우면 겨울을 여기서 나는 물범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보편적으로 새끼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한 11월 말쯤 올라갈 텐데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 한 열 마리씩 무리지어 가요.

**집단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집단생활을 하는 동물의 세계가 모두 그러하듯 물범의 세계에서도 강자에 게만 휴식 자리가 주어지는 냉엄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편입니다. 치열한 자리싸움에서 예외가 되는 물범도 있는데, 바로 물범 집단을 이끄는 대장 물범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대장이 가장 많은 걸 차지하잖아요. 물범들도 집단 대표, 가장 우두머리인 대장 물범의 자리만은 탐내지 않아요. 신기하죠. 자리싸움이 끝나면 싸움에서 이긴 물범들은 편안하게 바위 위에서 휴식과 일광욕을 취하지만 싸움에서 진 물범들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기 때문에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어린 것들은 올라오지도 못하고요. 물 밖에서는 엄청 느리고 뒹뒹뒹 걷기만 하는 물범이지만 바다로 들어서면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귀엽기만 한 게 아니네요. 아까 봤을 때는 느리고 순하게만 보이던데요.**

제가 물속에서 보면 물범은 엄청 날렵합니다. 몸무게 90kg의 거구가 물고기 사냥에 나서는 순간은 유연하고 민첩해지는 거죠. 사냥감을 노리는 물범에게 볼락 무리가 포착됐다고 하면 물범이 신속하게 움직여요. 엄청 빠릅니다. 볼락이나 놀래미가 돌 틈으로 도망쳐도 물범은 힘이 좋잖아요. 돌도 헤집고 안에 숨은 물고기를 잡아 먹어요. 그런데 물범도 결국 포유류니까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물범도 제가 알기로는 숨을 참는 시간이 2~3분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숨 안에서 사냥에 성공해야 하는 거죠.

**잠수부나 선장님 같은 해남, 또 머구리와도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물범은 단순히 수영만 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해가 물이 탁하다고 했잖아요. 이 탁한 바다 속을 꿰뚫어 보는 좋은 시력과 엄청난 후각이 있습니다. 물범 귀를 자세히 보시면 특이하게 생겼어요. 물속에서 저항을 덜 받도록 꺾바퀴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 대신 귀를 자유롭게 여닫아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영이 굉장히 깊니다. 이 수영이 레이더 역할을 하는데 물범은 물고기나 인간의 작은 움직임도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물체가 일으키는 파동을 느끼는 방식인데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우리가 빠르게 가겠다고 만든 배들의 동력, 그 수면을 때리는 스크류의 저항에 물범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 하죠. 코끝에 달린 긴 수염으로 사냥감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그 민감한 능력에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닐까 싶어요.



물범이 까나리를 꺼내먹기 위해 물속에서 뜯어놓은 그물을 그때그때 손질하며 까나리 조업 중인 김진수 선장

**중국에서 남획을 해서 개체수가 좀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애들이 갈 때 북한과 중국을 경유해서 가거든요. 바닷가 경유해서 가는데 아마 중국은 잡지 않을 거예요. 거기도 이제는 단속을 한다고 들어서 아마 중국인들도 이제는 안 잡을 텐데 예전에는 물범들이 머무는 랴오둥만 일대가 빠르게 산업화되면서 해안이 오염될 뿐 아니라 털가죽을 얻기 위해 새끼 물범을 포획하는 일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또한 지구온난화로 얼음바다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점박이물범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한국전쟁 전에는 점박이물범이 8천 마리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80년대에는 2천 마리 정도로 줄고 지금은 200~300마리만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생명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우리가 무분별하게 잡은 것도 있고, 또 그만큼 생태계가 유지될만한 물고기 어종이 줄어들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 환경이 말도 안 되게 나빠지고 있잖아요.

**물범들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물범 쉼터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늬바다 쪽으로 가면 물범바위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엔 컸는데 지금은 파도가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많이 부서져서 줄어들었어요. 그땐 맨 윗부분 면적이 350㎡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국가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정부에서도 점박이물범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고 천연기념물인 물범이 편히 쉬는 모습을 보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점박이물범 인공쉼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범들이 쉴 수 있는 바위가 많아야 얼마 남지 않은 생명들이 더 오래,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특히 점박이물범은 1년에 한 번 이상 털갈이를 해야 방수와 보온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털갈이는 육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 햇볕을 쬐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암초나 어찌되었든 자기 몸을 말릴 수 있는 바다에서 떨어진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백령도 물범바위에는 많을 때 100마리 이상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하거든요. 멀리서 바라보면 자리를 못 찾아 헤매는 물범이 많이 보여요. 힘이 약한 물범이나 새끼 물범은 별 수 없이 물속에서 하루 종일 보내게 되면서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백상아리 등 천적을 피하고, 사냥 후 휴식을 취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백령도에는 물범이 머물 수 있는 암초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물범들의 특성을 잘 헤아려서 만들어야겠군요.**

그래서 지금 물범바위는 조금 독특한 구조로 되어있어요. 물범이 밀물일 때 물에 잠긴 바위 위에 누워 있다가 썰물일 때 물이 빠지면 그대로 물 밖으로 몸이 드러나게 되는 방식으로 생활하거든요. 지금 물범바위도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인공 암초를 각각 1m씩 높이 차를 둔 4단 형태로 만들었어요. 또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는 대신 1㎡ 크

기의 자연석을 쌓는 방식을 택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석은 콘크리트보다 다시마, 해삼 등 수 산물들이 서식하기 용이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조성한 물범바위의 아래에는 자연석도 좋지만 더 큰 바위나 돌을 가져다두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16억인가, 18억인가 해서 만들었는데 다시마 등을 먹이로 삼는 어류들이 모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이 좋아지면 사실 모두에게 유리한 것일 텐데요. 인간만 너무 욕심을 안 부리면요.**

물고기가 많아지면 물범도 많아지지만, 인근 수역에서 고기를 잡는 어민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생태계 구조 안에서 하나의 생명이 힘을 받으면 다른 생명들도 함께 살아갈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놀래미도 살고 우럭새끼도 살고 물범바위 근처에서 쉽게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으면 점박이물범이 굶어 어망 쪽으로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백령도에 도착해 여객터미널을 나오면 바로 만나는 심청과 물범 조각상

# 03

## 서해 최북단, 경계 위에서 꿈꾸는 공존

###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점사모)’ 활동은 언제부터 하신건가요?

고래연구소, 녹색연합이 한 번씩 백령도를 왔다갔다 보더니,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했거든요. 그렇게 여기 주민들도 가입하면서 활동한지 한 십여 년 지났죠. 지속적인 점박이물범 보호활동이 목표예요. 백령도 주민들하고 뜻을 모았고 최초로 시작한 스무 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들을 구심점 삼아 시작했어요. 2013년 5월 30일 백령면사무소에서 점사모 창립식이 열렸습니다. 외부의 여러 단체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녹색연합이 많이 도와줬죠. 창립식에 녹색연합 순례단도 참가했구요. 점박이물범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이 만들어진 것을 많이 기뻐하고 축하해줬었죠.

### 점사모 창립선언문을 한 번 읽어주시면 취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죠.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우리가 어린 시절 물범을 보고 자라왔듯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점박이물범을 대를 이어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백령도 점박이물범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쌓아 지구상 많은 사람들에게 점박이물범의 중요성을 알려 멸종위기에 처한 점박이물범을 보전하고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점박이물범 보전활동을 통해 한국-북한-중국이 함께 어우러져 서해 평화시대를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 ‘점사모’ 회원은 백령도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겠죠?

거의 백령도 분들이예요. 백령도 학생들도 동아리 식으로 이렇게 하죠. 백령도 내의 유일한 중학교, 고등학교인 백령중과 백령고 학생들로 이뤄진 ‘점박이 물범생태학교 동아리’도 월 1회 점박이물범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어요. 여기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안가 청소도 하고요. 주민과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물범바위에 점박이물범이 얼마나 머무는지 수시로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요. 점박이물범 서식지 인근의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인공섬터 부근의 폐그물과 밧줄 제거활동,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등을 펼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백령중학교 전교생의 28%가 동아리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점박이물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2016년 백령중학교 점박이물범 생태학교 입학식



2020년 점박이물범 서식지 정화활동

###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조금 달라졌나요?

주민도 이제 물범하고 자주 접하게 되니까 친밀감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가까이서 보면 귀엽거든요. 또 방송에 자주 백령도가 나오고 호기심에 방송을 보고 물범에 대한 어떤 적대감 같은 게 풀어지는 거죠.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경우 올해 들어 인공섬터 조성 등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물범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물범 사진을 찍으려는 방송사 촬영 팀이 드론을 물범들에게 가까이 접근시키면서 바위 위에서 휴식을 취하던 물범들이 물속으로 내려가 버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 계속 만나게 되는 물범도 있나요?

지금 고래 연구소에서 한쪽 뺨을 다 찍고 있어요. 우리 군인들 위장복처럼 얼룩무늬가 전부 다 틀리거든요. 뺨으로 번호를 찍고 왔던 물범이 또 왔는지, 새로운 물범이 왔는지 확인하는 분석을 다 하고 있어요.

### 물범지킴이로서의 활동은 계속 이어갈 생각이신가요?

물범들이 물에서 놀고 바위 위에서 노는 모습 보면 장관입니다. 그거는 내가 배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때까지 해야지. 제가 나이 먹고 못 할 정도 되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 중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오늘 바다에 나가 물범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백령도가 쉽게 올 수 있는 섬은 아닌데 멀리서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수 선장이 까나리를 조업하는 모습

---

## 연보

- 1958년 출생
- 1977년 삼성물산 재직
- 1978년 백령도 귀향 후 해남 생활 시작
- 1979년 결혼
- 1980년 첫째 딸 출산
- 1982년 둘째 아들 출산
- 2013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점사모) 활동 조직

---

## 참고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https://m.nifs.go.kr/sub4/sub5\\_1\\_7.jsp](https://m.nifs.go.kr/sub4/sub5_1_7.jsp)). 어구의 대분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2087>). 백령도두무진 白翎島頭武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백령도 맛은 까나리 맛이다”, 2020년 8월 24일
- 한겨레, “까나리는 바닷새부터 고래까지 먹여 살린다”, 2020년 3월 26일
- 경향비즈, “주민수호대 덕분에 점박이물범은 인공섬터가 ‘점점… 좋아지나봐’”, 2019년 12월 19일
- 조선비즈, “[르포] '백령도 마스크트' 점박이물범을 살려라… 인공섬터 등장”, 2019년 4월 28일
- 국제신문, “사라져 가는 야생동물을 찾아서 <17> 점박이물범”, 2015년 10월 15일
- 오마이뉴스, “동그란 눈의 점박이물범, 우리가 널 지켜줄게!”, 2013년 6월 6일

# 하단포구에서 4대째 황포돛배 제작 중인, 마지막 장인

## 김창명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하단돛배 조선장)



## 들어가며

수운과 해운을 연결하는 낙동강 하구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 하단포<sup>下端浦</sup>는 바다가 아닌 강의 포구로서 조선시대부터 낙동강 수운을 이용하여 내륙 지방에 운반하던 물류의 중심지이자, 낙동강을 거슬러 구포를 거쳐 안동까지 이어지는 뱃길의 출발지 역할을 했다. 이후 부산의 대표적인 물류항 역할을 하면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하단포로 모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강기슭의 정비가 덜된 상태의 낮은 수심과 더불어 주위의 갈대숲과 낙동강 하구에 한가롭게 오가던 돛단배의 풍경은 옛 풍류 시인들의 흥을 돋우어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근대화의 물결은 이러한 낭만을 사라지게 하면서 누군가는 생존의 변화에 직면하게 하였다.

1971년 대터터널을 시작으로 낙동로가 확장 정비되었고, 1988년에는 낙동강 하굿둑이 하단을 기점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근대화의 노력으로 하단 지역은 그동안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신항도시로 바뀌었지만, 동시에 하단포는 옛 포구의 정겨우면서도 한적한 낭만의 품격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60여 년 동안 4대째 조선장 가업을 잇고 있는 김창명 선생은 1937년에 하단에서 태어났다. 예전에는 선착장이었던 곳이며, 증조할아버지인 김두행<sup>金斗亨</sup> 선생이 가업을 시작한 조선장으로부터 남쪽에 위치해 있다. 집과 배를 만들던 곳이 가깝다보니 어릴 때부터 김창명 선생은 부친인 김만이<sup>金萬伊</sup> 선생과 조부 김원선<sup>金元善</sup> 선생이 배를 만드는 일을 보고 자랐으며, 자연스럽게 배를 만드는 일에 관심과 재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후 중학교를 중퇴하여 배 만드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제대 후에 본격적으로 배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스물다섯이 되던 해에 첫 배를 진수하였으며, 하단선창 조선소란 이름으로 60여 년 동안 1천 척 이상의 배를 진수하였다.

어느새 여든이 넘은 나이지만 후계자인 조목근 기능전수자와 함께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하단돛배 조선장으로 등록되었다. 배 만드는 사람은 아버지이고, 배 주인은 자식이라 말하는 김창명 선생과의 만남은 하단 황포돛배의 역사와 더불어 장인의 숨결을 느낄 좋은 기회가 되었다.

# 01

## 배 만드는 것이 좋아서 중학교를 중퇴한 아이

###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단에서 돛배를 ‘모으는’<sup>(8)</sup> 김창명이라고 합니다. 1955년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돛배 제작에 입문한 이래로 지금까지 돛배를 제작하고 있지요. 17살 때부터였으니까 65년 정도 되었네요.

### 대대로 하단에서 살아오셨나요? 어릴 때 이야기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지요. 1937년에 하단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집터는 선착장이었고, 증조할아버지<sup>(9)</sup>가 조선장을 처음 일군 곳은 지금 집에서 남쪽에 있던 예전의 괴정천 물가인 하단포였지요. 지금은 길이지만 그때는 물이 들면 집 바로 앞에 배를 정박 시켜뒀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저쪽 큰길 하단 동사무소도 바다였어요. 썰물 때는 지금 도시철도역 주차장으로 물이 빠지는 하단선착장이 그 자리에 있었죠. 어릴 때는 부유하게 잘 살았던 편이었고요. 그 당시 달동네에는 놀이터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놀이터 만든답시고 이것저것 만들면서 손재주 같은 걸 가지게 되었지요.

### 손재주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으신 거겠네요? 가업은 선친 때부터 시작하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손재주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기도 하지만,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게 맞지요. 증조할아버지는 낙동강 뱃길을 따라 물자교류와 어업활동에 필요한 크고 작은 치수의 돛배를 제작했거든요. 할아버지는 구한말을 거치면서 돛배 모으는 기술을 증조할아버지께 전수받았고, 아버지는 전수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 낙동강 하구 인근의 배를 계속 모아 왔습니다. 지금은 증조부 때부터 4대째 조선장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지요.

### 그럼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 배 만드는 걸 옆에서 보고 자라셨겠네요?

그렇지요. 증조할아버지는 못 봤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때 계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같이 배 모으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 봤죠. 그 당시에는

(8) 김창명 선생은 배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라며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 증조부는 김두행<sup>金斗亨</sup>, 할아버지는 김원선<sup>金元善</sup>, 아버지는 김만이<sup>金萬伊</sup>이며 모두 조선장으로 배를 모았다.



낙동강에서 직접 만든 황포돛배를 보여주고 있는 김창명 선생

아버지한테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배 모으는 게 더 재미도 있고 신기하기도 해서 학교만 파하면 곧바로 조선소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거기서 어른들한테 연장도 건네주고 잔심부름도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차근차근 조선기술을 익혀 나가게 됐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아예 학교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중퇴했죠.

### 중학교를 중퇴하셨다고요?

예, 사하국민학교 졸업하고 중구 보수동에 있던 피난학교인 오산중학교에 다녔는데 나한테는 공부보다는 이쪽 일이 더 소질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이후로 조선소에서 조금씩 배우면서 계속 일을 했고 그러다가 본격적이고 제대로 일을 시작한 건 군대에 갔다 와서인 23살 때 정도부터입니다.

### 선생님이 외아들이셨나요? 왜 선생님이 조선장 가업을 물려받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외아들은 아니고 나까지 10명입니다. 6남 4녀이고 나는 다섯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형이랑 누나랑 둘씩 있는데, 모두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공무원이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선장 일이 워낙 힘들고 힘드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 말고 다들 다른 일을 하려고 준비했고 다른 직장 얻어서 잘 살고 있지요.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 할 일 잘 하고 있고요.

### 선생님이 가업을 이으신다니까 가족들 반응은 어땠나요?

형제들도 그렇고, 당시 어머니도 그렇고 크게 반대는 없었고 오히려 만족하시는 편이었죠. 그나마 한 명이라도 아버지를 따라 가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 조선장의 맥이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엄하지 않았습시다. 지금 생각해도 자식들한테 참 잘 하셨어요. 어릴 때는 집이 꽤 부자였거든요. 그러니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라고 하시는 편이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조선장을 반대하셨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에는 조선장 일이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반대할 이유는 없었지요.

### 아버님은 그럼 언제까지 일하신 건가요?

아버지는 1980년에 77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10년 전까지 현업에 종사하실 정도로 기력이 좋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나이가 마흔 셋이었으니까, 서른 셋부터 아버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네요. 할아버지 때도 그랬지만 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업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아버지 따라서 인천, 전라도, 섬진강 등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예요. 전국에 배 모으는 곳이 몇 군데 있었지만, 우리 공장인 '하단선창조선소'가 규모로는 제일 컸지요. 게다가 4대째 배 만드는 집안은 전국 어디에도 없었으니까 더 잘 나갔죠.

### 선생님이 스물다섯 살에 첫 배를 진수하신 걸로 아는데, 아버님도 그 장면을 보셨겠네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제 실력에 썩 만족하시진 않았습시다. 아버지도 한창 일하실 때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정해주셨습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아들이 이어서 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모든 걸 배우다 보니 아버지가 만족하시면 잘한 거구나 싶었죠. 아버지는 저에 대해 애정이 많았어요. 조선장을 시작할 때도 공구함<sup>(10)</sup>을 물려주셨는데 그걸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70년 가까운

(10) 공구에는 대형 만력기인 침쇠, 자, 통, 도끼, 자귀, 배뿔, 배밥, 대패, 먹통과 먹칼, 물반<sup>수평 보는 것</sup>, 꺾쇠, 못뺀기 등이 있다.



김창명 선생은 아직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도구들을 보관 중이고 일부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버렸으니 이제 대부분 녹슬고 상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죠.

### 그만큼 아버님은 선생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는 배 만들다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안 풀리는 게 있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답답해요. 배 만들다 보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지요. 가업을 이어받다 보니 잠도 같이 자고, 장이 나면 같이 다니기도 하면서 시간도 함께 많이 보냈고 형제 중에서도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많이 감사하지요.

## 02

### 격변의 시대를 뚝배와 함께 항해하다

### 선생님이 배를 한창 만들던 무렵이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와도 겹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을 것 같은데 그 시절은 어땠나요?

1970년대만 해도 괜찮았죠. 강으로 물건을 옮기던 것이 대부분 육로 수송으로 바뀌면서 우리도 나룻배 대신 어선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공장일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1980년도부터 낙동강 뒤에 하굿둑이 생기면서 정말 많은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굿둑이 생기기 전에는 조수<sup>潮水</sup>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괜찮았는데, 둑이 생기고 나서는 조수가 없어 지니까 찾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고요.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지요.

### 그랬겠네요. 선생님이 만드신 배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나요?

제가 모은 배로 사람들이 재첩도 잡고, 고기도 잡고 했지요. 사람들 타고 다니는 교통 수단 역할도 했고요. 그 당시에는 단항 포구에서 김해 가는 수단으로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일본에다 물품을 실어 나르기도 했고요.

### 선생님은 배를 만든다고 하지 않으시고 꼭 ‘모은다’고 표현하시네요?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해요. 배는 여러 가지를 모으는 작업입니다. 집을 만든다고 하지 않고 짓는다고 하는 것처럼 배도 모으는 게 옳은 표현이지요.

### 한창 때는 배를 정말 많이 모으셨겠네요.

아내가 가계부를 기록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1천 척 넘게 모은 것 같아요. 한창 경기 좋을 때는 한 번 모을 때 7척씩 했으니깐요. 선주들이 배를 맡기면 쉬지 않고 일했죠. 일이 많더라도 한 척 한 척 모두 성심을 다해 모았는데 가끔 그런 배가 선주의 관리 잘못으로 파손되거나 하면 그때는 꼭 자식이 바깥에서 배를 맞고 온 것처럼 내 마음이 아팠어요. 선주들에게도 섭섭했구요. 그래도 내가 모은 배로 나가서 고기도 잘 잡고 돈도 잘 번다는 소식이 더 많았죠. 그러면 또 내 일처럼 기뻐고요.

### 외람된 질문일 수 있는데, 혹시 척당 얼마 정도 했나요? 배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돈을 꽤 많이 버셨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배 한 척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배가 엄청나게 화려했기도 했고요. 1970~80년대에는 배 한 척 값이면 집 한 채도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저는 재료를 안 아꼈거든요. 선주들 기분대로 다 해줬습니다. 돈 덜 받더라도,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래서 크게 남기지는 못했지요. 그래도 자식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대학도 보내고 먹고사는 데 큰 지장 없이 잘 키웠습니다. 지금도 아이들한테 돈 한 푼 안 받으니 괜찮게 번 셈이지요.

### 이제 자녀분들은 다 컸지요?

그렇지요. 내가 서른 살인가 결혼해서 바로 아들을 낳았으니 제 아들이 올해 52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딸이랑 세 살 터울이고요. 아이들 큰 것 보면 세월이 정말 잠깐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옛날에는 이곳저곳 많이 찾아다니기도 하고, 일에 미쳐서 바보라고 할 정도로 배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때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경까지 일을 했지요. 거의 뭐 일에 미쳤다시피 했지요.

### 아내 분께 많이 혼나셨겠습니까. (웃음)

그럴 수밖에요. 한창 일에 빠져있을 때 하는 소리가 ‘당신은 가정을 모르고 일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나보고 배랑 같이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 일하는 게 그만큼 재밌으십니까?

나는 지금도 배 모으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내가 열심히 모은 배가 한 척씩 완성 되는 걸 보면 뿌듯하고 뭐라 표현할 수가 없이 좋지요. 만들어진 배를 물에 띄워가지고, 그 배가 고기까지 많이 잡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만큼 기쁘고 반가운 일도 없어요. 아무래도 배 귀신이 씌었는지, 나는 배랑 같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곤 합니다. 이제는 어선들도 다 FRP<sup>(11)</sup>로 바뀌어서 목선 만들 일이 점점 사라졌지만 근해 어선으로는 목선을 능가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돛단배는 바라만 봐도 얼마나 기분 좋아집니까. 저는 멀리서 배 이물<sup>(12)</sup>만 보여도 제가 만든 배라는 걸 바로 알아봅니다.

### 다치거나 사고가 난 적은 없으시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 해오는 동안 사고도 없었고요. 지금은 여러 장비를 쓰지만, 당시에는 거의 손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칠 일이 많지도 않았어요.

### 배 모으는 걸 정말 좋아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배 얘기하면 얼굴이 아이처럼 밝아지세요. (웃음) 요즘에도 배를 모으시는지요?

경기도 경기도, 예전만큼 많이 모으지는 못하지요.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한 척씩 모았습니다. 지금은 주문 자체가 안 들어와서 어업용으로는 못 하지만, 여기저기서 전시용이나 행사용으로 요청이 오면 작업하곤 하죠. 작년에 모은 건 전통 박물관에 전시용으로 가져다 났습니다. 올해는 아직 요청 들어온 게 없어서 모은 건 없구요. 요즘은 작업장에 나오면 선거<sup>(13)</sup>에 올려놓은 배들 살펴보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 연세도 있으신데, 힘들진 않으신지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즐겁지요. 시간도 잘 가고, 이것저것 푹푹딱딱 작업하다 보면 몸을 쓰면서 운동도 되니까 몸 건강에도 좋고요.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게 좋은 거지요.

(11) 유리 및 카본 섬유로 강화된 재료인 Fiber Reinforced Plastics의 약자이다.

(12) 한자로는 선수<sup>船首</sup>라고도 하며 배의 앞부분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13) 선거<sup>船展</sup>는 배를 올려두는 도크를 말한다.

### 작업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십니까?

신체를 만들 때 엄청나게 세밀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곡선도 곡선답게 딱 바르게 나오면 기분도 좋을뿐더러 배의 수명도 오래가지요. 나도 기분 좋고, 내 배를 타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나무가 금세 못 쓰게 되어 버려요. 그렇게 하나하나 힘들어가며 배 한 척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가장 매력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대가 시대니까 이해는 가지요. 그래도 잔잔히 시간 날 때마다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라든가 다른 대학교 조선과 학생들에게 배 모으는 걸 교육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요. 나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걸 가르쳐주고는 있지만,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조선장을 선택한 것처럼 그 이후는 그 아이들이 판단할 일이지요.

## 03

### 하단선창조선소에서 시작한 65년 조선장으로의 외길 인생

#### 멀리서도 보면 선생님이 만든 배를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알아보나요?

목선은 다 수제품이다 보니까, 그걸 모은 사람마다의 특징이 남아있지요. 내가 아버지의 기술을 물려받았어도 배 모으는 방법은 좀 달랐거든요.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영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바다가 보족한 침저선<sup>尖底船</sup>을 모으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만들지 않고 바다가 편평한 평저선<sup>平底船</sup>을 고집했지요. 침저선은 주로 바다에서 파도를 뚫고 속도를 내야 하는 선박 구조인데, 구포를 지나 낙동강을 거슬러 오르내려야 하는 강배는 바다가 편평해야 했어요. 똑같은 평저선이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예를 들면 내 배는 선수 위에 코가 다른 배들과 조금 다르지요. 배의 코 부분이 돌고래처럼 보족해서 날렵해 보여요. 계속 보면 조금 묘하게 생겼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 그와 연관해서 황포돛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황포돛배가 정식 이름인가요?

예로부터 한강 이북 지방을 드나들 수 있는 강배를 황포돛배라고 칭했는데 지금도 한국의 돛배를 대부분 황포돛배라고 부르지요. 황포라는 명칭 자체가 돛의 색이 누렇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보니 넓게 보면 강 위를 떠다니는 노란 돛배를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전부터 식량, 쌀감, 소금 등을 수송하는 데 쓰였지요. 지금 내 배를 보면 알겠지만, 나무에는 에나멜페인트로 황토색을 칠하고, 돛은 황톳물을 들이지요. 에나멜이 없던 예전에는 ‘삐찌’라고 말하는 새카만 기름을 많이 칠했어요. 아버지 때에는 재를 쓰기도 했지요.

#### 재를 바르기도 했군요. 말씀하신 김에 목선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가장 먼저 배밑<sup>밑판</sup>을 만들고요. 배밑은 두꺼운 판자를 여러 개 놓고, 만력기<sup>(14)</sup>로 조여서 배뚫으로 결합시키지요. 배밑 모양을 톱으로 재단해 배 앞부분인 이물에 삼각형의 긴 나무로 선수를 구성하는 중요한 골재인 선수재<sup>선수판</sup>를 세우고 배 뒷부분인 고물에는 선미판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배의 좌우를 감싸는 선측판을 조여 붙이지요. 이렇게 하면 배의 전체 모양은 잡혀요. 그 다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배의 양옆 판이 쓰러지지 않도록 가롱목<sup>(15)</sup> 5개를 가로로 설치하여 칸막이를 대고 물 칸을 만들어요. 선미재가 배 방향기를 장치하도록 홈을 팝니다. 원통형의 긴 나무를 두 쪽으로 쪼개어 뱃머리인 공목<sup>公木</sup>에서부터 배 가장자리와 선미 쪽으로 휘어 붙여 배를 튼튼하게 하지요. 선수에 Y자형의 샷대와 노걸이를 설치하고 배 위에 널빤지를 깎 다음 짐대<sup>짐대</sup>를 세우고 노와 방향기를 만들어 엮은 뒤 돛을 달면 목선이 완성되지요.

#### 목선에는 노의 역할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바람이 매번 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람이 없을 때는 노를 저어 이동해야 해요. 그래서 물살을 가를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6자의 노우대를 13자 크기의 노 물밑과 이어서 만들지요. 노우대에는 노풍달<sup>손잡이</sup> 이륜을 끼우고 노 물밑에는 노앞잔지<sup>노를 끼우는 곳</sup> 이륜을 부착하지요. 노가 한 개일 때는 고물 왼쪽에 노쇠를 장착하는 윈노를 쓰고, 큰 배는 가운데와 좌우 세 개의 노를 장착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목을 소금과 황톳물에 담가 돛을 만들어 답니다. 그러면 돛에 줌도 안 슬고 부식도 방지되거든요.

#### 보통 목선은 15년 전후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만드셨던 목선은 지금은 거의 남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면 기분이 어떠신지요?

보통 목선을 모으면 10~15년 정도 사용하지요. 관리 잘하면 20년까지도 가고요. 젊었을 때 모은 목선은 대부분 사라져서 서운한 감정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세월이 뭐

(14) 클램프<sup>clamp</sup>라는 영어 이름으로 더 많이 쓰이는 공구 이름으로 공작물을 공작 기계의 테이블 위에 고정하는 장치를 일컫는다.

(15) 가롱목<sup>加龍木</sup>은 배의 양옆의 판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 주고 칸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가로목을 일컫는다.

그러한 거니 큰 느낌은 안 듭니다. 그렇다고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는 거는 아니기도 해요. 배가 완전히 썩는 게 아니라 썩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썩는 부분은 먼저 수리합니다. 베어내고 때우지요. 예를 들어 바닥이 썩었으면 바닥을 싹 다 들어내고 다시 바꾸기도 하고요. 옆에 상이 썩었으면 베어내고 다시 바꾸지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 수정이 안 되는 배라면 차 폐차하듯이 폐선하지요. 다만 옛날에는 폐선이랄 것도 없이 그냥 막 썩어 버리니까 그냥 내버려두곤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배도 태어났다가 자기 일생을 다하고 다시 돌아간 게 되겠네요. 지금까지 만드신 천 척의 배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배도 있으신가요?**

내가 모은 배는 무엇이든 모두 내가 낳은 새끼처럼 특별하지요. 안 아픈 손가락 없이 다 기억이 나요. 다른 사람 배 같은 경우는 가끔 일하다가 배가 어디에 걸려서 구멍이 나면 물을 퍼가며 다시 수리하기도 하고, 심하면 물을 퍼낼 의미도 없이 그냥 없애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나는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심하다고 해도 목선은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지는 않지요. 나무니까 떠 있는 거지요. 사람이 세 명이나 있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FRP 배 같은 건 물이 새면 완전히 가라앉지만, 목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각의 배만의 특징인 거지요.

## 04

### 조선장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고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조선장으로서 삶이 만족스러우면서도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이러한 역사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일 텐데요. 선생님과 같은 조선장들이 계속 줄어들면 지금의 전통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그렇지요. 사라지면 안 되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전국을 조사해보니까 조선장이 전라도에 네 사람 있고, 경기도인가 서울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모두 6명 있는 셈이지요. 나처럼 지정된 조선장들이시긴 한데, 다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걱정이 돼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 무형문화재인 박정옥 씨, 제주도 범선 '덕판배' 장인인 김천년 씨가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요즘 나도 건강과 관련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병원 한 번 안 갈 정도로 아픈 걸 몰랐는데, 요즘에는 관절이 안 좋아서인지 다리가 조금 아픕니다.



김창명 선생의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신문기사



수제자이자 동료인 조목근 선생(오른쪽)과 함께 한 김창명 선생

전통은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데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는 게 먼저겠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바닷가 근처에 태어나셨으니까 배 모으시는 일을 하셨을 수도 있을텐데요. 만약 아니었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으신지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삶이 배 모으는 거 빼곤 말할 게 없습니다. 바다가 없는 곳에서 태어났으면 손재주 있어도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었을 것 같고요.

**선생님과 함께하시는 조목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40년 넘게 동고동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든든한 동반자이죠. 제가 무형문화재가 되고 나서 수제자로 등록도 했고요. 조목근 씨랑 알게 된 것도 참 오래 전의 일입니다. 예전에는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조목근 씨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함께 일하던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면서 나를 찾아와 일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쪽 같이 일한 게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흐른 겁니다. 같이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원체 좋아요. 그러니 큰 탈 없이 지금까지 계속 함께해올 수 있었던 거지요.

**정식으로 후계자 등록을 하신 건지요?**

네, 부산시에 등록했지요. 이미 돛배 제작 전 과정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자격은 충분해요. 지금은 나랑 함께하는 거지만, 이미 이수자의 몫을 다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부산시에다가 공식 후계자로 등록해놔서 많진 않아도 일정하게 월급도 나가고 있고요. 조목근 씨가 없었다면 후계자도 없고 큰일날 뻔 했어요.

### 선생님 자녀분들은 후계자로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아들이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본업으로 평일에는 토목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와서 이것저것 눈으로 훑어가며 배우고 있어요.

### 후계자도 등록되고, 아드님도 관심을 보이시는 데다 선생님도 연세가 있고 하니 이제는 모두 전수해주고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면 이거 못 하지요.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일이기도 하고요.

### 들으면 들을수록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모으신 배를 직접 타시기도 하지는요?

그럼요. 직접 타고 나가지요. 먼저 내가 모은 배가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돛이 잘 퍼지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배마다 돛 줄 모양이 다 다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뒷바람을 잘 타야 하는 배도 있고, 옆바람을 잘 타야 하는 배도 있으니까요.

### 요즘 어선들도 이제는 다 FRP를 사용하면서 목선이 상대적으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목선 돛배도 돛과 바람만 잘 타면 모터 달린 배보다 훨씬 빠르다더군요.

돛도 두 개 달면 모터 달린 배보다 빠르지요. 보통은 두 개씩 달기도 하는데, 대양을 향하는 건 더 추가합니다. 그런데 돛이 두 개 달린 이 배도 강이든 바다든 잘 탑니다. 이거 타고 하단에서 마산까지 하루 이틀 만에도 오고 가지요. 내가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배 잘 타는 어민들이 저한테 종종 이야기해줬어요. 그럴 때면 뱃일하는 사람으로 뿌듯함도 생기지요.

### 혹시 조선장을 가업으로 이어오면서 배를 모을 때 꼭 명심하는 게 있다면요?

특별한 좌우명 같은 건 없지만, 재료를 아끼지 않으려고 하지요. 조목근 씨에게도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지요. 예를 들어 목선을 모으는 데 주로 사용하는 나무가 삼목<sup>(16)</sup>인데, 그걸로 하면 속력도 빠르게 나고 무거워서 바닥이 자연스럽게 꺼지지요. 그걸 일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목재소에서 사와서 제재<sup>製材</sup>하여 건조하는 데 3개월, 조선하는 데 대략 3개월이 걸리지요.

(16) 삼나무로 높이는 40m 정도이며, 목재로 많이 사용되는 일본 특산종이다.

### 요즘에도 직접 나무를 들고 직접 제작하시지요? 힘들진 않으세요?

나무도 옮겨야 하고 직접 길어도 재야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 힘들지요. 그래도 계속 활동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일어나면 배 한 번 점검하고, 시간 있으면 살짝 타보기도 하지요. 문제가 있으면 수리하고요. 혼자 하면 힘들 일이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많이 도와주니까 충분히 할 만합니다.

### 도면 같은 그림도 직접 그리십니까?

내가 한창 일하던 예전에는 도면이라는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다 보면 직감적으로 알게 되지요. 보면 한 백 분의 일로 수치를 재거든요. 머릿속으로 각도를 다 재서 하지요. 막상 그려보라면 못 그리겠지만, 그래도 다 해요.

### 선생님이 오랫동안 여기 머물면서 보시기에, 가장 크게 변한 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나갔지요. 예전에는 민물장어건, 재첩이건 잘 되어서 동네주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 점점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뭐 각자 자기 살길 찾아서 나간 거니 어찌겠습니까. 나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요.

### 목선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지 선생님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 수준에서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종종 작가나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긴 하지요. 최근에는 다큐멘터리도 하나 만들고 싶다면 연락이 왔고요. 그런데 떠 있는 배를 찍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배를 모으는 과정을 찍으려 하니 아직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송국에서 배를 모으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김창명 선생은 여든이 넘었지만 지금도 매일 작업장에 나오고 있다.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려는 '2020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전국에서 250곳을 선정했는데, 부산에서는 하단, 영도구 하리, 해운대구 청사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단항도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그 내용은 잘 알지요. 49억인가 든다고 합디다. 장릉 가보면 관광지처럼 멋지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풍차 같이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 놔죠. 안 그래도 거기에다가 전통 박물관에 해놓은 것처럼 전시용으로 3m 70cm 정도의 배를 전시하면 어떨까 해서 구청에다가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신 단순히 배만 띄우기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물에 띄우거나, 3D 영상으로 해서 실제로 배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돈이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헌신해서 관리해가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창명 선생의 작업 모습

지금 만들 수 있는 목선이 3m 70cm 밖에 없지요?

그건 아니지요. 보통 3m 70cm가 2톤 정도 하는데, 우리는 2톤 말고도 1톤, 60톤, 65톤도 가능하지요. 중국 연안에 조개 잡으러 나간다 하면 70톤도 만들 수가 있겠지요. 선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전시용도 마찬가지로요. 전시단체에서 규격을 이야기해주면 뭐, 그에 맞춰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황포돛배의 기록 사진

그동안 배와 바다와 함께 평생을 사셨는데,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보람있거나, 마음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옛날에 정복동이란 사람하고 삼천포에서 같이 일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했던 적이 있지요. 출퇴근할 때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위험한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 나갔어요. 우리는 난간에서 일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에 비가 오면 일을 아예 못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날은 무조건 나와서 성실하게 했어요. 만약 새벽에 날 새면 아침 먹은 후에 연장 같고 어두워서 못할 때까지 일하는 거지요. 한 번은 이틀 안에 60톤 배를 모아야 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 10명이 전부 술 한 잔 하면서 왔다 갔다 시간만 보내니까, 그냥 다들 보내고 제가 혼자서 3일 동안 밤새가면서 다 했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가 언제나 보람 있었어요.

선생님의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무형문화재가 되신 게 아닌가 합니다. 무형문화재가 되신 게 4년 정도 되셨지요?

2016년 12월 28일에 되었으니까, 4년 정도 되었지요. 2013년도에 신청했는데, 심사만 4년 걸렸어요. 결국 되어서 뿌듯하면서도 내 일에 대한 보람이 컸지요. 당시 심사하던 무형 문화재 중에서 부산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기도 해서 됐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웃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에게 배와 바다는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는 그냥 내 인생이지요. 같이 태어났다가 같이 저무는 거지요. 배 덕분에 자식들도 잘 키울 수 있었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바다도 배와 마찬가지로 아닐까 싶어요. 바다는 배를 만들 때 항상 고민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다가 있기에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 거겠지요. 작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4년 만에 현차 바꾸듯이 배를 바꿔요. 사람도



김창명 선생과 수제자인 조목근 선생이 직접 만든 배 위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마찬가지지만 많이 쓰면 손볼 곳이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선주들은 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우리는 그런 선주 덕분에 먹고 살고요.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배도 태워주시고 했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놓은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지요. 이야기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으니. 고생하셨고, 조심히 올라가시지요.

---

## 연보

- 1937년 부산 사하구 하단에서 출생
- 1953년 조선장 가업을 이어받음
- 1955년 아버지로부터 공구함 물려받음
- 1962년 전역 후 직접 만든 첫 배 진수
- 1968년 김해 대저면 도도리 출신 유복순을 만나 결혼
- 1980년 부친이 작고하고 조선장을 재정비함
- 2016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하단돛배 조선장 등록

---

## 참고 자료

- 핸드메이커, "수작업으로 우리 배를 만드는 장인, 조선장", 2020년 6월 16일
- 월간조선, "부산 하단의 마지막 배목수 金昌命 장인", 2014년 12월호
- 부산일보, "[주경업이 만난 洛東江 사람들] 10. 돛단배(범선) 만드는 목수 김창명 씨", 2012년 3월 2일

# 북한과 남한의 경계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서, 오늘도 묵묵히 잠수하는 머구리

박명호 (머구리)



## 들어가며

인생을 살다 보면 도통 풀리지 않는 순간이 있고, 그 길고 어두운 시간을 우리는 속된 말로 ‘막장’에 들어왔다 은유한다. 막장은 광물 채굴 작업을 할 때 가장 깊고 가장 뜨거운 갱도를 말한다. 많은 이가 부정적인 혹은 실패의 순간으로 사용하는 단어 ‘막장’이지만, 여기엔 가족의 생계와 오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한 존재의 눈물과 땀, 신성한 열정이 녹아 있다. 깊은 갱도의 끝엔 결코 청년이 들어가지 않는다. 늙고 허리가 굽은, 다음 생명을 키워내야 하는 아버지만이 당당히 들어가는 겸허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갱도가 육지의 막장이라면 그렇다면 바다의 막장은 어디일까.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낚과 추를 메고 한 마디 얇은 산소 호스에 의지한 채 어둡고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있다. 땀이 뻘뻘 나는 육지의 마지막 갱도와 달리 살을 에는 추위로 몸이 떨리는 냉기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 바다의 제일 깊은 곳엔 머구리가 있다.

머구리는 산소 호스를 통해 호흡하며 깊은 물속에서 조업을 하는 잠수부를 뜻한다. 살기 위해 숨을 참아야 하고,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정처 없이 바다를 헤매야 하는 역설이 머구리의 삶이다. 외로운 머구리의 삶처럼 보다 제대로 살기 위해 정든 땅을 떠난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북단 강원도 고성. 그리운 고향 ‘청진’의 이름을 내건 작은 어선을 타고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과 두 아이의 미래, 아내와 함께 살아갈 따뜻한 내일을 그리며 오늘도 차가운 바다로 들어가는 머구리 아버지 박명호 선생이 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생과 사의 경계로 나선다는 그의 이야기는 깊기만 하다. 가장이란 낚과 아버지란 추를 메고 오늘도 바다로 향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01

## 성분에 따라 살아가던 삶

**선생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성에서 머구리 작업하며 청진호 횡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가족과 함께 귀순하신 스토리 때문에 영화도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북한에는 출신성분과 사회성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출신성분은 태어날 때 부모님이 뭘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지고요. 사회성분은 당에 입당하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입당을 안 하면 사회성분도 없는 거지요. 저는 출신성분, 사회성분 모두 군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6.25전쟁 때부터 군인이었고, 어머니도 경찰이셨고요. 형제는 2남 4녀에 남자로는 제가 맏이고, 위에 누나 두 명 있는데 지금 모두 북에 있습니다. 남한에 올 때까지 저도 군인이었고요.

**그럼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군인 집안이셨으면 넉넉하진 않아도 남들보다 부족하지도 않았을 거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GDP가 약간 높거나 비슷했지만, 배급제다 보니 개별 가정생활은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배급 쌀을 타오셨는데 우리가 6남매인데다 어릴 때니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럼 그 쌀이 모자라고 다음 배급 때까지 버텨야하니 잘 관리해야 했죠. 관리 못 해서 쌀 꾸러 다니는 집도 생기거든요. 북한에서 개인들은 모두 어렵게 살았어요.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소유하신 선박 이름이 ‘청진호’입니다. 운영하시는 횡집 이름에도 ‘청진’이 들어가고요. 선생님에게 청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 고향이 청진이에요, 함경북도 청진. 물질은 어릴 때부터 해서 바다와 친숙했어요. 바닷가에서 나서 자랐으니까요, 우리 어릴 때는 자맥질로 성계, 해삼 잡아 구워 먹고,



머구리 작업을 마치고 배로 올라오고 있는 박명호 선생

섭 따서 죽 썬 먹고 그렇게 살았죠. 늘 바닷가에 살다가 이후엔 아버지가 강원도로 부대를 옮기게 되면서 계속 시골에서만 살게 됐죠.

**그렇군요.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부인하고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집사람은 장진에서 하사관 생활할 때 만났어요. 북한 병사들은 군 생활이 너무 기니까 부대 인근 민가에 친한 집들이 몇 곳 생겨요. 짬짬이 나가서 일손 도와주고, 배고프면 가서 밥도 얻어먹기도 하고요. 근처에 또 다른 가족이 하나 생기는 거죠. 10년 그렇게 다니다 보면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그러다 그 집에 딸이 있으면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가 25살이었죠. 지금은 두 아들이 다 커서 큰애가 서른, 둘째가 스물일곱이네요.

## 02

**‘사람은 식물이 아니다. 움직이는 동물이다.’**

**- 한국으로의 이주**

**온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넘어오셨는데요. 가족이 모두 함께 이주하겠다는 결심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라디오 방송 들으며 한국 정보를 파악했어요. 90년대 중후반 북한은 세계에서 고립도 되고 특히 자연재해가 많았거든요. 경제가 아주 어려웠어요. 아실 텐데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란 시기가 있었습시다. 그때 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때 군인들은 죽어있는 시체 치운다고 정신도 없었어요. 농촌에서도 농사일을 제대로 못해서 수확도 없고 모두 굶주렸어요. 군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절반이 영양실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고민을 해야만 했던 거군요.**

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남쪽 KBS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국은 어떻게 사는지, 그쪽에는 쌀이 얼마나 많은지,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추론해 보았어요. 아마도 내가 한국에 가면 분명 저소득 계층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탈북 결심은 빨리했지만 행동까지 옮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탈북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거든요. 갑자기 공군 비행기를

타고 내려갈 수도 없고, 중국을 통해서 탈출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죠. 왜냐면 중국에서 다들 잡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탈북할까 고민하다 우선 탈북 계획의 일환으로 해상 부업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각 부대에 식사 배급이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각 부대가 직접 먹을 걸 해결해야 했어요. 물론 저도 제 부대를 유지할 방법을 직접 마련해야만 했었죠. 저는 우리 부대가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바다로 나가서 해상조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즉, 해산물을 채취해서 그것을 판매하거나 부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다른 간부들에게 제시했어요. 원래는 작은 군부대에는 조업권을 주지 않거든요. 훨씬 큰 단위만 해상 부업이 가능했지만, 우리 부대는 중대 단위였는데 해상 부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해상 부업에 계속 관심을 가진 것은 혹시나 나중에 탈북해서 남으로 가게 되면 나를 위한 생계 수단은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열심히 했어요.

**머구리 일을 복에 계실 때부터 하셨군요?**

네, 우선 중대에서 제재기<sup>(17)</sup>나 잠수 작업에 필요한 각종 기계 설비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기계들을 활용해 노 젓는 배를 하나 만들었고, 조그만 배로 조출하게 시작했어요. 장비는 허술했지만 생각보다는 잘 되더라고요. 부업은 얼마 되지 않아 곧 성공을 거뒀어요. 문어, 성게, 해삼은 바다에서 건진 족족 중간 상인들에게 팔려나갔고 덕분에 중대원들도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성공적이었던지 사단장이 저를 데리고 다니며 각종 강연을 하게 했고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단니까요. 제 중대가 자력으로 잘 건사해 나가자 연대의 간부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간부라도 비전투요원이면 배급량이 적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해산물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바다에서 일을 했었죠.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곳이 바다니까 나중에 탈북하게 된다면 서해를 통해서 건너가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짰다고 하여도 실제 귀순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탈북 방법을 준비하는 것보다 가족을 설득하는 게 어려웠어요. 집에서 라디오 들으며

(17) 통나무를 용도에 따라 판재<sup>板材</sup>나 각재<sup>角材</sup> 따위로 만드는 기계이다.



인터뷰 중인 박명호 선생

집사람을 계속 설득했죠. 우리는 동물이다. 우리는 식물이 아니다. 식물은 자기 자리에서만 자라지만 동물은 움직인다. 움직이는 게 동물이다. 난 이 관점을 주장했거든요. 이후 애들이 크기 시작하면서 배를 만들었어요, 짹짹 애들을 배에 태워 노 젓는 방법도 알려 주면서 준비했어요. 잘 아는 게 바다니까 오래 기다렸죠.

**직접 배를 만들어서 귀순하셨다니 스토리가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해로를 통해 내려오실 때는 위험한 일이 없으셨나요?**

우리나라 바다는 5~6월에 큰 태풍이 없고, 특히 5월에 안개가 잘 낀단 말이에요. 안개가 세계 끼는 날을 기다리다 5월 24일 낮에 안개가 올라오는 걸 보고 무조건 출발했죠. 낮 1시에 집을 들고 왈각 떠났어요. 수십 년 전에 출판된 남쪽관련 지도가 있었어요. 그 해도를 수백, 수천 번 머리에 그리고 있었죠. 하늘의 별, 바람 방향 이런 거 보면서 밤중에도 계속 나갔어요. 집사람은 앞에서 감시 보고 나는 조타치고. 작은 놈은 술 먹여 재우고 중간엔 배에 물이 들어와 큰애는 할 수 없이 물을 퍼내며 달렸어요. 모터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이불로 주변을 덮고 달렸죠. 그리고 5월이면 NLL 부근에 중국 꽃게잡이 어선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누군가 말하길 중국어선들 때문에 레이더에 찍혀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중국어선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후 2시간 정도 더 배질을 하다가 바다 위 양식장에 김치통 만한 부표가 있는 걸 보고 남한에 도착했다는 걸 알았어요. 북한에는 그런 부표가 하나도 없거든요. 낮 2시쯤 산봉우리 하나가 보였는데 그게 덕적도,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이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정착지를 찾게 되신 거군요. 아니 어쩌면 찾는다는 말보단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고 있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곳을 열심히 만들어야 해요. 들어보니 옆 동네 속초에는 함경도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고성에도 정착하는 탈북민이 많아졌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유대인 정착촌이 있고, 과거에 동독과 서독의 경계가 흐릿해졌을 때 수많은 동독인이 서독에 정착했잖아요. 한국에서는 특히 고성에 더 많은 탈북민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는 어떠셨나요?**

어쨌든 처음에 여러 지원을 받습니다. 탈북자들에게는 임대 아파트를 준다 말이에요. 탈북자들은 처음에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임대 아파트라도 수도꼭지만 돌리면 더운물과 찬물이 금방 나오니까요. 방안은 단추 하나 누르면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탈북자가 직업이 문제이지 집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집이 구해지니까 모두가 집을 중심으로 직업을 구하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주변에서만 찾아요. 그야말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방금 전 말씀하신 걸 인용한다면, 다시 한국에서도 식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자기 적성과 기호에 맞는 직업을 전국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임대 아파트가 아쉬워 도전을 꺼리는 탈북민이 많아요. 그리고 물론 힘들겠지만, 북한에 있는 다른 주민들도 자유를 찾아 새로운 삶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사람이 제일 고민하는 게 저렇게 고도로 발전한 한국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할 일이 있겠나? 거지 되는 게 아닌가란 고민을 하는데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농어촌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일거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 데려다 쓰고 있는데 북한 사람은 말이 통하잖아요. 당장 알몸으로 나와도 다음 날부터 바로 일당 받아 일할 수 있어요. 북한의 노동자들은 100을 일하고 1도 안 되는 것을 받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100을 일하면 80을 받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작은 호스 하나 매달고 수심 30m까지 들어가지만, 어차피 저는 남과 북의 경계선도 넘어왔던 사람이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생과 사의 경계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머구리 일을 하시기 전, 한국에서 처음 하셨던 일은 무엇이였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 5월 바다에 제가 만든 배를 띄어 가족과 함께 경계를 넘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갖게 된 저의 첫 번째 직업은 안보 강사였습니다. 북한군 장교 출신이란 배경도 있었지만, 저도 북한 내 실상을 정확히 한국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어요. 처음에 여기 와서 보니 한국사회는 먹고살만 하고 풍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 온 저 말도 안 되는 감옥 사회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곳곳도 다니고, 외국도 다니면서 북한의 현실과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적극적으로 알렸어요.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못해 벽에 부딪혔습니다.

### 왜죠? 또 다른 차별이 있었나요?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 중 학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기에 안보 강사 외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고 하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사회주의에서 넘어와서 여기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고 있는데,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더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로 강연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선에 머물던 청년 시절의 제가 그제야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 그 학생이 아니었다면 청진호도, 머구리도, 이렇게 저희와 만나는 시간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 학생의 질문 때문에 나의 한국 정착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를 점검하게 되었어요.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길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 나의 생각을 이야기 해야지 사람들이 들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이 남한에 내려와 직업도 없고, 제대로 성공한 것도 없이 뭐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남한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여겼죠. 그때부터 저는 이삿집센터, 가구배달업,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사 일을 했지만, 뭐 하나 마음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업하고 싶었던 제게 큰 도시는 필요한 자금 규모가 너무 커서 엄두를 내기 힘든 지역이었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사선을 넘어왔던 곳, 바다였습니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혹시 남조선에 가서 최악의 상황에 부딪힌다면 다시 잠수로 살아남자고 다짐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 본격적으로 머구리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네요.

네, 한 차례의 짧은 방황이 끝나고 강원도 최북단 고성에 자리를 잡았어요. 고성은 조업권이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거든요. 고성에 오자마자 머구리를 시작했어요. 머구리 직업은 사고 위험이 컸지만, 일한 만큼 벌 수 있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잠수부가 월급쟁이가 아니고 일종의 자유계약제예요. 여기서는 지분이라고 하는데 잠수부가 35%를 생산량에서 가져가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100만 원을 벌었으면 내가 35만 원을 버는 거죠. 그다음에 목욕비와 파스 같은 거 붙이고, 머구리 일을 정오 전에 끝내고 저는 다시 생선 벗기는 일 등을 하며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머구리 작업은 혼자 할 수 없어 매일 큰아들과 함께 바다로 나간다.

# 03

## 익숙한 바다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 우선 머구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도구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잠수기는 작업의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천해용 잠수기, 헬멧식 잠수기, 순환자급식 수중 호흡기, 스쿠버 잠수기 등이 있어요. 그중 머구리는 포금이나 동판을 재료로 만든 헬멧을 쓰고요. 납으로 된 추가 가득 담긴 완전 방수복을 착용합니다. 바닥에는 쇠붙이가 붙은 무게가 있는 구두를 신고요. 가장 중요한 공기호스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구멍 신호용 끈을 장착해요. 바다에서는 행동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장비를 챙기고 나서 호스로 공기를 제공받으며 바다 안에서 유명하며 작업을 시작해요. 처음 바다로 들어갔을 땐 꼭 우주로 나간 우주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배 위에서 펌프로 공기를 넣었는데 지금은 기계로 공기를 넣습니다. 그런데 호스가 워낙 길다 보니 파도에 밀려 스크루에 감길 때도 있어요. 그럼 바로 목숨 잃는 거죠. 배 위에 있는 보조와 조금만 사인이 어긋나도 수압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저는 주로 머구리로 해산물을 채취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해산물보단 해상 작업할 때 머구리를 많이 찾지요.

### 한국에서 처음 머구리 작업을 하셨던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처음에는 강원도 아야진 항에서 잠수를 시작했어요. 아야진 항에 잠수부 배가 있는데 잠수부를 못 구했던 말을 들었거든요. 투구식 잠수부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몸만 있으면 돼요. 아야진에서 바로 시작했죠. 어렵게 장비를 구해 무작정 바다로 뛰어내려 봤죠. 처음엔 들어가서 별별 기다 나왔어요. 본격적인 첫 수확, 그러니까 생산 잠수는 여기 와서 처음 해봤으니까요. 보통 머구리가 바다 속 30~40m 사이에서 작업하거든요. 머구리가 엄청 힘들고 무서운 일이에요. 10명 중 5~6명은 포기하고, 3명은 죽고, 단 1명만이 살아남는다는 말도 있는데 이제 고성에는 머구리가 7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 바다 속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육지에는 경계가 있지만 바다에는 경계가 없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5월이었는데 물이 흐려서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그나마 깊은 곳은 시야가 좀 보여 한 35m까지 내려갔고 해삼 2박스 정도 작업했어요. 한국 와서 단순 노동부터 이런저런 일을 해봤는데 잠수부 생활은 그러니까 완전히 누구 밑에서 일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비록 내 배가 아니지만 잠수배 위에서는 잠수부가 왕이거든요.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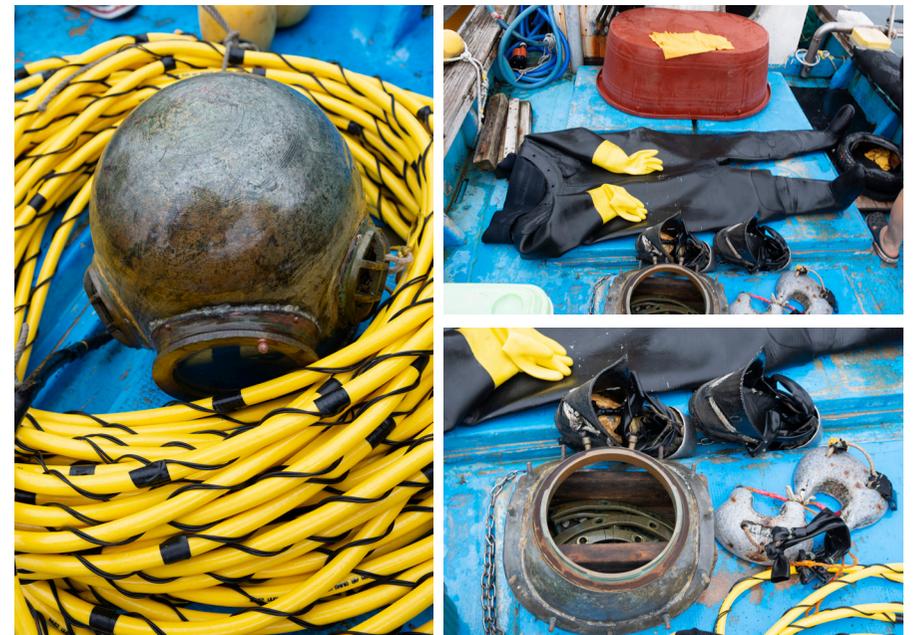
투구식 잠수부는 다 입혀줘야지, 먹여줘야지. 대우 자체가 다르거든요. 일 끝나면 생산물도 잠수부 입회하에 저울 재고, 계산 자체를 잠수부를 봐주는 거예요. 선주는 선주고, 잠수부는 물주인 셈이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죠.

### 위험한 일인 만큼 경제적 보상이 잘 주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서 이어간 머구리 일은 수입이 괜찮았나요?

저는 파도가 높아서 머구리 일을 못 해도 놀지 않았어요. 그물배 들어오면 하나하나 고기 벗겨주고 그랬죠. 그럼 다 돈을 주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보통 6~7백만 원 정도였어요. 2년 만에 어선을 사고, 이후 집도 장만하고, 큰 횃집도 열었어요.

###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것은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인가요?

아이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결국 나와 아내를 위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우리가 함께 더 잘살아가려고요. 이제는 나이를 먹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잖아요. 다 나이 먹었어요.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다행인 건 머구리는 나이가 들어도 생산 활동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올해로 70세인 잠수부도 있어요.



머구리 작업할 때 쓰는 도구들과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호스

14년 정도 계속하시는데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반복되는 머구리 작업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아요. 한 6년 잠수부 해서 번 돈으로 횃집도 시작했잖아요. 여기 잠수사 중에서 나를 제일 많이 찾았어요. 내 좌우명이 '내가 내일 안 나가면 우리 집 아침 끼니가 떨어진다. 가마솥에 넣을 쌀이 없다.'거든요. 우리는 북한에서 배고픔을 몸으로 느껴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주들이 나를 엄청나게 떠받들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하고 말도 안 섞고 특히 잠수 나갈 때는 절대로 말 안 해요. 얼굴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곧장 배로 올라가 잠수복부터 입어요. 날씨가 안 좋다고 말하면 '그건 나가봐야 안다. 안 좋으면 나갔다 들어오면 된다.' 이게 내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민망하지만 가장 큰 보람은 많이 버는 날이죠. 우린 아침에 나갈 때 통장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바다 통장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선주들이 좋아했다고 하지만 동료 머구리 분들은 다른 시선을 보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분들은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데 나는 자꾸 변하고 역동적인 무언가를 원해요.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내 것이라는 걸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차, 자기 배, 하나도 못 가져봤어요. 그런데 여기로 넘어와서 태어나 처음 무언가를 가지게 되니까 소유욕이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다른 머구리, 다른 조업장의 시기 질투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촌조합 대의원에도 들어가 함께 회의하며 지내고 그러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삶 자체가 매 순간 생과 사의 경계선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많은 걸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대진항에 온 후 해마다 머구리가 죽었습니다. 어차피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버지고 남편이니까 해낼 수 있죠. 주변의 시선은 물론 어렵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잠수부는 잠수병이라고 하나요? 직업병이 위험한 직군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잠수병이 있으신가요?

잠수부는 직업병은 다 있죠. 아직 세계적으로 잠수병에 대한 명확한 진단법이 없어요. 임상의학으로 아직 불치병이에요. 잠수병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디가 안 좋다가 보다 혈관 속에 질소 같은 게 많이 분포되면서 피 흐름을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점점 낮아지고요. 아마 바다와 거리가 있는 분들에게 잠수병이란 이름은 낯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잠수병이라는 것이 심해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하다 보면 천천히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올라오다 보면 수압 차이가 급격하게 나게 되고 그때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몸을 천천히 적응시키면서 올라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하게 하는 것보단 천천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무엇이든 급하게 작업해선 안 됩니다. '감압'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데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머구리 작업하시는 분들은 수확한 해산물들을 최대한 빨리 옮겨야 신선도가 높고, 또 최고의 가격을 받고 팔려면 경매 시간을 맞춰야 하거든요. 머구리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수확한 걸 제때 팔기 위해 너무 빨리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핏속에 녹아 제대로 배출되지 못했던 질소가 수면으로 올라올 때 수압이 낮아지면 기포로 변해 혈관을 통해 온몸에 퍼져버립니다. 사이다병을 따 순식간에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 상태로 녹아있던 탄산이 순식간에 하얀 기포가 되어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하고 비슷한 이치예요. 잠수병이 시작되면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과 두통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요. 뉴스에서도 다루어진 거로 아는데 어떤 머구리분은 두 다리를 잃은 거로 알고 있어요. 피가 통하지 않아서요.

잠수병 말고도 머구리 작업하면서 위험했던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죠. 위험은 다반사예요. 일상이고요. 파도가 조금만 세게 쳐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스크루에 호스가 감기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다른 게 잘못되면 세우거나, 당기거나 나름의 방법이 있는데 스크루에 호스가 감기는 건 뭐 방법이 없어요. 저도 몇 번 죽을 뻔 하기도 했고요. 또 깊은 데서 정신없이 작업하다가 위에서 시간을 알려줘야 하는데 잠수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 쓰러지기도 했어요.

바다 속에 들어간다는 게 생과 사의 경계에 머무는 일일 수도 있는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매 순간이 두렵지 않으셨나요?

바다에 들어갈 때보다는 내 배를 처음 탔을 때가 더 두렵더라고요. 남의 배 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주인이고 자기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해요. 근데 내가 배를 사고 작업할 때는 위에 선원 2명을 두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확실히 자기 배가 아니니까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남의 배 타고 작업할 때는 나만 잘하면 되었는데 이젠 아니었어요. 머구리 작업은 조금만 잘못되어도 큰일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 곧바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하고 함께 하고부터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는 가족이, 특히 부자 시간만 머구리 작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펌프 쳐서 산소를 넣었거든요. 확실히 아들과 함께하고 나서는 호스가 스크루에 감겨 위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많았죠. 부자간에 하는 건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 위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가 위에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아요.

**징크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행하는 나만의 의식을 의미하는데 머구리 작업하실 때도 그런 의식 같은 게 있으신지요?**

머구리 작업이야말로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이해지고 위험해요. 어느 때엔 컴프레서를 켜지도 않고 바로 헬멧을 씌울 때도 있어요. 함께 배 위에 오른 세 명 중 한 사람만 정신 똑바로 차려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조업 도구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잠수복이 보통 8~9kg 나가요. 두꺼우면 10kg 정도 나가고요. 안에 입는 수트가 하나 더 있어요. 순서는 먼저 버선 신은 다음에 장갑을 끼고 잠수복을 입죠. 그다음 두꺼운 잠수용 신발을 신고요. 고무 냄새가 올라와 수건으로 목 부분을 둘러주어야 해요. 그리고 헬멧과 연결하기 위한 어깨 고리인 '가다 가리'를 두릅니다. 지금 우리가 바다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대부분 일본어인데, 북한에서는 용어를 다 고쳐 우리말로 부르거든요. 북한에서는 이걸 어깨 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남한 사람들은 어깨 철이라고 그러지 않고 '가다 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망태기는 영어 '네트'를 일본식으로 '네토'라고 부르고요. 여기 와서 '어깨 철'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 뜻을 몰라서 그걸 다시 일본말로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용어를 일본어로 쓰고 있어 당황했죠. 말하다 보니 예전 기억이 나네요.

**주로 사용하시는 도구도 있으십니까? 채집할 때 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면요.**

손에 들었던 갈고리 딱 하나예요. 그거 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합니다. 간혹 문어 같은 게 있을 때, 배 위로 창을 내려 보내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문어 생태계가 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문어가 10~11월에 쪽 들어왔다가 연안에서 산란해요. 12월 쯤 문어 잡아보면 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8~9월 이럴 때 알이 있어요. 옛날에는 문어들이 쪽 들어와서 산란하다가 이제는 바다 밖에 머문다는



잠수 중인 박명호 씨

거죠. 문어는 수온이 15℃ 이상 올라가면 못 살아요. 이제는 겨울에도 수온이 높아 가까이 오지 않고 깊이 머무는 거죠. 예전에는 꽃문어라고 4월에 바다 밑을 내려다보면 문어가 꽃 핀 거 같이 빨갛고 그랬어요. 산을 보면 진달래꽃이 빨갛고 바다 밑엔 문어 꽃이 빨갛다고요. 그래서 꽃문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은 문어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이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창 쓸 일이 없어요.

**한 번 잠수장비를 사시면 얼마나 쓰시나요?**

잠수복은 한 2~3년 입어요. 투구는 10년 이상 쓰고요. 제가 사용하는 장비도 청동 투구에 쇠 신발, 납덩이 등 60kg에 이르는 장비를 갖추고 서너 시간 동안 잠수합니다. 살기 위해 의지하는 150m의 공기 호스도 있네요. 많이 무거우리라 생각하지만 큰 철제 헬멧을 쓰고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또 할 만해요. 장관이거든요. 바다 밑에는 전복, 키조개, 홍합 등 아름다운 조개류가 엄청 많아요.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것보다 훨씬 예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저도 들어가 보고 싶어집니다. 방금 듣기로는 공기를 기계로 주입한다고 들었는데 이외에 머구리 작업의 장비가 달라진 것도 있나요?**

이 머구리 작업이라는 게 일본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잠수법이 시작된 지는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배나 배 위의 도구들이 모터로 돌아간다는 것 말고는 대부분 변화가 없어요. 유난히 기술 발전이 더딘 업종이라고 할까요. 물론 산소를 더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배 위에서 펌프로 공기를 내려주지만, 공기 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맨몸으로 잠수하는 해녀에 비해, 더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더 많이 채취할 수 있지만, 그만큼 오래하다 보니 아까 말했던 잠수병이나 스크루에 호스가 걸리는 것과 같은 위험도도 함께 높아지고요.

**해녀와 머구리.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작업이라고 봐야겠네요.**

해녀, 해남도 위험을 감수하며 작업하지만 머구리에 비할 순 없습니다. 만약에 공기호스가 절단되어 잠수복 내부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면 무거운 추와 헬멧을 장착한 잠수부는 혼자 힘으로 떠오를 수 없어서 결국 익사하고 말아요. 그 무거운 걸 달고 공기도 빠졌는데 혼자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 04

## 아들이 잠수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바다를 꿈꾸다

지금은 큰아들하고 함께 작업하시는데 앞으로도 두 아들이 머구리 작업을 이어가길 바라시나요?

우리가 가게를 하며 머구리집이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머구리배를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바다에 들어가 보는 게 좋아요. 사람의 의지가 모두 바다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지가요. 그걸 해보면 다른 일의 수월함도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한 존경도 생기고요.

머구리 작업이 점점 사라지는데 계속 대를 이어 업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머구리 집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두 자기 아들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집들이 모두 대가 끊어졌어요. 머구리를 대를 이어 하는 집이 없어요. 머구리 작업을 이어가는 데엔 우리나라 수산업법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수산업법 자체가 애착을 두고 대를 이어가면서 하계끔 되어있지 않아요.

한국 수산업법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우리나라 수산업법이 허용하는 잠수 허가가 두 종류 있는데요. 11조는 개인에게 잠수 허가를 주는 것이고, 12조가 어촌계에 허가를 주는 것인데 11조는 연안 바다가 아니라 심해 바다에 해당해요. 심해 바다는 자원임용관리를 할 수 있는 수심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걸 조업하는 바다이지 관리할 수 있는 수심이 아니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농업이 발전한 데는 야산을 개인에게 주고 대체로 큰 산을 국유림으로 관리하기 때문인데 바다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연안 바다를 개인에게 줘야 생태계와 환경 관리도 되는데 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개인 바다를 깊은 바다를 주고, 가까운 바다를 어촌계에 줘버렸어요. 공산국가에서 살아봤지만,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다 망해 버렸잖아요. 어촌계의 주인이 명확한가요? 주인이 없는 모두가 임대업자로서 영업을 하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주인으로서 관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바다를 주인으로서 관리하면 분명 머구리도 대를 이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영 중인 청진호 횡집에서 큰아들과 함께 인터뷰 중인 박명호 선생

생태계에 대한 질문도 드리면 좋을 거 같은데 바다 속은 어떤가요? 남과 북의 육지 풍경처럼 다른가요?

우리나라 바다는 처음 들어가고 깜짝 놀랐어요. 폐기물에 온통 막혀있다고요. 우리 한 집이 가지고 있는 어구가, 북한의 1개 수산용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어구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죠. 바다 속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어구에도 명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 낙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즉시 신고하고 잠수부 수거 비용을 주인이 대는 것이죠. 지금은 바다에 떨어지면 그냥 가잖아요. 과거에 바다에 들어가면 미역과 해초가 정글 같았어요. 숲속에 들어간 거 같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백화현상<sup>(18)</sup>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해양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채취하시는 해산물 종류도 달라졌나요?

한 해에 성게 한 가지만 해도 몇 톤씩 했던 말이에요. 근데 없어요. 하나도 못 해요. 여기 주 종목이 성게, 문어, 해삼, 멍게, 소라, 미역, 다시마 이렇게 나가는데 점점 주 종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머구리 작업으로 바다를 매일 바라보시는데 동해의 백화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이 따뜻해지게 되면 해초가 발아를 못 하는 거 같아요. 내가 잠수해서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 해초라는 거는 음파에 예민하거든요. 바다에 부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해초가 아무리 많아도 부표가 있는 그 주변엔 해초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왜 없는가 하면 부표가 파도에

(18) 연안 암반 지역에 산호처럼 석회질의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는 홍조류가 퍼지는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해조류가 사라지고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바다의 사막화 현상이다.

부딪히며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바다 밑에서 작업하다 보면 배가 지나가면서 ‘탕’ 하고 파도와 부딪히는 소리에도 흠칫 놀라요. 그 파장이 세기 때문이에요. 물의 전달력이 그만큼 센데 해초가 연안 바다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배들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배들이 속도가 빨라지고 커지면서 바다를 때리는 그 파장이 어마어마해졌어요.

### 혹자는 성계가 이런 현상을 가속화한다고도 말하던데요. 성계의 영향은 아닐까요?

지금 성계가 해적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계가 정말 해적 동물이면 옛날에 성계가 지금보다 수십 배나 더 많았을 땐 해초가 왜 많았냐는 물음을 던지고 싶어요. 성계가 해초를 먹지만 해초를 먹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하고 번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엔 먹는 놈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내가 관찰한 바로는 그래요. 해초를 안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해초를 관리하는 방식이 꼭 꿀벌과 같아요. 내가 11년간 관찰한 바로는 그래요. 그리고 해양법에 따라 연안에서는 배 속도를 제한시켜야 해요. 올림 때문에 해초를 다 죽입니다. 백화현상은 결국 복합적 요인인데 성계에서 너무 많은 원인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 무거운 납을 달고 바다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현대의 가장들 모습과 닮았다고 느껴집니다. 아버지로서의 다짐은 무엇인가요?

몸으로 느낀 배고픔과 절체절명의 위기. 이런 걸 여기 분들은 잘 겪어보질 못하잖아요. 우리는 몸으로 겪어봤으니까 저만 해도 나태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매일 들어가야만 합니다. 나는 나대로 나태해지지 않게끔 채찍질하는 편이죠. 1세대들은 밀바탕을 깔아 놓지 않으면 이 세계에서 궤도에 들어설 수 없어요. 여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가족과 친구가 없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뭐 있니? 우리는 오직 열심히 하는 것밖에 몰라야 한다.’ 이렇게 매일 다짐하죠.

### ‘인간은 식물이 아니다. 동물이다.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떠신가요? 계속 이곳에 정착하고 앞으로도 머구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사실 지금까지 와보니까 오십 넘은 사람은 직업을 바꾸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던 일 발전시키고 굳히기에 들어가야죠. 체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더 들면 힘들겠지만 머구리는 배가 고프면 언제든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4시간 동안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외롭고 무섭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런 외로움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컴프레서가 연결된 헬멧을 쓰고 공기가 착 하고 들어오면 외부세계하고 완전히 차단이 시작되거든요. 아주 좋아요. 이 소란스러운 인간세계에서 떨어져 나온 거 같은 느낌이랄까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편하고 좋아요. 평생 바다로 주소지를 옮기고픈 심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머구리를 할 것 같아요.

### 가족들은 어떠신가요?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지금은 아내가 저보다 더 한국 생활에 만족합니다. 한국으로 오길 잘 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아이들하고 같이 횃집도 운영하고 함께 머구리를 해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처럼 북에서 넘어와 정착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미 저처럼 머구리, 정착을 위해 고성으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고성군에 임대 아파트가 없는데도 포기하고 옵니다. 고성에 넘어온 사람으로는 내가 1호고 그 후에 많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잠수부도 많고 배 타는 사람도 많고요. 왔다가 실패해서 간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한 사람에게 바다란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께 바다란 무엇인지 보통 마지막으로 여쭙보거든요. 선생님께 바다란 무엇일까요?

우린 바다가 장이고, 통장이고, 은행이고, 삶의 전부죠. 바다가 없는 곳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나는 한국에 와서 제일 아쉬운 게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연 어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가 제일 큰 고민이에요. 더 깨끗한 바다, 우리가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바다를 희망합니다.

## 연보

- 1965년 출생
- 1981년 북한 인민군 입대
- 1990년 결혼
- 1991년 첫째 득남
- 1994년 둘째 득남
- 1996년 머구리 첫 작업 시작
- 2006년 탈북
- 2014년 청진호 횃집 개업

## 참고 자료

- 시사인, ‘머구리’기술 고향은 일본일까 조선일까, 2019년 10월 18일
- VOICE OF AMERICA, “한국 정착에 성공한 탈북자 박명호 씨의 억척 분투기(2)”, 2019년 2월 4일
- 설악신문, “탈북 머구리 박명호의 살아온 이야기(9)-한국 도착 후 겪은 일들”, 2018년 4월 23일
- 한국경제, “SBS 스페셜 ‘심해, 마지막 머구리’”, 2007년 7월 30일

# 식품이 아닌 문화상품으로, 천일염에 콘텐츠의 맛을 더하다

최신일 (염전주, 염전 기술 개발자)



## 들어가며

소금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였다. 소금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었고 화폐의 역할을 대신했으며, 국가 권력을 상징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품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절임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 음식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신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천일염 생산지다. 기술자들이 한국전쟁 때 피난민으로 내려와 비금도에 정착했고, 지금의 신안 염전을 조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만 해도 염전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염전업에 뛰어들었고 서해안에 대규모 염전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소금 전매 제도는 1961년을 끝으로 폐지되었고, 수입산 소금이 들어오며 국내 소금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다. 또한 국가에서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며 많은 염전이 태양광 부지로 전환되었고, 거기다 신안 천일염에 관한 여러 논란까지 이어지자 신안 천일염도 조금씩 과거의 명성을 잃어갔다.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 중인 최신일 선생은 1973년 신안 도초도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는 염전 축조 작업에 뛰어들었고 그의 아버지 역시 자연스럽게 염전 일을 물려받았다. 반면 그는 어렸을 적부터 염전 일을 싫어 했지만, 결국 제대 후 도초도로 다시 돌아왔다.

20대 중반 결혼 후 본격적으로 도초도에 자리 잡으며 염전 일에 뛰어들 그는 단순히 소금을 생산해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소비자들이 소금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갔다. 2006년 ISO 22000인증을 받아 당시만 해도 광물로 취급받던 소금이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2008년 염전 바닥과 지붕 등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며 친환경적인 염전 시설을 구축했다. 그는 지금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소금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의 삶과 이야기가 이미 세상 그 어떤 소금보다 진하게 다가온다.

# 01

## 염전을 싫어했던 아이

**대표님,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973년에 이곳 도초도에서 태어나 지금은 (주)도초라는 이름의 법인을 운영하며 염전과 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인 최신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소금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도초도에서 염전업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와 아버지는 도초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고아로 도초도까지 피난을 오셔서 여기에 터를 잡으셨고요. 워낙 어릴 때라 어디서 왔는지 기억을 못하신다고 들었어요. 원래 양씨 성을 썼는데, 홀로 피난 온 할아버지를 받아준 분들이 최씨 성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대부터 최씨 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도초도에서 처음 염전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바다 방조제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되면서 염전 축조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그때 할아버지도 그 작업에 매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쪽 다리가 안 좋으셨는데 그러면서도 뿔에서 낙지를 잡으면서 어업에 종사하시기도 했죠. 약주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시골 어른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최신일 선생의 모습 (오른쪽)



인터뷰 중인 최신일 선생



아버지와 작업 중인 최신일 선생

**부친께서도 할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할아버지와 함께 염전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저에게는 염전 일을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늘 말씀하셨죠. 학창 시절에 이따금 함초 뽑기 등 간단한 염전 일을 하고 용돈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염전 일이 싫다며 기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염전 일을 하시던 부친에 대한 어린 때 기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무엇보다 냄새죠. 염전 일을 하다 보면 장화에서 땀이 물처럼 흐릅니다. 몸에서 쉰 냄새가 나죠. 어렸을 적 아버지한테서 그런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적 다리를 다쳤을 때 아버지가 자전거로 저를 태워주셨는데, 아버지 등에서 나던 그 땀 냄새가 지금까지도 선명합니다. 저 역시 어느덧 염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집에 가면 이따금 막내가 땀 냄새 많이 난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곤 하죠.

**염전업이라는 게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부친의 사업은 어땠나요?**

아버지도 두 번 부도를 맞았습니다. 대부분 빚보증을 잘못 섰기 때문이었죠. 그 탓에 어린 시절 집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국민학교 때, 체육복 하나로 1년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평소에 주위에서 신뢰를 많이 얻어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부도날 때마다 위기를 잘 극복하시긴 했습니다.

###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산도에서 시집왔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신 편이고, 속으로 다 묵히곤 했습니다. 전형적인 옛날 어머니 모습에 가까웠죠. 형제는 남동생 한 명,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판타지 소설을 쓰다가, 어머니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후 병수발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우체국 직원이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 섬에서 보낸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과 벽 없이 지냈습니다. 함께 해수욕장에 가서 먹을 감기도 했죠. 선생님이 없는 날이면 친구들과끼리 모여 서리도 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이곳 도초도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은 안 갔고요. 당시에는 제가 대학에 안 가고 싶어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이때쯤 강의 요청을 받아 대학에 갈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더 그런 생각이 들죠. 영어 한마디 못 할 정도로 공부에 관심 없었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그렇게 강사 활동을 합니다.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과 현장이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섬에서 벗어난 적은 없으신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섬 생활이 답답해 물으로 나갔죠.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1995년에 제대하고 남대문에서 장사를 배운 다음 부산으로 가서 노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열심히 장사했는데 어느 날 불이 나서 전 재산을 날렸어요. 결국 장사를 접고 군에 입대했다가 1997년에 힘들면 쉬었다 가라는 아버지 권유로 다시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 섬이 답답해서 나갔던 데다 아직 젊은 나이여서 또 나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그랬죠. 다시 물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한 달만 쉬었다 가라 해서 집에서 지내다보니 그게 어느새 6개월이 되었고 그 사이에 자연스레 섬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섬전을 4,000평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셨죠. 그렇게 2년 동안 부모님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젊을 때 양복 입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섬에서 뭘 하고 있는가 싶어 후회도 많았고 해수욕장에서 홀로 앉아 울기도 했어요. 고비가 많았죠. 그러다 섬에서 아는 목사분이 한 분을 소개해줘서 26살쯤 결혼했습니다.

### 그래서 결혼 이후 자제분들도 생겼겠네요.

그렇죠. 딸 하나, 아들 둘입니다. 딸은 어렸을 적부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과 함께 겨울마다 전국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득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1년 보냈고 이후 한국 돌아와서 3학년까지 마치고 지금은 베트남 하노이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큰아들은 전갈, 도마뱀, 거미, 뱀 같은 걸 키우는 데 관심이 많아요. 진로에 관해 이야기 할 때 소금 가지고 재미난 걸 해보자고 이야기하면 아직까지는 시큰둥하네요. 아버지도 저에게 처음부터 섬전 일을 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아들에게 강하게 권하고 있진 않습니다. 작은아들은 초등학교생입니다.

## 02

### 도초도와 섬전

#### 대표님, 그럼 본격적으로 섬전과 소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통 섬전하면 신안을 떠올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

일제 강점기 때는 황해도에서 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 기술자들이 한국전쟁 때 피난민으로 내려와 비금도에 정착했고, 지금 섬전을 조성하게 됐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섬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안군은 섬이 1,004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 방조제를 조성하면서 섬과 섬을 연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섬이 많이 줄었어요. 신안에서 섬전 조성에 성공한 후 서해안에 대단위 섬전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인천이죠. 다만 섬전의 경쟁력이 사라진 이후에는 다시 많은 곳이 폐전했습니다. 육지 섬전은 대부분 회사 소유라서 큰 어려움 없이 폐전했지만, 섬에 있는 섬전은 개개인이 먹고살던 터전이라 경쟁력이 떨어져도 쉽게 없애지 못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전에는 전체 섬전 중 신안 섬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는데, 육지 섬전들이 사라지면서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 그렇군요. 도초도 주민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금도와 도초도에선 시금치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유통되는 시금치의 80%가 이곳 시금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경제 효율로 치면 벼보다 시금치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이 여름에는 섬전 일을 하고, 겨울에는 시금치 농사를 짓죠. 이곳 시금치는 해풍을 많이 맞고 자라 땅에 붙어서 큼니다. 해풍을 이기려고 만드는 물질이 강한 단맛을 낸다더라고요. 거기다 눈이나 서리가 내린 후라면 시금치 맛이

더욱 달게 변해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죠. 도초도, 비금도, 흑산도 주위로 큰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처 어장에서 고기를 잡아 오면, 배 위에서 바로 경매를 합니다. 그렇게 고기를 팔면 또 곧장 고기를 잡으러 가죠. 보통 '파시'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사시'라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고, 자연스레 그런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섬이지만 주민들은 어업보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염전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우선 염전에서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염전은 크게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수지는 바닷물을 저장하는 공간, 증발지는 햇볕과 바람으로 염도를 높이는 공간, 그리고 결정지는 증발지에서 만들어진 소금을 결정체로 만드는 공간이죠. 보통 염전의 70% 이상은 증발지예요. 우선 만조 수위가 높은 날 저수지에 물을 유입시킵니다. 저수지 물은 과학적으로는 염도가 2.5%라고 하지만, 신안은 연안이라 실제로는 0~1% 사이입니다. 이후 증발지로 보내, 5~6단계를 거치며 소금물을 만듭니다. 비가 올 때는 함수창고에 그 물을 보관하기도 하고요. 소금 농도가 올라가면 소금물을 결정지로 보내는데, 이때 물을 건드리면 소금 결정이 흐트러질 수 있어서 최대한 조심합니다.



염전 한쪽 창고 모습. 소금은 특히 유지와 관리가 중요해서 여러 모로 신경을 써야 한다.

#### 아, 상당히 복잡하군요. 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몇 사람이 함께 일하나요?

1ha, 그러니까 3천 평 기준으로 인력이 한 명씩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염전의 경우 4ha라 기본적으로 네 명이 필요한 셈이죠. 그런데 사람 구하기도 어려우니 지금 저희는 아버지와 제가 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엄청 힘들죠. 염전에는 '낮에는 해가 일하고, 밤에는 사람이 일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해가 한창 달아오를 때는 가만히 두고, 해가 지면 작업을 시작한다는 의미죠.

#### 그럼 주로 밤에 일하시나요? 염전의 일상을 좀 소개해주시죠.

보통 새벽 5시에 염전에 나갑니다. 이때는 제대로 된 일을 한다기보다, 오후에 작업할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세팅하고 염전을 관리하는 차원이죠. 본격적인 생산은 오후 5시쯤 시작해요. 빨리 끝나면 오후 10시, 보통은 자정이나 새벽 1시쯤 끝나죠. 일기예보가 맞아서 사이클이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니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편입니다.

####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군요. 그래도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는 쉬면 된다니 다행이기도 한 것 아닌가요?

어이쿠! 그런 말씀 마세요. 여름에는 해가 진 이후에 작업을 시작해도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들어갈 때 2L 얼음물을 3명이나 준비해요. 예전에는 성공하면 직원 고용해서 나름 편하게 일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지만, 현실은 직원 고용할 여건도 안 되지만 현장에서 잠시도 눈을 땔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 일이 싫어서 도망갔고, 지금 자녀들도 이 일을 싫어하는데, 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고 해야 하는지 이따금 의문이 들 때가 많을 정도입니다. 벌써 25년이나 염전 일을 했는데, 이젠 충분히 한 거 같고 다른 일에도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게 되죠.

#### 염전 일이라는 게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직접 말씀을 듣고 보니 실감이 나네요. 위험하기도 한가요?

그렇기도 하죠. 염전이란 게 야외에 있는 거잖아요. 비바람은 물론 천둥 번개도 조심해야 합니다. 번갯불이 번쩍이는 상황에서 전기 스위치를 내려야 하는 상황도 펼쳐집니다. 실제로 염전에서 감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죠. 그래서 저희도 콘센트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서 조심하고 있어요.

아, 저희가 염전 일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염전 노동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쭙고 넘어갈게요. 조심스럽긴 한데 한때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큰 논란이 된 적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랬죠. 오랫동안 이곳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입장에서, 뼈아프게 다가온 일이었습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신안의 몇 개 섬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저도 염전 일을 하고 있기에 각 지역의 소금 판매 가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제품의 원가라는 것이 있는데 특정 지역분들이 판매가가 낮아도 염업 이득이 나온다고 말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염전 노예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인근 염전의 원가표를 봤는데 단가가 맞지 않아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염전에 직접 가보기도 했죠. 그랬다가 거기 노동자가 무척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관계기관과 현황파악을 하고 개선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노예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염전 생산의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하는 건가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악덕 염전주의 책임이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염전업의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소금 값이 형편없이 떨어져,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건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제대로 된 사업이라기 어려운 정도죠. 그러다 보니 사람을 최소한으로 쓰고, 염전주 한 명이 두세 사람의 몫을 해내면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염전 노예 사건도 그런 열악한 구조와 나쁜 마음이 결합돼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

## 03

### 염전에 관한 각종 논란과 오해

**사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소금을 쓰지만 염전을 본 적조차 없는 사람도 많을 만큼 소금에 대해 무지합니다.**

여러 오해들이 많죠. 일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 소금 값이 20kg에 2만 원 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원래 3~4월에 생산된 소금은 염도가 높고 쓴 편이라서 보통 젓갈용이나 미역줄기 염장용으로 많이 쓰고, 식용 혹은 김장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소금 값이 올랐다고 염전주들이 맛이 안 좋은 소금을

고가에 팔았고, 소비자들은 핵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소금을 찾는다고 2-4월 생산된 제품을 다량으로 구매하여 비축하였습니다. 이후로 천일염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 버리는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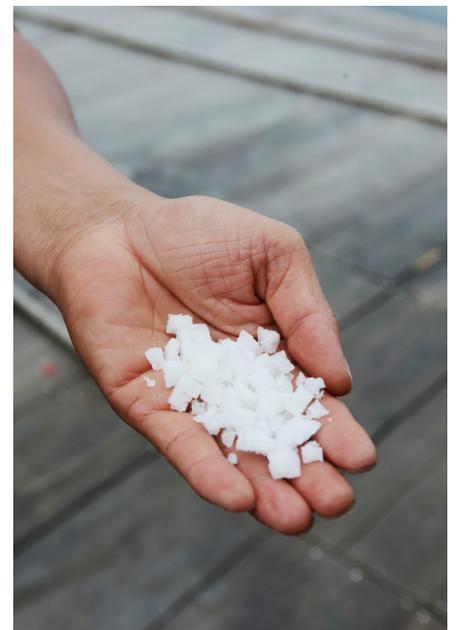
프랑스에서 30년 전에 유조선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게랑드 소금<sup>(19)</sup>은 1년간 소금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기본적으로 3년간 간수를 하기에 2년 치 재고가 이미 쌓여 있어 당장 유통에는 커다란 지장이 없었죠. 오히려 생산을 안 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었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례죠.

**요즘 트렌드를 보면 저염 음식이 각광받으면서 소금 판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던데요.**

천일염은 주로 김치 담글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전에는 30kg 포대 하나로 배추 100포기를 담그곤 했죠. 그런데 김치를 사 먹는 일이 많아지면서 김치 공장에서 생산되는 김치도 자연스레 많아졌습니다. 김치 공장에선 30kg 포대 하나로 배추 400포기를 만들어냅니다. 거기다 탈수까지 하면 배추 600포기가 나와요. 염전주 입장에선 6개 팔던 걸 이제 겨우 하나 파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다 수입산까지 많이 들어오니, 더욱 어려운 실정이지요. 비슷한 케이스로 젓갈에는 원래 소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저염 음식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소금양이 1/5로 줄었다고 해요. 물론 이러한 흐름을 갑자기 바꿀 순 없겠죠. 사람들에게 억지로 소금을 먹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소금을 다각도로 상품화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수입산 소금을 말씀하셨는데 타격이 큰가요?**

우리나라 소금 생산량이 늘어나면 수입산이 줄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수입량에 따라 국내산 가격이 변동됩니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최신일 선생은 다양한 굵기의 천일염을 생산하며 많은 실험을 진행 중이다.

(19) 게랑드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프랑스 최대 천일염 생산지이다. 태양열과 바람만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은 '플뢰르 드 셀' (Fleur de Sel, 소금의 꽃)로 불리며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 및 제과 장인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소금 생산의 규모 자체가 다르죠. 대부분 기계로 진행되고요. 그러다 보니 생산 단가도 저렴합니다. 우리 염전은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돼요. 그러니 가격 경쟁력이 낮죠. 그런 소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일각에선 정제염에 비해 천일염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더군요.

천일염은 늘 정제염과 비교됩니다. 천일염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려고 할 때, 한 맛칼럼니스트가 문제를 제기했죠.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그중 하나가 천일염이 일체의 잔재라는 주장이었죠. 물론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죠. 원래 우리나라는 바닷물을 불로 끓여서 소금을 얻었으니까요. 맞지만 지금은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원조 논쟁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기술은 일본에서 온 게 맞지만,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오히려 일본이 염전을 없애면서 만든 게 정제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일염의 마그네슘 함량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었죠. 이 부분은 마케팅 과정에서 간수를 제거하지 않은 소금의 마그네슘 수치를 내세워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천일염은 바로 생산하여 먹는 것 보다 간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쓴맛이 제거 됩니다. 3년 간수를 제거하면 대부분 상품 제품으로 인정 받습니다. 비판받을 여지가 있던 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겹치며 천일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죠. 안타깝습니다.

### 그렇다면 천일염의 경쟁력과 가치는 여전하다고 봐야겠군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천일염과 비교되는 정제염의 장점을 말할 때 공장에서의 생산 과정 중 이물질이 필터를 통하여 제거하므로 미세 플라스틱 등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산 과정 중에서 100%를 제거하기도 어렵고 포장되어 출하하는 과정에서 소금결정이 포장지 안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만들어 냅니다. 무작정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정제염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미세플라스틱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생선, 김이나 미역 등 우리가 바다에서 섭취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그러한 비난이 천일염에만 집중되고 있는 건 불합리하죠.

### 천일염 제조 과정에서는 이물질 제거를 어떻게 하나요?

천일염은 바닷물에 섞인 여러 물질이 가라앉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후 작업을 진행합니다. 소금이 하얗다는 건 그만큼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전 세계 염전을 다 다녀봤지만, 우리나라만큼 하얀 소금은 잘 없습니다. 베트남 소금은 회색빛에 가까워요. 이물질 클레임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물론 소금을 채에 넣고 24시간 말리면 안전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일이 많아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의 이물질량은 한국 천일염보다 3-4배 많은 상황입니다. 프랑스 게랑드 소금은 처음부터 자연상태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가 선별하여 먹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며 그런 문구를 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게랑드 소금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지니까 인정해주며 넘어가주고 있고요.

### 그렇지 않아도 프랑스 게랑드 소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신안 천일염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프랑스에 3박 4일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시설에 관광객을 들어오게 하지만 거기는 출입을 못하게 하더군요. 저는 관광 목적이 아니었기에 다행히 생산시설을 탐방할 수 있었죠. 게랑드는 입구 쪽에 석화 양식장이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500년 전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바닷물이 돌고 돌면서 결정지에 소금이 모이는 구조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증발지 땅을 일일이 다 뒤집어 줍니다. 그렇게 땅을 햇빛에 바짝 말리고, 소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 수평도 잡아 주죠.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불투명한 소금이 만들어져요. 겨울에도 따로 땅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랑드 방식과 사뭇 다릅니다. 게랑드 소금은 땅을 뒤집어 주지 않으니 갯벌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는데, 이를 석화의 향기가 베었다고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 프랑스 게랑드 소금만의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있나요?

프랑스 게랑드 소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소금이 들어가는 모든 식품은 게랑드 소금이 들어갔다는 표시를 별도로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소금을 팔려 하지 말고 식품을 팔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거의 없잖아요. 저희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죠.

### 신안 천일염만의 독특한 점도 좋은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많죠. 대한민국은 소금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전세계 유통 소금의 70% 이상은 광산에서 생산하는 암염입니다. 공장에서 전기 분해를 통해 생산하는 정제염과 이물질이 있는 소금을 물에 녹여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소금을 만드는 제재염, 그리고 소금을 높은 온도로 녹여서 만드는 죽염 등을 가리키는 태움·용융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일염이 있습니다. 이 천일염도 년중 강우량이 극히 적은 호주, 멕시코 등에서 생산하는 기계식 천일염이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년중 강우량이 높은 곳에서 생산하는 갯벌 기반의 천일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갯벌 천일염은 전 세계

적으로 0.2%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희소성이 있는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에 비해 갯벌 염전은 전 세계 생산량 중 극히 일부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방식이니 독특한 거죠. 세계에서는 드문 편이에요.

## 04

### 변화,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최근에는 염전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태양광으로 업종 변경하는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외지에서 온 염전 소유주들은 대부분 태양광으로 전환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금도 주민의 80%가 태양광으로 전환을 동의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전국 염전의 10% 가까이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도초도는 초기에는 전기 선로가 약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태양광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염전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적인 입장과 전체 산업의 입장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염전 소유주 입장에서 인건비나 땅값을 다 계산하면 염전보다 태양광 발전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소금 원가가 너무 낮으니까요. 다만 땅을 빌려 염전 일을 하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다보니 이 섬을 떠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한 번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하면 다시 염전을 만들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태양광으로 전환된 염전의 모습

그런 점에서 당장은 경제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코 좋다고 말할 순 없는 것 같아요.

**염전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나마 남아있는 분들도 이제는 연세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죠.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염전주는 70대가 넘는 고령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고령의 염전주가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염전을 운영할 의무는 없는 거죠. 사실 이런 현상은 외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일본은 소규모 관광 염전 외에는 대부분 사라졌죠.

**그래도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대표님은 지난 2006년 ISO 22000 인증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요?**

ISO 22000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예방 및 관리하는 국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2006년에 인정받고, 식약처에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품으로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 깨끗한 식품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유의미한 사건이었죠. 결과적으로는 광물이 아닌 식품으로 인정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기도 했고요. 다만 소금이 식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려움이 많았죠.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후에도 소금이 식품으로 허가받는 데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염전 바닥도 크게 개조했다고 들었습니다.**

2008년만 해도 대부분 염전 바닥에 석면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가장 앞서서 석면을 철거했습니다. 석면은 암 발생 물질이라 소금 품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비용이 많이 들었고 정부에 보조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사비로 시설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석면을 철거했죠. 거기다 주민들은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 부담도 비교적 적었고요.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염전업 전체를 위해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제일 멍청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염전 일이라면, 한편으론 잘하려고 하면 밀도 끝도 없는 게 염전 일이라고 생각해요.



염전의 미래에 대해 설명 중인 최신일 선생과 그의 아버지 모습

# 05

## 염전의 미래

**이야기를 나눌수록 우리 염전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요. 또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품질 높은 소금을 공급하려 해도, 소비자들이 질이 낮은 소금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지요. 안 좋은 걸 먹다가 좋은 걸 먹으면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좋은 걸 먹다가 안 좋은 걸 먹으면 금방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면 좋은 품질의 소금을 계속 먹으면 되는데 품질을 높이려면 그만큼 생산비가 많이 들고 가격은 높아지니 난감한 상황이지요.

**게다가 갈수록 소금 섭취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소금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소금은 보통 1년에 한 번 구매합니다. 그것도 오천 원 겨우 넘는 금액이지요. 반면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 가볍게 먹는 수박 하나도 만 원이 넘습니다.

**새로운 관점이란 어떤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게랑드 소금이 들어간 식품은 모두 로고가 붙습니다. 소금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식품에 우리 소금이 쓰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마케팅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금을 활용해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소금을 단순한 소금으로만 보는 걸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시도를 하는 것 중에 소금에 향을 더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프랑스 게랑드 소금이 석화향으로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작업 과정에서 자연스레 소금에 향이 배도록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무 재질의 통에 소금을 보관하면 나무가 수액을 빨아들이면서 향이 뱉니다. 현재 저는 소금에 편백 향을 입히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죠.

**특수 소금도 만들어보셨다고 하셨죠?**

네, 붉은빛을 내는 소금을 만들었는데 색깔이 바뀌면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적조를 일으켜 다홍빛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었죠. 혹시라도 색이 또 변할까 봐 많은 돈을 들여

햇빛가리개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간수하는 과정에서 색이 빠져버렸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결국 상품으로 만들지 못한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또 소개해주실 만한 게 있나요?**

현재 저희 염전에 기차 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비를 3,500만 원 정도 써서 작업했죠. 기존 외발 수레가 아닌, 기차처럼 레일을 깔아 효율을 높이려고요. 덕분에 수레에 더 많은 소금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특허로 묶어놓지 않고 최대한 공유하려고 합니다.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 안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이걸 인정하고 어떡할 건지 대안을 마련하며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천일염이 좋다고 마케팅 하는 걸 넘어서 과학적 근거를 만드는 거죠. 소금이 몸에 안 좋아서 안 먹는다면 몸에 좋은 소금을 개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먹으면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소금 등도 있죠. 또 먹는다는 개념에서 벗어난다면 소금으로 화장품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먹는 소금 말고, 체험할 수 있는 소금을 위한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이미 염전은 일부 관광 상품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장화 신고 몰려가서 구경하고 돌아오는 방식이 대부분이긴 하죠. 그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생산지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을 식품이 아닌 하나의 놀이 도구로서 접근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물로 족욕할 수도 있고, 대만처럼 소금 커피를 만들어 음료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선 소금 아이스크림이 인기죠.

대부분 사람은 소금이라고 하면 그냥 하얀 알갱이만 떠올릴 뿐입니다. 염전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소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염전 키트’를 개발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금물을 끓여 소금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QR 코드를 연결해 소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 체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천일염을 새롭게 인식하고,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이 천일염을 주제로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을 도초도에 조성할 계획인가요?**

우리 섬에서 하고 싶지만, 우선 교통편이 좋지 않고 주위에 즐길 만한 관광상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순천만에 소금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었어요. 현재 순천만 습지공원 근처에 제 땅 2만 평이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법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습지를 그대로 살린다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죠. 특히

순천만을 걷고 소금물 족욕을 하는 식으로 근처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을 얼마든지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염전 뺨에서 야구, 족구 등을 하면서 염전과 친숙해질 수도 있고요. 다만 순천시와 이야기가 잘 안 되어서 현재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 그렇게 늘 새로운 도전을 하시면 힘들지 않으신가요?

왜 안 힘들겠어요? 언젠가 서울에서 저희 상품이 판매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소비자인 척하면서 소금에 관해 몇 가지 물어봤죠. 당시 우리 소금은 하얗고 다른 소금은 탁한 색이라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너무 하얀 소금은 표백제를 쓴 거라고 직원이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추운 겨울날 땅을 뒤엎으면서 깨끗하고 품질 좋은 소금을 생산하려고 노력했는데 직원의 말 한마디에 표백제를 사용한 게 되어버렸죠. 그 직원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신의 상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건 생산자의 몫이니까요. 그때 배운 게 있죠. 저는 항상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했죠. 섭섭한 게 없다면 거짓이겠지만 누군가 변화를 위해 노력해서 전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건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 새로운 시도라는 게 그 자체로도 쉽지 않은데 주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소극적이면 더 힘이 빠지실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염전 일을 배웠지만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나가다 보니 이제는 아버지와 부딪히는 지점이 하나둘 생깁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시설을 개조하기 위해선 아버지와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시설 변경은 자그마한 것도 수천만 원 단위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저 역시 이런데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혼자서 머리를 끙끙 싸매는 게 쉽지 않지만 우선은 제가 잘 되어야 주위 사람도 새로운 관점에서 소금을 바라보고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걸 개발해도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 시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성과를 내면 이들도 당연히 동참하겠죠.

### 염전이 사양 산업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친 염전이 사양 산업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순 없어요. 제가 처음 염전 일을 배울 때보다 자식 세대가 염전 일을 배울 때 좀 더 괜찮은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 일에 대해 열정을 쏟는 만큼 가정적으로 힘들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내와 떨어져 지내고 아이 세 명 키우다 보니 심적으로 힘들죠. 누가 잘했고 못했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염전 일을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막상 일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니 일도 손에 안 잡히기도 해요. 할 일이 태산인데 멍하니 있었던 적도 많았죠. 그래도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 같습니다. 다시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어렸을 적엔 염전 일을 그토록 싫어했는데 신기한 일이죠.



최신일 선생이 소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 늘 개량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지 고민한다.



최신일 선생이 개발해 사용 중인 소금 운반용 차. 규격에 맞게 개량하고 특허를 내지 않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했다.

### 자녀분들이 대표님 많이 걱정하진 않나요?

자식 입장에서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여행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소금을 쓰는 전국 각지의 가게를 아이들과 함께 가보는 프로젝트였죠.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경비가 없었는데, 거래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급 레스토랑, 빵집, 칼국수 가게 등 열군데 넘는 전국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이 제가 하는 일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엉뚱한 걸 시도한다며 주위에서는 늘 손가락질 당해도, 실제로 소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고 존중해준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셈이죠.

### 네, 끝으로 질문 드립니다. 대표님께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언젠가 일주일에 세 번이나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소금 생산도 소홀할 수 없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염전 일도 함께했죠. 그러다 보니 배 타고 오는 길에 커피가 갑자기 팡 하고 터졌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아내도 저를 걱정하는데 뭐 하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꼭 염전이 아니더라도 먹고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 일을 붙잡고 있는 저 자신이 이해가 안 되었죠. 그런데 신기했던 건 도초도라는 간판이 반갑게 다가온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어느새 25년을 바친 업이 되었고 저를 힘들게 하면서도 또 기댈 수 있는 애증의 존재가 돼버린 거죠. 고향은 고향이었습시다. 꼭 도초도뿐만 아니라 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 역시 저에게는 고향과 같습니다. 내가 태어나 자라며 평생의 업을 찾은 과정을 온전히 함께한 삶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을 주는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인터뷰 중인 최신일 선생

### 연보

- 1973년 신안 도초도에서 출생
- 1993년 군 입대
- 1995년 제대 후 부산에서 노점상 운영
- 1996년 아버지와 함께 염전 일 시작
- 1998년 결혼
- 2006년 ISO 22000 국제 인증
- 2008년 친환경 염전 시설 구축

### 참고 자료

- 신안군청 (<http://www.shinan.go.kr>)
- 신안군 문화관광 (<http://tour.shinan.go.kr>)
- 중앙일보, “염전 35% 태양광 업자 손에…신안 천일염 위기”, 2019년 8월 26일
- 동아일보, “천일염 만들어 봐야 손해인데…생산 중단한 신안 염전”, 2019년 7월 16일
- 아시아 경제, “사라지는 염전… ‘소금 한 가마, 담배 한 갑 값만 못해’”, 2018년 8월 24일
- 신안신문, “신안 도초 최신일씨 ‘자랑스런 전남인’”, 2009년 1월 5일
- 허영만, 『식객. 25 : 소금의 계절』, 김영사, 2009

chapter  
02

# 전통음식

이강윤·이화봉  
정성수·신애자

# 어간장으로 남해에서 인생 이모작

이강윤·이화봉 부부 (어간장 연구가)



## 들어가며

바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혀 있던 저마다의 본능을 흔들어 깨우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 바다는 가끔 답답하기만 했던 우리의 일상을 환기시켜 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예 삶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강윤·이화봉 부부의 경우가 그랬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은 서울에서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웠으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서울에서만 살아왔다. 부친을 따라 장교로 생활하다 중년 이후에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이강윤 선생은 우연한 여행을 통해 남해를 처음 만나 이곳에서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펼쳐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 결심이 순간에 그치지 않고 조기 은퇴와 남해로의 귀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강윤 선생의 설득에 결국 수개월 뒤에는 이화봉 여사도 남해로 와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제2의 삶에 도전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부부가 운명처럼 만난 것이 어간장이었다.

양조간장이 대중화되기 전 내륙에서는 콩으로 간장을 담갔다면 해안가에는 어류를 소금에 절여 숙성시킨 어간장을 담가먹었다. 남해 지역에서는 특히 남해에서 나는 질 좋은 멸치로 담가 먹던 전통적인 멸간장이 있었다.

농사도 지어본 적 없어 그 흔한 고추나 파도 사먹어야 하는 초짜 귀농인이자, 선장 면허까지 뺏지만 뱃멀미 때문에 가끔 일을 도와줄 때 말고는 배를 타지 못하는 초짜 바다사람인 이강윤 선생이지만, 그는 지금 부인 이화봉 여사와 함께 남해의 좋은 멸치들로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만드는 어간장에 삶의 후반부를 모두 집중하고 있다. 이제는 미생물학을 공부한 딸의 도움까지 받으며 어간장을 연구하고 있는데 가족 전체의 삶을 이토록 강력하게 사로잡은 어간장에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일까?

남해로 귀촌한 부부가 술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좋은 어간장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에 귀기울여 보자.

# 01

## 서울 토박이로 만나 평범한 가정을 이루다

### 안녕하세요.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강윤-이하 강) 저는 1957년생, 이강윤이라고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직장생활도 쭉 서울에서 했는데, 10여 년 전 남해에 왔다가 반해서 이곳에서 어간장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화봉-이하 화) 저는 1958년생이고요, 이화봉이라고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에서 태어났는데, 영등포 독산동에 살 때 이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어간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이강윤 선생님께 주로 여쭙보겠습니다만 사모님도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강) 저희 아버지는 육군 소령으로 대대장까지 하다가 예편<sup>\*\*\*</sup>하셨어요.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쭉 생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썩 그렇게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죠. 제가 흑석동도 살고 사당동에 살았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물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는데 산동네에 보면,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물도 지게로 지어서 나르고요. 사유지니까 공무원들은 못 짓게 하는데 밤에 집이 한 채가 똑딱해서 들어섰어요. 거기 친구들이, 저희 친구들인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촛불 켜고 공부해야 돼, 우리 집은 아닌데. 그 친구 집에 가면 지게에다가 물을 날라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럼 친구 도와준다고 지게를 내가 한 번씩 져가지고 도와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개가 물을 다 날라야지 같이 놀러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잘사는 동네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 아버지가 군인이셨으면 엄하셨을 것 같은데요.

(강) 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동네 형이랑 집에 와서 놀곤 했는데 몇 날 며칠 같은 자리에 당시에 50원 정도의 돈이 놓여있더라고요. 그 형이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먹자고 해서 나가서 신나게 고구마, 튀김, 떡볶이 같은 것 실컷 사먹었죠. 그리고도 돈이 남은 걸 그 형한테 가지라고 줬죠. 동전 때문에 걸릴 수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요. 돌아와 보니 집에서는 돈이 없어졌다고 큰누나, 작은누나, 나 이렇게 셋이(동생은 세 살 밖에 안 되어 빠지고) 기합을 당했어요. 땀이 뻘뻘 났지만 울지도 않고 나는 절대

안 가져갔다고 했죠. 나중에 잔돈 가져갔던 그 형이 들켜서 결국 우리 집까지 왔어요. 그때 화가 난 아버지가 하루 동안 파출소에 집어넣었어요. 좀 있다 오시겠지 했는데 안와요. 밤 꼬박 새고 아침 되니까 아버지가 와서 두부를 사주더라고요. 7살에 전과범이 된 셈이죠. 그것 때문인지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거짓말도 못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못 대요. 공부를 못했어도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는 '정직하다.'라고 꼭 쓰더라고요.

### 어머님은 어떠셨습니까?

(강) 아버님은 그래도 맺고 끊는 게 확실해도 가끔은 유연하신 편이었는데 어머님은 한 번 안 되면 끝까지 안된다고 하시는 정말 엄한 분이셨죠. 어머니는 부산사람이고 부산 여고를 나왔어요. 부산여고 4회 졸업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굉장히 잘 하셨죠. 수영도 잘 하셨고요.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운동은 별로였던 기억이에요. (웃음) 아무튼 그 당시에 여자로서 배구 선수로 활동할 정도였으니 체력도 아주 좋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주 엄한 분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항상 너그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해도 주로 용서해주셨죠. 79세에 돌아가셨으니 이제 만 11년 되었네요. 아버지는 지금 저희들과 함께 남해에서 살고 계십니다. 연세는 96세이고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 들어보니 그래도 유년시절에 별로 가난은 모르고 자라셨을 것 같아요.

(강) 서울에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고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저는 배를 굶었다든지 고생을 했다든지 그런 기억은 거의 없어요. 당시에 저는 하나뿐인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집안에서 유일하게 유치원에 다녔어요. 우리 누나들은 한 번도 못 다니고, 여동생도 못 다녔는데 흑산동 중앙대학교 부속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그 시기에는 유치원에 간다는 게 대단한 일이었는데 별로 잘 살지도 못했는데 거길 보내셨어요. 그 이후에는 공부는 못해도 대체로 그냥 무난하게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 학창시절은 어떠셨는지요?

(강) 제가 중학교 진학하던 1968년에 처음으로 추천으로 학교가 정해졌어요. 흔히 '뽕뽕이' 돌린다고 표현하죠? 저도 그렇게 진학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6학년 때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3등쯤 할 정도로 공부를 꽤 했어요. 당시 반 인원이 100명이 넘고, 6학년이 16반까지 있었으니 남들이 경기중학교 갈 거라고 할 정도였는데 어느 날 학교를 추천으로 간다는 방송이 나오니 '아, 그럼 이제부터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웃음)

##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강) 아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위로 오빠,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어요. 딸 하나라서 사랑은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가게하면서 아이들 키우셨는데 집사람은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연애결혼을 했죠. 독산동 52사단 미군 부대에서 근무할 때, 집사람이 그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동네 지나다가 목이 타서 물 한 잔 얻어 마시려고 눈에 띈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물을 떠준 사람이 집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화) 그때 나이가 각각 24, 25살 정도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만나서 2년 정도 연애하고 26, 27살에 결혼했어요.

## 자녀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강) 위에 1983년생 아들 하나 있고요, 밑으로 1987년생 딸이 하나 있어요. 아들은 31살에 장가가서 아들 둘 낳고 안양에서 잘 살고 있구요. 딸은 아직 결혼은 생각도 없다고 하네요. 그 딸이 지금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간장 열심히 만들면 이후에 마케팅이며, 디자인이며 다 그 아이가 해주고 있죠. 고려대에서 어문계열을 전공했고 폴리텍대학에서 미생물을 전공하면서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화) 할머니, 할아버지랑 어릴 때부터 함께 살며 커서 착해요. 엄청 순종하고 살았어요. 되게 감사하죠. 우리 어머니가 엄하셨거든요. 제가 이 시대에 없는 시집살이를 좀 했죠. 남편도 19세기 같은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딸이 비웃어요. 자기는 연애 같은 거에 관심도 없고.



남해어간장 작업장 풍경

# 02

## 군인에서 교사로, 인생 1.5막을 살다

### 선생님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는지요?

(강) 저는 육군 제3사관학교<sup>15기</sup>를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육사였고, 어떻게 보면 군인 집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1978년 소위로 임관하여 방공포사령부, 특전사령부를 거쳐 1984년 대위로 전역 하였습니다. 남들보다는 안보관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가 나를 필요 한다면 이 한 몸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 군인이셨으면 남을 통솔하거나 리더십도 남다른 것 같은데요?

(강) 통솔력이나 리더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내성적이어서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에게 지적만 받으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시 생물선생님이 그런 저를 보더니 자기도 학창시절 때 그랬는데 고쳤다고 하면서 조언을 해 주셨어요. 저도 사회생활 하려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책 읽을 사람, 노래 부를 사람, 춤 출 사람 찾으면 어떤 자리에서든 일단 손부터 들었어요. 혀가 짧고 말을 더듬고 음치라서 부단한 노력을 했죠. 그 결과 이제는 방송 사회도 보고 노래도 곧 잘 한다고 해서 노래 자랑에 대표로 나갈 정도입니다.

### 성격 바꾸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강) 군에서도 제일 자신 없던 일이 교관이었어요. 교관은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지식이나 정보도 전달해야 하니 부담스러웠는데 대위 때는 특전사에서 교관을 하게 되었어요. 6개월 안에 합격을 못하면 다른 부대로 가야하고 합격해야 교관이 되는 거죠. 합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했죠. 나중에는 사람이 조금만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더 힘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성적이었다고 하면 절대 믿지 않아요.

### 그럼 남해로 오시기 전까지 쪽 군인이셨나요?

(강) 아닙니다. 제대하고 고등학교 교사생활을 26년 했어요. 처음에는 교련 교사로 들어갔다가 사회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 공통사회 자격증을 받았죠. 그런데 공통사회 과목은 중학교와 고1 과정이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르치는 정치나 경제, 문화나 지리까지는

못 가르치는 거죠. 학위가 있어야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뒤늦게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죠.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일반사회 전공을 하고 나중에는 고3들까지 가르치게 됐습니다.

**군인에서 학교로, 또 대학원으로 계속되는 도전이었네요.**

(화) 그때는 아들도 대학원을 다니는데 남편도 같이 대학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이분은 더 근무해야 되니까 대학원에 가는 거고, 아들은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는 건데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대가족인데다가 딸은 대학 1학년, 아들은 대학원, 거기에 남편까지 대학원 보내야하니까 많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럼 교사 정년퇴임하고 남해로 오신 건가요?**

(강) 교사랑 군대생활까지 합치면 35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학교는 정년은 아니고 명예퇴직을 한 거죠. 더 해도 되고 나름 편한 생활이었는데 그냥 나왔어요. 배도 타고, 낚시도 좀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에 강하게 빠져서 다 놔두고 와버렸어요.

# 03

## 남해에서 인생 2막을 열다

**언제 남해로 오셨나요?**

(강) 퇴직하자마자 2013년에 왔습니다. 만 7년 넘었습니다. 아내는 6개월 뒤에 아버지 모시고 왔구요. 근데 사실 저는 도시생활하면서 뭐 농촌에서 살겠다, 어촌에서 살겠다, 이런 걸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8년 전에 문득 만난 바다가 너무 좋아서, 바다를 너무 사랑하게 된 나머지 연고도 없는 이 남해에 그냥 왔습니다.

**군이 남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강) 10여년 전에 친구랑 남도여행을 했어요. 목포에서부터 부산까지 쪽 여행을 했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강하게 기억에 남는 데가 남해였어요. 그때 나는 다른 곳은 대부분 가봤던 곳이었지만 남해는 처음 왔었거든요. 그때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남해에 관심이 많아



인터뷰 내내 주변을 설명하며 남해의 자연이 좋다는 부부의 모습

졌어요. 그 이후로 친구들과 많이 오기도 했었죠.

**귀촌하신 거네요?**

(강) 어떻게 보면 남들은 귀촌을 했다고도 하고, 고추농사를 지었더니 귀농을 했다고도 이야기 합니다. 또 어간장을 하고 있으니 지금은 또 귀어를 했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남해로 간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강) 아마 주변 사람들은 제가 조현병이라도 걸렸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면 내려가려고 할까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거의 다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배나 선생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남해가 고향인 사람을 찾아가 물어봤는데도 가지 말라고 했죠. 여기가 제일 세다고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가장 센 곳이 남해라서 1년도 못 살 거라고 했어요. 과연 살아보니 남해 분들 기질이 진짜 세긴 세더라고요.

**처음에 적응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강) 전혀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외국에 가서도 사는데 못할 게 뭐냐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은 처음 와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사투리도 있지만 뱃사람들 만나면 거의 전문용어만 쓰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약 이야기를 하는데 뭘 알아야 알아듣죠. 한 50%는 못 알아들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화) 지금은 동네에서 환영받고 있고요. 제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라고 하세요. 저희가

처음 이사 온 마을<sup>밖</sup>에서도 다시 이사 오라고 하시고요. 여기 보이는 종려나무도 거기 마을에서 주신 거예요.

### 준비도 많이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강) 과천에 한국귀농귀촌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교육을 받고, 집사람은 ‘칭미래’라고, 서울 약수동에 있는 귀농귀촌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내려가서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열심히 받고 왔어요.

### 바다가 낯선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바다와의 인연은 딱히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강) 그렇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바다는 좋아했어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마 외가 쪽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부산 사람이고 이모가 마산 앞바다에 사셨거든요. 그리고 외삼촌이 통영에 있었어요. 어릴 때 방학이면 자주 가기도 했고 바다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산이 좋냐? 바다가 좋냐?’ 그러면 저는 0.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바다’ 라고 답하거든요.

### 농사야 그렇다 해도 어간장은 낯선데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강) 어간장이라는 것을 귀농귀촌 교육 받을 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 한 강사님이 어간장을 소개해줬어요. 평소 액젓을 좋아하기도 해서 열심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죠.

## 04

### 서울내기가 남해에서 어간장을 하게 된 과정

#### 그중에서도 어간장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 막상 남해 와서 보니까 널린 게 멸치예요. 남해 멸치가 맛있고요. 조금만 나가면 이름도 없는 포구가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배가 하나씩 들어와요. 새벽에 나가서 잡아가지고 오는 배죠. 별의별 고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들 대부분이 상품가치가 없어서 다 사료로 나가요. 그걸 내가 사가지고 젓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기젓도 담그고,

갈치젓도 담그고, 밴댕이젓도 담그고, 전어젓, 참붕어, 전갱이, 멸치... 여러 가지 젓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담그다보니 ‘아, 내가 여기서 제대로 된 어간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 어촌 계장님이 도와주셔서 창고를 하나 빌릴 수 있었습니다. 창고를 빌려서 실내에다 항아리를 놓고 멸치를 담그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특허도 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동안 못하고 있었죠.

#### 특허를 내셨는데 왜 못하신 거죠?

(강) 그게 시간이 걸렸어요. 숙성하는데도 한 3년 걸리고, 그리고 공장 준비도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 오게 되었지요. 그 전 집은 정리하고요.

#### 그럼 남해 오시자마자 어간장을 하신 게 아니네요.

(강) 네, 거의 그렇죠. 근데 어간장에 대해서 강의는 들은 적 있어서 알고는 왔어요. 멸치, 갈치, 전갱이는 제가 좋아서 담근 겁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 와서 이후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공부도 못하는 놈이 국회도서관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어간장에 대한 논문도 엄청나게 뒤져봤고요.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찾아가 간장이나 젓갈 담그는 것을 물어봐도 정확한 답이 없어요. 경험으로 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나름대로 굉장히 쫓아다녔죠.

#### 다른 생선도 많은데 왜 멸치로 하시나요?

(강) 참치처럼 큰 생선은 뼈가 안 삭아요. 시장에서는 참치어간장이라고 하면 인기가 좋지만 참치, 새우, 고등어, 전갱이 등의 간장은 철이 있습니다. 이런 생선은 나올 때는 나오고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멸치는 1년 내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멸치로 하자고 결론을 낸 겁니다. 남해멸치가 맛있기도 하구요. 대개 사람들은 봄에 멸치를 담가요. 가을 멸치는 기름져서 맛있긴 하지만 젓갈에는 기름기 있는 게 별로거든요. 그래서 가을만 빼면 큰 문제가 없으니 계속 담글 수 있습니다. 봄에 나는 멸치를 최고로 치긴 하는데 좀 비싸요. 씹밥용 멸치를 골라내니까 멸치가 비싸지는 거죠.

#### 그럼 어간장이 굳이 남해나 멸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군요.

(화) 네, 그러니까 여기 개념으로는 멸치액젓이 다 어간장이예요. 남해 이 섬에서는 집집마다 거의 다 담가서 드시는데 그걸 그냥 어간이라고 그래요.

(강) 아니, 처음부터 어간장이라고 안 그랬죠.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해안가에서 주민들이 멸치로 담근 ‘멸간장’을 먹었는데, 십 몇 년 전부터 ‘어간장’이라는 말을 한 두 사람이 쓰기



어간장을 만드는 작업장 모습

시작하면서 어간장으로 굳어진 거죠. 맛은 다 달라도 나름 해먹었는데 이젠 이 사람들이 싸고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양조간장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담그기 시작한 거죠. 육지에서는 콩 간장이라고 조선간장을 담가먹었잖아요. 육지에서 조선간장을 담가먹었다면 해안가에서는 멸치를 발효시킨 ‘멸간장’을 먹었는데 이제는 거의 찾기 힘들어졌어요.

### 멸간장의 흔적은 남아 있나요?

(강) 거의 없어졌어요. 재미삼아 옛날 맛이 생각나서 조금씩 담가보는 것 정도 외에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물고기로 만드는 거라 어간장인데 이게 다른 물고기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붕어로 만들어도 되고 민물고기로 만들어도 됩니다. 꼭 멸치가 아니더라도 돼요. 고등어나 전갱이로 만들어도 되고요. 물론 어떤 생선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그래도 통틀어서 어간장이라고 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어간장뿐 아니라 양조간장조차 이제는 간장 만드는데 메주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콩이 안 들어가요. 지금 먹는 우리나라 시중 유통되는 간장 중에 콩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 식약처의 기준치가 너무 낮다는 것도 문제고요. 다행히 저희 어간장은 메주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한 콩으로요.

(화) ‘탈지대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름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짜고 남은 부유물을 이용해서 몇 시간 만에 공장에서 기계 찍듯이 나오는 게 이 양조간장<sup>산분해, 혼합간장</sup>이예요.

### 그럼 멸치로 어간장 만드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강) 멸치는 바닷물에 씻겨 나오지만 또 한 번 씻어야 돼요. 씻으면 비늘이나 내장 같은 게 떠내려가요. 비늘에서 비린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소금에다 버무려 놓고 집어넣죠. 우리는 천연 소금을 씁니다. 숙성 과정은 항아리에서 3년 걸리고 그 다음 액젓을 분리하여 다시 2차 숙성과정인 메주와 버섯, 새우, 고추 등을 넣고 주변 기온에 따라 다르지만 2~3달 만에 발효될 수도 있고, 선선한 시기에는 6개월 이상도 걸려요. 숙성이 다 되면 다시 장 가르기<sup>메주와 간장을 분리</sup>를 하지요. 간장은 한 번 가마솥에 낮은 온도로 살짝 끓여요. 끓이는 이유는 비린 냄새 같은 것도 없어지고 살균도 하기 위해서죠. 이게 식품이니까 유통기한 동안은 품질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 이후는 마이크로필터로 3회 정제하여 용기병에 담게 됩니다. 두서없지만 만드는 과정이 대략 이렇습니다.

### 멸치는 어디에서 주로 가져오시는지요?

(강) 미조항이죠. 미조항이 남해에서 가장 큰 항구예요. 남해 최남단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조항이 ‘아름다울 미<sup>美</sup>’자가 아니예요. ‘미<sup>美</sup>의 미<sup>美</sup>’자를 써요. 거기에 ‘도<sup>島</sup>’자를 쓰죠. 미<sup>美</sup>의 도와주는 항구라는 뜻인 셈입니다. 여기서 5분 거리에 수협 위판장이 위치합니다.

### 본격적으로 어간장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지요?

(강) 5년? 아니구나, 생산판매한 건 2016년 12월부터 판매했으니까 4년 정도 되네요. 어간장이라고 나오는 식품의 유형을 보시면 대부분 젓류, 소스류라고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류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콩을 집어넣고 만든 전통식품이예요. 그래서 남해군에 전통식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좋은 간장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강) 저기 저 항아리에 멸치를 꼭 담가놔도 액젓이 반도 안 나옵니다. 지금 파는 가격도 정말 싸게 책정한 편인데 우리제품보다 더 싼 제품들을 가져다놓으니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항아리로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하실에 시멘트타일 바르고 거기다가 멸치를 담가요. 좀 괜찮다고 하는 데는 거기다가 비닐을 싸가지고 하는데도 있고요. 영세업자들은 큰 고무



어간장 완제품 모습

통에 담가요. 통 안에 세라믹으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몇 년 지나면 유해하고요. 대기업에서는 알루미늄으로 하는데 썩지 않는다고 하지만 알루미늄도 녹이 슬더라구요. 가격보다는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한데 일반 소비자들은 가격에 무척 민감해요.

#### 남해 사람들이 어간장을 담가 먹었으니 찾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남해 사람들은 젓갈을 먹더라도 좀 맛이 간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발효된 것이 아니라 약간 상한 건데 그런 걸 먹어왔기 때문에 습관처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신선하고 좋은 게 있는데 어릴 때 먹던 그 맛을 선택하고, 그것이 더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작년에 유럽에서 열린 품평회에 나가서 인정을 받았죠. 미국 같은 경우 FDA가 까다로우서 우리나라 젓갈류가 들어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유럽은 젓갈을 먹는 전통이 있어서 미국보다는 경계심이 덜합니다. 샌드위치에다가 청어젓을 넣고 발라서 먹는 걸 보면서 유럽인의 입맛에는 어찌면 통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참가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벨기에 국제우수미각품평회<sup>ITQI</sup>에서 '골드 스타상'을 수상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 외국까지 신경을 쓰시려면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강)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과연 어느 정도의 맛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대기업이라면 조직적인 체계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방에 있는 우리 같은 영세 기업은 유럽으로 제품을 보내는 단계에서 막혀 버립니다. 은행에서는 경험이 없어서 송장 보내는 것도 모르고 우편은 더 말할 것도 없었지요. 결국 창원에 가서 문제를 해결 했어요.

#### 하나하나 정말 쉬운 게 없었군요. 그런데 어간장 말고 어된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건가요?

(강) 우리가 어간장 뿐 아니라 어된장도 있는데 어된장은 인기가 좋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어된장은 간장을 빼고 남은 된장인데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특이한 맛으로 보통 2년을 묵혀서 판매해야 하는데 워낙 맛이 좋아 햇장으로 판매가 끝납니다. 우리처럼 소량 생산을 하는 업체는 더욱 그래요.

## 05

### 안 힘든 게 없는 도전들

#### 남해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화) 주부니까 처음에는 시골에 오면 생활비는 좀 덜 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저희는 고추만 해도 다 사먹는 거예요. 처음에 심어봤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많은 돈을 들여 밭 갈고 열심히 했는데 약 안쳐서 망쳤고, 기술이 없어서 모두 죽었어요.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그래서 우린 전문가인 농부가 지은 거 열심히 사서 먹자하고 지금은 그냥 계속 사먹어요.

(강) 제가 어떤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물론 내 강점도 알아야 겠지요. 그런 다음에 나의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야 하는데 평생 농사 지은 분들과 경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동네서 태어났고 농사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이기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기려면 그 분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농업기술이 있든지 자본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든지 해야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 방송 나오신 거 보니까 배도 타셨던 것 같은데요?

(강) 배를 좀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긴 했는데요. 배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배를 얻어 타고 했어요. 멩게 배도 타고 조개 배도 타고 멸치 배도 탔는데 제가 멸미를 해요. 배 타면 하루 전에 멸미약을 붙여요. 새벽에 빈속에 나가면 또 울렁거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배를 안탑니다. 탄다고 해도 가끔씩 도와주는 차원으로만 타고 있어요.

(화) 그래도 이분 선장 자격증도 있어요. 제가 배타고 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해서 땀는데 어지러워서 못 탄다니 어쩔 수 없죠.

#### 어간장 하시면서 시행착오가 많으셨죠?

(화) 사실은 사명감을 갖고 만드는 식품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정말 나름 대로는 중요하게 여기는 식품이라서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할수록 어렵게 생각돼요. 돈을 떠나서 좋은 걸 함께 나누고 싶은 데 목적이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바로마켓이나 박람회 같은데도 많이 쫓아 다녔어요.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고 덕분에 고정적으로 찾는 사람들도 생기긴 했는데 야외나 팽벌에서 하는 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이 나기도 했어요. 온라인으로 나가는 것은 소수고 마트에서는 양조간장에 밀려서 팔리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 사실 어려운 거야 뭐,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어려운 적이 없었는데 어쩌면 지금이 제일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다소 안일한 생각을 하는데, 집사람은 달라요 매우 열심히 해요. 저도 남해에 온 뒤 창원대학교 창업과정 수료했고. 또 경상대학교 식품가공과정에는 아내와 같이 다녔고요. 그러면서 농산물 가공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진행하는 귀농·귀촌 공부도 했고, 또 여러 유관 과정들도 공부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으셨네요. 서울서 죽 살다가 바다가 있는 남해로 왔고 어간장도 힘들게 만들고 계신데 오기 전과 지금의 바다는 어떻게 다르신지요?**

(강) 오기 전의 바다는 그저 동경의 대상이었죠. 답답한게 있어 바다에 오면 괜히 풀리는 거 같고요. 고향이 바다가 아닌데도 바다를 안 보면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근데 막상 여기 와서 이제는 바다를 실컷 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바다가 지긋지긋하게 되고 이제 감흥은 좀 떨어지는데, 요즘은 바다를 보면 좀 안쓰러운 느낌이 있어요.

마을 지인들하고 낚시하러 다니곤 하는데 낚시가 예전에는 엄청나게 잘되었대요. 근데 요즘은 고기가 안 잡혀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고기가 안 잡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 바다가 오염된 거야. 그 오염도 누가 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냐? 관광객이나 낚시꾼도 있지만 바다에서 먹고사는, 바다가 생활의 터전인 어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병이든 유리든 플라스틱이든 쓰레기든, 다 버립니다. 이 아름다운 바다를

왜 그 사람들이 오염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1~2개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쌓여서 바다가 오염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어릴 적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통영 용남면에 갔더니 굴 껍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고기는 좀 다니는데 그런데서 낚싯대를 들이대고 싶은 마음은 죽어도 없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외부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땅은 농사꾼이 오염시키고 바다는 어부들이 오염시킵니다. 진짜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네, 오늘 두 분 말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두 분에게 어간장이란 무엇인가요?**

(강) 나에게 어간장은요, 그리운 맛입니다. 추억 속에 담겨진 그리운 맛. 그 맛을 찾는 나에게 미운 정 고운 정 들며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화) 저는 어간장은 생명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안 먹는 딸아이가 제가 만든 어간장으로 비빔밥 해주고 나물 무쳐 주면 밥을 먹거든요 지금도 혼자 밥을 잘 해먹고 있어요, 저희가 만든 이 어간장으로요.

**연보**

- 1957년 서울 영등포 출생 (강)
- 1958년 서울 영등포 출생 (화)
- 1982년 결혼
- 1983년 첫째 득남
- 1987년 둘째 득녀
- 2013년 명예퇴직과 더불어 남해로 귀촌

**참고 자료**

6시 내고향 창원 (<https://www.youtube.com/watch?v=JZX1AqDoQu4>), 2015. 5.26



남해의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진행했던 인터뷰 모습

# ‘아바이’ 마을에서 ‘아마이’의 마음으로 만드는, 함경도식 가자미식해

정성수·신애자 부부

(가자미식해 명인 故김송순  
선생의 차남과 며느리)



## 들어가며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려 닿을 수 없는 75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 특히 북에서 남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이들에게 고향은 언제나 애잔하고 아픈 단어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고향은 일상 속 여러 풍경 속에서 자주 되살아난다. 무엇보다 시간의 풍화 속에서도 고향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는 건 매 순간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익숙한 향이 담긴 음식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의 손맛을 닮은 그리운 음식을 통해 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경험은 실향민들에게는 별스럽지 않은 낯익은 경험이라.

어머니의 손맛에는 보통의 식당에서 먹는 음식과는 다른 고유하고도 특별한 그 무언가가 스며있어서 같은 재료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고 해도 똑같은 맛을 내기란 여간 쉽지 않다. 아마도 그 이유는 무엇보다 어머니의 손끝에 담긴 정성의 무게와 온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기를 바라고, 배부름과 충만함을 느끼길 바라는 정성은 어머니의 손길이 아니고선 결코 맛보지 못할 사랑이다.

그리운 이복을 떠나와 낯선 타향에서 김송순 선생의 가자미식해를 찾게 된 실향민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에 있는 속초 아바이마을을 찾아와 꼭 김송순 선생의 가자미식해와 젓갈만을 찾았을까? 작은 병에 담긴 소박한 음식은 젓가락질 한 번만으로도 그리운 고향의 정경과 이야기, 몸으로 직접 스며드는 향과 맛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갖은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는 신산한 삶 속에서도 가자미식해를 통해 실향민의 마음을 보듬어주었던 김송순 어머니의 삶은 그대로 둘째 아들인 정성수 선생과 며느리 신애자 여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오랜 숙성의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자미식해처럼 대를 이어 어머니의 마음을 잇고 있는 정성수 선생과 신애자 여사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깊고 진득한 삶의 향을 느낄 수 있었다.

# 01

## 아바이마을 무변지에서 태어나다

###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정성수-이하 정) 네, 저는 김송순 아마이젓갈을 운영하고 있는 정성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김송순이고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1957년생으로 올해 64살이에요.

(신현자-이하 신) 저는 신현자입니다. 정성수 씨 아내이고 김송순 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1960년생이고요.

### 정성수 선생님은 여기서 태어나셨나요?

(정) 네, 여기 아바이마을 무변지에서 태어났어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여태까지 이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변지라는 말이 신기할 텐데 옛날에는 번지가 없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호적에 보면 청호동 무변지에서 태어났다고 나옵니다.

### 그렇군요. 먼저 아바이마을에서 성장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정) 오징어 배, 콩치 배를 타며 바다 일도 했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일을 안 할 수도 없어서 무엇이든 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때는 바다에 나가면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엔 은강호라는 배를 타고 오징어를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배를 탔었죠. 당시만 해도 동네 애들이 모두 배를 탔고 사람들이 배 타다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조업하다 북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배들이 모두 조그마하고 항법이나 기계가 뭐 있었겠습니까. 다 경험과 자기만의 육감으로 하니깐 바다 건너 보이는 육지가 이북인지 한국인지 모른 채 무작정 들어가는 거죠. 저는 여기 청호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때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착을 막 시작한 시기였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 마을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아바이마을이란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정) 속초의 실향민촌은 6.25 전쟁 당시 1·4후퇴 때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지금의 청호동 일대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지역입니다. 피난민들은 함경남도 출신이 대부분이고요. 당시 청호동 전체는 함경도 출신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함에 따라 ‘어르신’ 또는 ‘할아버지’를



정성수-신애자 부부의 가게에 있는 옛 가자미식해 담그던 모습 그림



아바이마을 곳곳에는 옛 생활상을 담은 벽화들이 그려져있다.

뜻하는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에서 ‘아바이마을’이라고 별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경도 방언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부르던 ‘아바이’가 이 마을을 부르는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아바이마을에는 함경도 음식이 특히 유명하고요. 아바이순대<sup>오징어순대</sup>, 순대국밥, 함흥냉면이 속초에서 뿌리내려 특색 있는 향토음식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 즐겁게 뛰어 놀던 어린 시절 아바이마을의 풍경은 어땠나요?

(정) 그때 아바이마을은 형편없었죠. 판자집, 루빙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름종이 붙여서 지붕을 만든 집들이 마을에 많았어요. 특히 마을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 집이었죠. 깡통을 이어 철판을 만들어 덧댄 집도 많았고 이북 말로 짚집이라고 해서 벗짚으로 만든 초가집이 특히 많았어요. 지금 새로 만든 다리 밑에 갯배 체험하는 곳이 과거에 우리 집이 있던 곳이에요. 속초항 공사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속초 마을은 엄청나게 낙후된 동네였어요. 집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공용화장실을 쓰고, 빨래터에 가서 다 같이 빨래하던 풍경이 아직 기억에 남아있어요. 마을 곳곳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수도도 공동으로 사용했고, 한 번씩 수도가 막히면 수로 난 곳에 펌프로 물을 올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물을 길기도 했었죠.

### 그 시절의 마을의 풍경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정) 그렇죠. 그 당시는 바다 가까이에만 나가도 해삼, 멧게, 미역, 오징어 한 바가지는 주을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바다가 없었으면 즐거움이란 게 없었을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배고프면 바다에 들어가 조개 캐서 먹기도 하고, 조개로 친구들과 딱지치기 하듯이 가지고 놀기도 하고요. 또 저 앞에 섬이 하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댄마라고 부르는 널찍한 작은 배가 있었는데 만일 서울에서 손님이 왔다고 하면 댄마 하나 빌려 섬에 가서 섬을 한 바구니 캐와서 끓여 먹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고무신으로 바다에서 새우를 떠서 먹었거든요. 엄청나게 깨끗했어요. 그 좋았던 바다를 지금껏 사람이 다 망가뜨렸어요.

###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아바이마을에서 지내던 유년기 시절을 다시 떠올리신다면요.

(정) 저는 특히 축구를 좋아했어요. 청호초등학교는 속초에 있는 학교 중에 그래도 축구를 좀 한다는 애들이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큰형이 엄청나게 잘했었는데 저는 형 뒤를 쫓아다니며 축구를 배웠어요. 그땐 딱히 놀만 한 장난감이 없잖아요. 형이랑 모래밭 가서 공을 차며 놀았던 기억이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매일 모래밭에서만 놀다가 단단한 땅에서 하니까 발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모래밭이 실력을 쌓는 훈련이 되었던 거죠. 우리 형은 축구를 점점 잘해서 선수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원래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 동생의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곳이 있어서 형이 선택을 바꿨어요. 저는 큰형님 덕분에 공부도 하고 졸업도 할 수 있었죠. 그런 점에서 큰형님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 더 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위해 진학 학교를 바꿨다니 형님과의 우애가 상당히 하시겠네요.

(정) 그렇죠. 형이랑 저는 지금도 가까워요. 어린 시절에도 늘 같이 붙어 다녔고요. 그렇게 형이랑 같은 학교 축구부에 속해서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방학만 되면 청호동에서 다시 고깃배를 탔어요. 멀리 갈수록 돈을 많이 줬는데, 한 번 나가서 조업하는데 20일 정도 걸리는 배를 타면 한 번에 50~60만 원 정도 줬었어요. 그때 공무원 월급이 19만 원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학기를 제외하고는 다 속초에서 배를 타서 돈을 벌었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엔 일본 인근에 대화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이 갔다 오는 데 20일이 걸리는 곳이거든요.

###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너무 험한 곳으로 다니신 것 아닙니까? (웃음) 대화퇴란 곳은 어떤 곳 인가요?

(정) 맞아요. 제가 겁이 없었죠. 그곳이 파도 세기로 유명하고, 죽은 사람도 많은 곳이에요. 일단 거기까지 가서 고기 잡고, 얼음 붓고, 배 밑창에 나무상자에 정리해서 채워두었다가 배가 다 차면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거든요. 위험하긴 해도 워낙 별이가 좋으니까 그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오징어 잡다가 오징어 안 나면 공무원한다.'고 했었는데 속칭 '공무원질'이란 말도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정반대가 되었어요.

### 아주 오랜 시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 얼마 전 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정) 큰형님은 학교 졸업하고 서울시청 축구단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졸업하고 축구는 그만두고 울산하고 속초를 왔다 갔다 하면서 토목 공사를 했어요. 군 생활은 속초에서 방위로 했습니다. 그때 방위병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기 때문에 중간에 고깃배도 타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이후에는 아주 잠깐 시청에서 솔잎혹파리를 방충하는 일을 했어요. 따로 정식 직급이 없이 뽑아서 하는 일이었는데 그때는 '잡급직'이라고 불렀는데 그걸로 일을 다시 시작했죠. 그렇게 4년 있다가 선거가 있어서 정식 기능직으로 올려줬어요. 범죄와의 전쟁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이죠. 그다음에는 18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강원도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쳐서 보건직이 되었어요. 그때가 1995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뿌듯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 02

### 그리운 나의 어머니, 김송순

### 그럼 성장기를 거치며 바라보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여쭙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정) 우리 어머니는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이에요. 일본 강점기도 거쳤고 6.25 전쟁도 거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말이 이북 사투리입니다. 아마 이 천호동에서 이북 말을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나도 억양이 남아 섞어 쓰다 보니 귀순했냐고 물을 정도지만, 특히 어머니가 이북 말을 많이 쓰셨어요. 남들이 못 알아들을 정도로 굉장히 심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무슨



김송순 선생의 명인 지정패와 수여식 사진

말인지 몰라 제가 옆에서 해석해야만 했어요.

**어머니에게서 전해지는 이북의 향취를 느껴보고 싶네요. 어머니의 고향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시는지요?**

(정) 어머니는 1929년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면 만춘 1리에서 태어나셨어요. 6남매 중 맏딸이셨죠. 만춘리는 신창면 내에서도 굉장히 외진 지역이었어요.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외할아버님은 명태를 잡아 남쪽으로 내다 파는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외할아버님이 어선을 소유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지역에선 상당한 부호에 속했었죠. 어머니는 부유하게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만춘리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다가 21살에 중매로 혼인을 하셨어요. 상대는 같은 동네 출신 남자였고요.

**아버님도 어머니와 같은 실향민이셨군요. 아버님의 고향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정) 어머니는 신창면 출신, 우리 아버지는 북촌 거산면이라고 들었어요. 아버지 집은 북에서 과수원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피난 올 땐 큰 배가 없어 조그만 통통배를 타고 피난 왔다고 하셨어요. 이북에서도 계속 이발사 일만 하셨고 외갓집 배로 피난 오셔서도 이발사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속초 천호동 최초의 이발사였어요. 아버지는 기침을 많이 하시다가 1970년도에 돌아가셨고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두 분은 이북에서 결혼하신 게 아니에요. 모두 과거에 각자 혼인을 하셨다가 이후에 이혼하시고 재혼을 하셨어요.

**한국전쟁의 혼란한 흐름 속에 많은 분이 헤어졌던 흐름하고도 이어질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혼과 재혼을 터부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사회의 인식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 중매결혼이라는 특성이 있으니 어머니는 결혼하실 때까지 남편 얼굴을 몰랐대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삶이 평탄하지는 않으셨답니다. 성격 차이가 너무 커서 갈등이 계속 쌓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 옛날에 이혼하고 다시 친정인 만춘리로 돌아와 친정 부모하고 사셨대요. 고향으로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전쟁이 터져 버렸습니다.

**아바이마을과 가자미식해. 특히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려면 한국전쟁과 피란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함께 보아야겠네요.**

(정) 그렇죠. 어머니도 피란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오신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만춘리가 워낙 외지고 시골이라 전쟁이란 소식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대요. 해방하고

처음 인민군이 38선 이북을 점령해도 만춘리에는 들어온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도 그렇고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그냥 이대로 전쟁이 곧 끝나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한반도의 전쟁이 너무 거세고 무서웠던 것이죠. 마을의 청년들도 하나둘 인민군으로 징집되어 가면서 마을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남동생 그러니까 제 삼촌도 이때 징집되어 양강도로 가서서 군대 생활을 하셨대요. 어머니가 엄청나게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분단 상태로 계속 있을 줄 몰랐다고, 그때 어떻게 해서든 동생을 군대에서 빼내었어야 했다고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하셨었어요. 삼촌도 징집된 이후로는 집에 한 번도 오지 못하셨다고 하고, 어머니가 전쟁 나고 6개월 뒤에 월남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아예 만날 수가 없던 것이죠.

**모두 가족과 헤어져야만 했던 시간이군요. 전쟁이 시작되고, 월남하실 때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 그때 어머니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전쟁 나기 전처럼 계속 조업을 했었다고 해요. 명태도 잡고, 손질도 하고, 말리는 일을 지속했던 것이죠. 그런데 상품을 만들어도 정작 팔아야 하는 남으로 가는 길목이 막혀있었대요. 인민군의 눈길을 피해 몰래 돌아서 내려가 장사하고 돈을 벌어서 다시 올라오는 방식이었는데 올라오다 인민군에게 잡히면 형무소에 갇히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남한 돈이 북에 있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물고기를 잡는 것과 시장에 판매하는 것인데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막막함이 상당했을 것 같네요.**

(정) 하나 다행이었던 건 외할아버님이 이거 남한 돈 가지고 가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는 말을 들어서 몰래 처분하셨대요. 그래서 인민군 검색에서도 무사히 통과해 집으로 돌아 오셨다고 합니다. 삼엄한 감시가 가득했대요. 국군과 인민군이 밀리고 밀며 계속 전선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그때 무고한 주민들이 많이 처형당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외할아버님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결국 온 가족이 다 짐을 싸 남으로 내려가자고 결심하셨대요. 그때가 아마 12월쯤이었을 겁니다. 간단하게 목선에 짐을 옮겨 함흥으로 내려갔고, 함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머님도 함흥을 통해 전쟁의 포화를 피하셨네요.**

(정) 그렇죠.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때 함흥에 군인도 가득하고 피난민도 가득하고.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시 남으로 남으로 내려와 경북 울진 죽변까지 가셨대요. 거기서 타고 온 목선으로 다시 뱃일을 시작했고, 죽변에서 한 녀달 지내시다가 동해 묵호로 옮겨서 서너 달 지내시고요.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생계가 변변치 못하니까 마치 좋은 풀이 나는 지역으로 양떼를 몰고 다니듯 목선을 타고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방식인 거죠. 생계를 위해서 한곳에 정착하질 못하셨어요.

### 그럼 남한에 정착하시게 된 이후, 어머니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정) 어머니는 월남하셔서 주문진에서 제 아버지를 만나 재혼하셨어요. 아버지 성함은 ‘전석주’입니다. 어머니보다 아홉 살이 많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도 이북에서 결혼하셨는데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계신 상태셨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져 정신없이 피하다 보니 이북에 친할머니와 아이들을 놔두고 작은 아버지와 월남을 하게 되셨던 거죠. 그땐 머물 곳이 없어 배 위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피난민들은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차피 고향으로 곧 돌아갈 것인데 왜 우리가 굳이 집을 만드냐 이런 생각에 배 위에서 지냈던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는 같은 배로 타고 피난하던 아버지와 만나 결혼하셨고, 식도 올리지 않았대요. 둘 다 시집 가고 장가갔다 왔는데, 또 매일 먹을 밥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무슨 결혼식이나며 그냥 사셨던 거죠. 아버지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배도 타고, 고기도 잡고, 짐을 배달해주는 일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공동화장실 앞에 앉아서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는 일도 하셨어요. 겨우겨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신 거죠. 저희가 3남 1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후 속초에 정착하게 되시고, 어머니가 스물여덟이 되던 해에 누님이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집에서 저희 모두를 낳았어요. 산후조리도 물론 제대로 하질 못하셨죠. 며칠을 겨우 쉬시다가 겨우 밖으로 나가셔서 다시 장사하셨대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땐 다 그랬어요.

### 부모님이 이곳, 속초로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 왜냐하면 속초에 청호동에 이미 이북 출신의 피난민들이 많았거든요. 같은 아픔이 있어서 서로 도와주고 정착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먼저 속초로 와서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집을 짓는 방법도 알려주고, 널빤지도 내어주고, 일손도 거들어주고요. 어머니는 기둥이 없이 널빤지로만 힘을 받는, 하꼬방이라고 하죠, 그런 집에서 지내셨어요. 그래도 길 쪽으로 대충 방도 내고 다락방도 만들고요.

###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이곳 속초에 있었네요.

(정) 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곳 청호동에서 평생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그때 이미 청호동은 생선 장사로 유명한 동네였거든요. 수협 공판지 있던 곳이니가 오죽했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다라이에 생선을 담고, 골목길에서 장사하셨어요. 그때 작게 팔던 분들이 주로 공판장에서 생선을 구입했는데 조업 갔다가 돌아오는 배에서 몰래 바로 구입하시기도 하셨어요. 수협을 통해서 거래하면 수수료가 붙는데 직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붙질 않으니까 감시를 피해서 바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 김송순 어머니를 설명하는 단어가 ‘삼세아마이’ 라고 들었습니다. 삼세아마이는 무슨 뜻인가요?

(정) 여기서 ‘삼세아마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기 삼세, 고기 삼세’ 외치고 다녀서 삼세아마이라고 불렸어요. 새벽 5시만 되면 리어카 끌고 ‘고기 삼세, 고기 삼세’ 외치며 다니셨죠. 하루도 안 빠질 정도로 역셨어요. 그런데 이곳 청호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억척같고 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모두가 역세고 착합니다. 우리 엄마도 내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순수했어요. 서른아홉에 혼자가 되고 우리들 삼형제를 키워야 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역세지 않으면 못 이겨요. 생선 판장에 나가서도 소리 팍팍 지르고 해야죠. ‘야, 이놈들이’ 하면서 배에 먼저 올라가야 좋은 생선 잡을 수 있었고, 그렇게 역세게 버티고 헤쳐 나가야 겨우 돈을 벌던 시절이거든요. 역세지 않으면 이기질 못해요. 우리 엄마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 있다 보면 우리 엄마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 이미 ‘삼세아마이’ 라는 별칭에서부터 자식을 향한 사랑, 삶에 대한 의지가 전해집니다.

(정) 의지가 강한 분이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정이 많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었어요. 하루는 옛날에 거지가 지나갔는데 우리 집 밥상에 앉혀서 같이 밥 먹고 가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밥 주냐고 그러면 그렇게 모질게 할 거 없다고 하시고. 요즘엔 사람들이 항상 너희 어머니가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을 받는 거라고 얘기 해요.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서른아홉에 홀로 돼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생선 장사하면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았겠지만, 특히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정말 억척같은 어머니셨어요.

**그럼 아버님은 어떠셨나요? 속초에 오셔서 아버님은 계속 이발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정) 그렇죠. 아버지도 여기 깃배 선착장 부근에서 이발소를 직접 차려서 운영하셨어요. 공용화장실 앞에서 하시다가 직접 이발소를 차리셨어요. 그렇게 자신만의 일을 찾고 조금씩 정착해갈 무렵, 갑자기 아버지가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어요. 우울하니까 힘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뭘 드시지 않으니 체력도 약해지시고 결국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 하시기가 어려워지셨어요. 이후 청초호수에 정비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거주지를 옮겼는데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6개월 뒤에 누님도 세상을 떠나고요.

**남편과 딸을 함께 떠나보낸 어머니의 슬픔이 쉽게 상상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인지 말씀 속에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정) 감사하죠. 어머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죠. 다시 말할수록 참 불쌍하다 싶네요. 여자 나이 서른아홉에 혼자 되어가지고 혼자 살겠다고 다른 가정에 시집이라도 갔으면 잘 사시지 않았을까요. 우린 다 뿔뿔이 흩어졌겠지만 더 편한 삶을 사셨겠죠. 만약에 어머니가 우릴 떠났으면 지금의 우리가 있겠어요? 지금의 모습은 절대 없는 것이고, 엄마의 자상함이나 어떤 따스함을 많이 받으면서 컸어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깊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불쌍하고 또 엄마 얘기하다보면 울음도 나고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없이 혼자 계시는 걸 보니 마음도 아프고 평생을 너무 고생하셨 거든요.

**어머님도 많이 아프셨군요.**

(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반 정도 아프셨어요. 아흔 살 넘게 사셨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다리도 절룩거렸어요. 머리에 생선을 이고 가다 저기 앞에 나룻배 있잖아요. 우린 깃배라고 부르는데 깃배에서 넘어져 가지고 다리에 핏줄도 하나 없었어요. 당신 다리가 불편하게 절뚝대면서도 생선을 이고 지고 다니면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린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자리도 잡고 가정도 꾸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는 그런 걸 모르고 어찌 보면 가족의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돌아가셨으니까 참 아쉽고 불쌍하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나니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로서 바라봤던 시선도 궁금합니다. 연애할 때 만났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나요?**

(신) 연애할 때 어머니를 뵈는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키도 조그마하고 그래서 였는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남편보고 헤어지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헤어

졌었는데 어쨌든 같은 동네에 사니까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연애할 때 어머니는 너무 무섭고 진짜 입도 안 떨어졌어요. 눈도 부리부리 하셨고요. 나를 안 좋게 보신다고 생각해서인지 더 겁을 냈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함께 지내 보니 많이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남편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신) 저는 고성 출신이에요. 아버지 고향은 대구였는데, 그때 장사하시다 잘 안 되셔서 무슨 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선박일 하신다고 이리 오셨어요. 그렇게 아바이마을에서 자랐는데 남편이 이 마을에서 방위를 했거든요. 그때 남편은 키도 크고 잘 생겼었어요. 방위복도 다른 사람들은 대충 입는데 이 사람은 맞춰서 입어가지고 아주 말끔하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방위가 지나간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5년 연애하고 24살에 결혼했어요.



정성수·신애자 부부의 결혼식 사진

(정) 얘기하다보니 결혼식이 기억나네요. 그때 우리는 시장 쪽에 '서울예식장'이라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했는데 속초에는 예식장이 그거 하나라서 다 그곳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나는 양복을 입고, 집사람은 예식장에서 대여하는 3만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식을 올렸어요. 넥타이는 나도 양복점에서 빌려주는 거 그냥 메고요. 내가 그때 시청 공무원이니까 주례는 시장님이 오셔서 해줬어요. 결혼하고 나서 하꼬방에 잠깐 살다가 이사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전세로 한 20만 원 췌던 곳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예물 반지를 팔아서 전세 50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 갔고, 몇 번 이사를 더 한 다음에 공무원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신) 우리 결혼하고는 어머니하고 큰형님네하고 조그만 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나중엔 형님네 내외, 우리 둘, 어머님에 아기가까지 생기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큰애 낳고는 30만 원짜리 전세로 이사 갔어요. 이 동네에서 이사도 참 많이 다녔어요. 조금씩 넓은 집으로 이사 다녔죠. 생각하다보니 벌써 이 동네에서 살아 온지도 30년이 되었네요.

# 03

## 아마이의 손맛을 따라 그리운 음식을 만들다

**그럼 이제 가자미식해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보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가자미식해를 만드셨나요?**

(정) 20년 정도 조금 더 된 거 같아요. 조금씩 집에서 만드시다가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떨어져 나눠먹었어요. 그렇게 매년 만들어 먹다 보니 계속 사람들이 찾게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제 어머니에게 팔아 보라는 말을 했었어요. 것갈, 식해 장사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니까 생선 장사만 하시던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식해 제작과 판매를 하게 된 것이죠. 원래 가자미나 명태, 이런 생선이 손이 많이 가요. 소금 절이고 2~3일 정도 숙성하면 8시간 씻어야 돼요. 소금물 하얗게 나올 때까지 계속 씻어야 돼요. 불려놓았다가 씻고, 가위로 옆 날개 다 치고. 그래서 깨끗하죠. 냄새 하나도 안 나게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동네 사람들이 왜 어머니의 식해를 유독 찾았을까요?**

(정) 특별한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외할머니가 해주신 걸 먹었고 외할머니의 기술을 배워 만드셨는데 일단 어머니의 기본적인 음식솜씨가 우선 좋아요.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식해만이 아니라 어떤 거를 하셔도 손끝 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모든 음식을 다 잘하셨어요.

**고향의 맛, 그러니까 실향민들이 그리워했던 고향의 맛이 담겼던 걸까요?**

(정) 그렇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의 고향이 이북이에요. 고향에서 먹던 맛을 찾는 것이고



가자미식해를 만들고 파는 작업장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정성수, 신애자 부부가 직접 만든 가자미식해

먹어보니 각자 우리 엄마가 옛날에 해줬던 그 맛, 고향의 맛이 나는 것이죠. 가자미는 이곳 바다에서 사철 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 먹기에는 참 좋은 식품인거죠. 그래서 이북이든 한국이든 바다 사람들이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함경도 가자미식해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북에서 해먹던 고유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정) 우선 엿기름을 안 씁니다. 질금가루도 안 써요. 가자미가 생선 중에 성질이 조용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맛이 달고 독이 없어요. 몸이 약한 사람들이 먹으면 허약한 것도 보강해주고 기력도 좋아집니다. 특히 발효식품이라 소화도 잘 되고 몸이 아픈 사람이거나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 영양식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자미가 바다생선이라서 바다 해<sup>ㅁ</sup>자를 써서 식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식해는 것갈이라는 뜻의 해<sup>ㅁ</sup>자예요. 그리고 함경도는 동해안을 따라 길게 뻗은 지역이고 대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추운 편이에요. 높은 지대로 고원들이 많고 겨울이 비교적 긴 지역이라 채소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라서 절임류의 음식이 발달했고, 김치의 종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자미식해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하나씩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가자미가 제일 맛있는 게 가을부터 봄이에요.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는 질금 가루나 물엿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반 숙성 시킨 다음 급냉으로 바로 넣어 보관하죠. 우선 가자미를 깨끗이 씻고 메주와 고춧가루로 버무려서 10~15일 사이로 1단계 숙성을 시킵니다.

이후 급냉을 시킨 가자미를 꺼내 마늘과 생강을 넣어 2차 양념을 해요. 이후 3일 정도 다시 숙성을 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씩 먹어보고 내 입맛에 맞다 싶을 때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시켜요. 더 오래 숙성시킨다고 하면 저온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밖에 내놓고 그날의 온도에 맞게끔 숙성시켜요. 그러니까 자꾸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얼마큼 숙성이 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만들었던 양념에서 방울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방울이 바로 식해가 식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 식품 제조공장이 아니다 보니 때를 놓쳐 망치는 식해도 많지만 늘 입맛에 맞춰 배송하니 고객들 컴플레인이 거의 없어요. 먹어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맛있는지 맛있는지요.



작업장 앞에 있는 머릿돌. 김순이라는 이름이 가자미식해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맛있는 식해를 위해선 충분히 기다려야 하는군요. 가자미식해의 마지막 재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 네, 가자미식해는 기다림의 미학이죠. 식해는 기다려야 돼요. 천천히 익을수록, 저온으로 오랜 시간 익을수록 더 맛있습니니다. 그리고 식해는 원래 겨울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에요. 전통적으로는 겨울에 양념해 단지에 넣어 아랫목에 폭 담가 놓은 다음 하나씩 꺼내 먹습니다. 그렇게 폭 익은 식해는 따뜻한 밥이랑 함께 먹을 때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는 식해 특유의 쿼퀴한 맛도 있었어요. 그땐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안 씻었거든요. 지금은 깨끗하게 씻을 수밖에 없는 게 젊은 사람들 선입견도 있고 비린내에 민감한 것도 있고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비린내 날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우리 집 식해를 찾는 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조공장에서 다량으로 만들어 파는 곳엔 아직 비린내가 난다고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가자미 날개도 치고 소금 쳐서 깨끗하게 씻고 오래 천천히 익히다 보니 깊은 맛이 나는 것이죠. 요즘엔 그렇게 꼼꼼하게 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사모님은 식해 제작법을 시어머니에게 직접 배우신건가요?**

(신) 어머니가 특별하게 레시피를 알려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냥 한 컵 넣어라, 두 컵 넣어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서 어깨 너머로 배웠죠. 매번 양념을 툭툭 털어 넣으시니까 어느 날엔



가자미식해 담그는 전체 과정을 직접 시연 중이다.

내가 그 양념을 통으로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양이 되나 봐야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상품 담은 1kg짜리 통이 있는데 받아보니 정확하게 그 반통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양념을 손으로 잡아 바로 넣어도 정확한 양이 들어갔어요. 그냥 집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양이 일괄적으로 똑같나 싶을 정도로 정확했어요.

**식해는 전통적인 식문화인데 개량에 대한 압박 혹은 요즘 식문화에 맞추겠다는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정) 아니요. 그런 고민까진 안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하고 똑같이 만들 뿐입니다. 다만 가자미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맛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똑같이 양념을 해도 어느 때엔 맛있는데, 어떤 때는 맛이 없고 그러거든요. 특히 온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매일 직접 먹어보며 확인합니다.

(신) 요즘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선입견에 맛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화 와서 '아니, 어머니 때 맛하고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어머니 때도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맛을 봤거든요.

(정) 내가 식해와 젓갈에 대한 미식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어머니 있을 때도 10년간 제가 맛을 봤거든요. 직접 맛보고 판매해도 될지 안 될지 판단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생선을 절대 안 드셨어요. 비리다고 싫어하셨어요. 방송에서 취재올 때 맛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해도 어머니는 꼭 비리다고 싫다고 하셨어요.

**젊은이들이 찾긴 하지만 세대가 달라짐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매장 운영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요?**

(정) 식해와 젓갈이라는 입맛 자체가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안 맞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젊은 사람들이 먹게 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 고민하기도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개량하거나 가게를 확장할 생각은 없어요. 장사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우리끼리 즐겁고 편하게 하자는 데에 있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바로 보내줄 수는 있지만 마트나 이런 데에서 판매는 안 해요. 먹고 싶으면 내 집에 와서 먹어라.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편하게 살자는 마음입니다.

**가업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정) 이제 3대째로 이어가야죠. 제계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큰 딸이 포부가 커요. 자기가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네 거니까 네 시대에 맞게끔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해요. 요즘은 SNS도 있어서 소문만 나면 애들이 멀리서도 찾아오고. 이런 게 문화가 되었잖아요. 문화가 되면 ‘야, 나 이 집에 여행 갔다 왔어. 유명한 이 집에 왔다.’ 이렇게 셀카도 찍고 공유하고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이제 음식이 문화가 됐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만큼 자기가 개발해서 발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 지금은 우리 상품 단위가 커거든요. 1kg, 1.6kg, 제일 작은 게 500g이에요. 그런데 이제 1인 시대가 되었으니 150g, 200g도 찾거든요. 판매 방식도 바꾸고 디자인도 새로 하고 있어요. 지금 딸이 둘째 낳고 한 달 되었는데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신애자 여사가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방식 그대로 만든 가지미식해를 보여주고 있다.

## 04

### 직접 만들어가는 새로운 아바이마을

**아바이마을에서 여러 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바이마을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 그렇죠.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요. 제가 지금 아사모라고 해서 ‘아바이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이거든요. 우리 단체는 2005년 11월에 결성되었고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20명의 회원이 매달 한 차례씩 모임을 가지면서 아주 꾸준히 활동하고 있어요. 전국에서도 유일한 실향민 마을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아바이마을이거든요. 이런 역사성이 있는 지역이니까 우리 실향민 2·3세대가 모임을 만들어 지역을 열심히 가꾸어 보자고 나선 게 아사모입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북의 방언, 속초시 천호동의 옛날 모습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아사모에서 아바이마을 홈페이지를 먼저 만든 것이죠. 아바이마을의 역사와 탐방정보, 초등학교 앨범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전 조사 단계에서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정) 이곳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의 생생한 사진들이 담겨있으니까요. 옛 앨범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연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40년 만에 초등학교 친구들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사연도 있어요. 아바이마을을 찾아왔던 탐방객의 잔잔한 소감의 글도 물론 함께 게시해둡니다. 홈페이지는 아바이마을 출신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만남의 장이며, 훌륭한 관광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마 속초시 홈페이지보다 잘해 냈을 거예요.

**아사모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정) 2004년부터 했어요. 시작은 청호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모여 마을 봉사를 하고 있고, 미술관도 만들고 낚시 쓰레기도 치우는 것이었어요. 갯배 체험관과 작은 공연 무대도 만들었죠. 그러다 3~4년 되거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젠 아사모도 커지고 많은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 동네도 아마 몇 년 뒤면 더 좋아질 거예요. 속초시에서 아바이마을을 가르는 이 골목이 제일 길어요. 이 골목을 어떻게든 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차 없는 거리로 하면 딱인데 사람이 걸어서 지나다니게 하고 특산물도 팔고요.

### 아사모 활동을 통해 주변에서의 지지랄까요. 함께 마을을 잘 꾸며보자는 움직임이 커지는 편인가요?

(정) 또 그렇진 않아요. 다들 이 마을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란 게 뭘지 몰라요. 마을을 하나씩 가꾸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해야죠. 아사모 사무국장과 들어서 공모사업도 넣고 마을 미술관도 만들고 예술 단체와 협업도 고민하고 있어요. 골목 위에 우리 어머니 애기 안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예술가 단체와 함께 '삼세아마이'를 주제로 우리 어머니 일대기를 그린 연극도 만들기로 했어요.

### 오랫동안 살아온 이곳, 아바이마을이 미래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길 바라시는지요?

(정) 동네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그렇지만 정말 깊은 정이 있고, 따뜻하고, 눈물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변화 없이 더 좋은 동네가 되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 바다가 옆에 있다는 게 큰 행복이에요, 바다가 없으면 속초가 있겠습니까? 외적 건물이 좋은 건물이면 서울이나 부산 가면 꼭 찾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오겠습니까? 바다처럼 넉넉하고 여전한 마을. 여기는 정감 있는 마을, '아, 이런 마을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 마을. '아바이마을에 피난민이 들어와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음식도 있구나' 하는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감이 가는 마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 오랜 시간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 곁에서 살아오신 선생님에게 바다란 무엇인가요?

(정) 바다는 행복이죠. 그런데 지금 바다에선 나오는 게 많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바다가 풍부했으니까 인심도 좋고 서로 나눠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안 나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져요. 내가 어렸을 때 바다는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정작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바다가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잘 먹고 사는데도 왜 행복이라고 하지 못할까 싶네요. 그런 아쉬움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 아바이마을에 대한 바람, 미래에 대한 바람이 있으신가요?

(정) 제가 속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무뚝뚝해요. 조곤조곤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 어머니 성격하고 똑같죠. 평생 살아온 이 아바이마을이 정감 있게 변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편안하고, 해안도로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호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저는 아사모 회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모사업도 하고, 예술가들과 협업도 하고 마을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듬어 갈 겁니다. 지금까지 소원이 뭐냐는 질문에 항상 소원이 없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 연보

- 1929년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면 만춘 1리에서 김송순 출생
- 1950년 전석주·김송순 부부 1.4후퇴 때 피난 와 속초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정착
- 1957년 속초 아바이마을에서 3남 1녀 중 둘째아들로 정성수 출생
- 1960년 경북 고성에서 신현자 출생
- 1970년 전석주 선생 별세 이후 김송순 장사 본격 시작
- 1983년 정성수 공무원 취업
- 1984년 정성수·신현자 결혼후 아바이마을에 정착
- 1984년 딸 출생
- 1991년 아들 출생
- 2005년 '아바이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아사모) 단체 결성
- 2015년 김송순 '속초시 특산물 명인 인증'
- 2019년 김송순 별세

## 참고 자료

속초아바이마을 홈페이지 (<http://www.abai.co.kr>)

김창호, 이순근, 이유리, 『모래 위에 세운 터전 속초시 천호동』, 국립민속박물관, 2014 강원도민일보, "[강원음식엔 스토리가 있다] 6. 속초 아바이순대", 2011년 10월 17일 오마이뉴스, "함경도 음식 '가자미 식해'를 소개합니다", 2006년 12월 10일

chapter  
03

민속

김 동 언  
배 재 적  
정 경 용  
최 병 천

# 동해안별신굿 무형문화재의 딸로 태어나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세습무의 삶

김동연  
(동해안별신굿 세습무)



## 들어가며

무당이 신을 청하고 환대하고 환송하는 과정인 굿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왔으며, 조선시대에도 왕실과 지배층에서도 심심치 않게 행해졌다.

별신굿은 무당이 주관하는 큰 규모의 마을 굿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해안별신굿은 부산 다대포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르는 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는 별신굿을 이르는 말로, 매년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마을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풍어와 다산을 비는 형태로 진행된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1980년도까지만 해도 100여 개의 마을이 별신굿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 속에서 점점 굿을 중단하는 마을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동해안별신굿의 존재마저 사라질 위기에 이르렀다. 여전히 별신굿을 벌이는 마을조차도 5년에 한 번 하던 굿을 7년 단위로, 혹은 2년에 한 번 하던 굿을 3년에 한 번 하는 식으로 점점 횟수를 줄이는 추세다.

1956년 부산 충무동에서 태어난 김동연 선생은 이렇듯 급변한 현실 속에서도 동해안 별신굿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동해안별신굿 초대 무형 문화재 보유자인 김석출 선생<sup>(20)</sup>과 변난호 무녀 사이에서 셋째 딸로 태어난 김동연 선생은 9살 때 어머니를 여의면서 무당으로서 한<sup>뻘</sup>을 가슴 속에 품게 되었다.

이후 17살 터울의 큰언니를 따라 다니며 무가를 익히게 되고 13살부터 본격적으로 무당의 길로 접어들어 17살에는 처음으로 소리를 완판하게 된다. 이후 50여 년간 수많은 자리에서 무가를 뽐냈으며, 부친과 집안 형제들 모두 함께 전승해온 동해안별신굿 무형 문화재 전수조교를 거쳐 2014년 1월에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어 부산기장 오구굿의 명맥을 잇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별신굿을 가장 잘하고 싶은 사람이자 전통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김동연 선생과의 만남은 동해안별신굿의 역사와 장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 국가무형문화재 제82-1호이다.

# 01

## 동해안별신굿 예능 보유자의 셋째 딸로 태어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해안별신굿 전수자 김동언입니다. 돌아가신 동해안별신굿 초대 무형 문화재 김석출 선생의 네 명의 딸 중 셋째 딸입니다.

**어릴 때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예, 돌아가신 아버지는 두 번 결혼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엄마의 네 딸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산 서구 충무동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어린 시절에는 엄마 고향인 포항 구룡포에서 살았어요. 학교도 구룡포국민학교에 다녔어요. 우리 엄마가 39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큰언니가 23살, 둘째 언니가 13살, 제가 9살, 막내동생이 7살이었어요.



김동언 무녀의 보존회 사무실 한쪽에 놓인  
故 김석출 선생의 사진

**어머니도 무속인이셨나요?**

나는 어릴 때라 잘 모르는데 둘째 언니가 말하길 우리 엄마가 목청도 좋으시고 굿을 참 잘하셨대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세습무였거든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엄마 발톱만큼도 못 하다고 하셨죠. 그만큼 잘하셨다는 건데, 어쩌면 그만큼 한을 가지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뭐, 지금 생각하기로는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뺏기고 보니까 한이 맺혀서 원을 품고 돌아가신 게 아닐까 싶어요. 39살이면 얼마나 한창 나이예요.

**선생님이 지금의 길을 걸으시는 데는 아버지만큼이나 어머니 역할도 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사실 엄마는 저를 굿하는 곳에 거의 안 데리고 가셨어요. 태어나기만 부산에서 태어났지, 자란 건 엄마 고향인 구룡포인데요. 엄마는 할머니 집에 저를 맡겨 놓고 막내 동생만 굿하는 데 데리고 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굿이 좋았어요. 어쩌면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굿을 듣다보니 편안하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린 동생 업고 다니면서도 굿을 보려고 할머니한테 욱도 먹어가면서, 구석에 끼어가면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굿판에만 가면 신이 나서 어머니와 큰언니의 굿을 흥내내는 것이 좋았어요. 동생이 울면 울지 말라고 흔들고 꼬집고 했죠.

**아버지는 구룡포에 머물지 않으셨나요?**

제가 구룡포로 왔을 때는 아버지가 둘째 엄마를 만난 이후라서 엄마를 보러 정말 가끔 왔어요. 당시에 엄마가 저를 포함해서 여자아이만 넷을 낳다 보니 아들을 낳지 못해서 여러 상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엄마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둘째 엄마의 아이들까지 합치면 우리 집 형제는 1남 9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인지 몸도 같이 아팠죠. 폐병 앓듯이 기침을 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엄마를 보러 온 날이었어요. 엄마가 굿을 하시고 나서 설움에 복받쳐 한참을 울었지요. 아버지가 떠나고 얼마 뒤에 증세가 조금 심해지시더니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9살이었지만, 한이라는 게 뭔지 이해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머니와의 사이는 어떠셨나요?**

두 번째 엄마도 굿을 하세요. 참 잘하시지요. 원래는 강신 입무하여 점을 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아버지 만나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주변에서는 굿에서만큼은 찰떡궁합이라고 했죠. 그런데 둘째 엄마는 원래 우리 아버지 짝이 아니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아직 혼자여서 저희 엄마가 소개해주려고 강원도에서 데리고 온 건데 중간에 일이 꼬여 버려서 아버지랑 같이 살게 돼버렸죠. 둘째 엄마는 성격이 웬만한 남자 못지않게 괄괄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자매들에게도 꽤 많이 엄격했고요. 그중에 제가 고생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설움도 제일 많이 받고, 매도 제일 많이 맞고요. 그때 한이 정말 많이 맺혔어요. 그러한 한이 있었기에 지금 굿을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이자 문화재이신 김석출 선생님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동해안의 굿하면 '김석출'이라고 할 정도인데, 선생님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아버지 고향은 현재는 포항인 경북 영일군 흥해예요. 거기 계시다가 여기저기 가서 많이 사셨죠. 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가 영일군에서 한지장사로 소문난 알부자셨는데, 어느 날 굿청에서 무녀<sup>이옥분</sup>를 소실로 맞으면서 풍류를 좋아하던 조부가 무녀와 무가를 형성하게 되었죠. 4대째 세습무가가 된 빌미였어요. 아버지는 삼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형제 모두 무가의 길을 걷게 되었죠. 큰아버지는 일찍이 장가를 가셨는데,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는 어릴 적에 배도 굵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큰아버지인 김호출의 아내인 김채봉도 세습무였으며, 조카들도 무업을 계승하고 있어요.



5대째 가업으로 무업을 이어받고 있는 김동연 무녀의 집안은 지금도 모두 유명한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 아버님은 어떤 고생을 하셨나요?

아버지는 굿판을 따라다니며 대추 꽃감들을 주워 먹고, 식은 밥 말아먹으면서 무가와 함께 자랐다고 해요. 그렇게 힘들게 자라다 보니 나중에 커서 당신을 부르는 곳마다 다 가신 거지요. 그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 나이 16살에 우리 큰언니를 낳았지요. 집안의 반대가 있었는데, 도망치듯이 고향에서 나오셨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부산에 오셨고, 거기에서 저를 낳으셨지요. 그런데 이후에 주로 강원도 쪽으로 많이 다니셨죠.

### 아버님이 태평소에 엄청난 두각을 보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태평소 기량이 말 그대로 대단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최고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태평소로 산조를 부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 한 분 밖에 없어요. 누군가 아버지에게 굿을 만류하면 굿은 안 했지만, 태평소는 안 놓았어요. 아버지는 8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65세에 대변항에서 철암 풍어제 할 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굿을 물려주셨는데, 태평소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 풍어제까지도 휠체어를 타고 부셨어요.

### 그밖에도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머리가 아주 똑똑했어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 같은 건 아예 안 적었어요. 듣고 바로 외우셨죠. 아버지보다 훨씬 젊은 딸들도 그렇게는 못하는 데 말이죠. 웬만한 번호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기억력이 굿할 때도 좋은데, 웬만한 굿에 대한 건 가사 뿐만



김동연 무녀의 부친인故 김석출 선생은 원래 지화<sup>紙花</sup> 장인이 되고 싶어 했을 만큼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현재 김동연 무녀 사무실 창고에 있는 지화 모습

아니라 다 아신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종이꽃인 지화 제작의 일인자이기도 하시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가 마을에서 굿청을 벌이면 사람들이 구수한 재담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동네 노인들이 흥에 겨워 밤낮으로 즐겼어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 ‘무당이나 화랭이가 되려면 김가네로 시집가고 짚 누리는 3년만 되면 춤 잘 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우스갯소리로 여기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엄마도 엄마지만 아버지 역할이 가장 컸겠죠. 아버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무가출신이 아니지만 아버지 때문에 무가를 잘하시는 것만 봐도 그러한 말이 증명되는 건 아닐까 싶어요.

### 앞서 아버님이 65세부터 굿을 물려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선생님이 보유자로 활동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큰언니가 아버지 조교로 있었어요. 나이도 있고 워낙 잘하기도 해서요. 그런데 둘째 언니하고, 저하고, 사촌동생하고, 그리고 제 남편은 이수생으로 20여 년 동안 거의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사실, 20년 정도 하다보면 기량도 어느 정도 뛰어나거든요. 전문가 그 이상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조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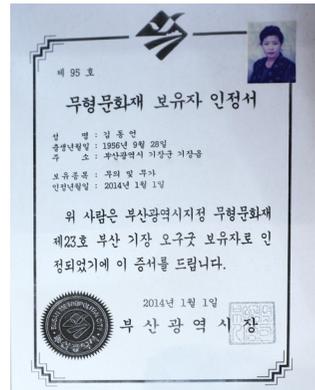
### 딸이자 전문가로서 섭섭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죠. 이런저런 일로 평소에도 조금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우리에게 “관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건데, 안 왔더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안에 사무장으로 있던 남동생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동생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고 많이 불편하시니까 명예로 물러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공문이 몇 번 왔다는 거예요. 즉 후계자를 뽑을 생각이 없느냐는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업을 잇고자 하는 자녀로서는 더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하루는 가족들 대표해서 제가 총대 메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막 따졌지요. 그때 우리를 나이도 거의 50~60살이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음 날 전화 오셔서 “야야, 내가 이제 공문을 보내려고 반아가 작성했고, 편지를 써 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렸데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닭살이 돋으면서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총대는 내가 다 뺐지만 그냥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죠. 얼마 안 가서 아버지가 명예로 물러나시고 그 이듬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시고 난 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보유자는 4명까지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오빠가 후보라서 먼저 보유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큰언니가 되었고, 저는 이후 전수조교가 되었죠. 그렇게 10년 가까이 활동하다가 2014년에 부산 기장 오구굿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받으면서 저는 전수 교육조교에서 해제되었습니다만 동해안별신굿은 집안 전체의 일이라 지금도 형제자매들 모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언 무녀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김동언 무녀의 굿하는 모습

## 02

### 9살에 무가의 세계에 발을 내딛다.

**선생님의 굿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 하는데요. 언제 굿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처음으로 하셨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로 갔다가, 작은아버지에게로 갔다가 했어요. 그러다가 큰언니가 결혼하면서 언니가 머무는 울진에 있는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조카를

업고 큰언니를 따라 다녔죠. 그러다가 하루는 언니 옷을 줄여 입고 굿청에 서서 큰언니와 노랫가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9살이었어요. 꽤자<sup>(21)</sup>를 처음 입었죠.

**9살에 꽤자를 입으신 거예요?**

네, 어리니까 머리는 안 올려도 굿을 하려면 꽤자는 입어야 했어요. 노래하기 전에 언니에게 소리 두 마디씩을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소리를 배운 순간이죠. 부모님이

(21) 소매가 없고 등줄기가 허리까지 트인 옷으로 복건과 함께 명절이나 돌에 어린아이가 입는 옷이 되었다. 무당이 주로 입는 옷이기도 하며 끈 실로 좁고 길게 짠 꽤자띠를 달아 입는다. 거기에는 금실 가락지나 딸기술을 단다.

알려준 적도 없고, 누구도 무당되라 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청춘가를 구성지게 불렀죠. 나랑 언니를 포함해서 어정판이 정말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아마도 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엄마 보내고 몇 달도 안 되었을 때라 가슴에 쌓인 응어리가 안쪽에서 밀려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13살 때부터는 아예 언니의 굿판을 같이 따라 나섰어요. 조카 기저귀 빨면서 손이 부르터도 굿청에만 가면 그냥 좋았지요. 어딘가에 있을 때 멀리서 징소리가 들리면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고, 땅에서 발이 떠다니듯 좋았어요.

### 학교는 졸업하셨나요?

아니요. 할 수가 없었어요. 9살에 엄마 돌아가시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공부를 썩 잘했다고 생각해서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갔죠. 둘째 엄마 동생들은 전부 고등학교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 그러면 13살 때부터 무당의 길을 본격적으로 들어서신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제 성격상 목표를 두고 움직이는 편이에요. 한 가지 목표를 잡으면 최대한 이를 수 있게 노력해요. 예를 들어 어릴 때는 언니들 굿을 보면서 언니들 보다 곧 잘할 것으로 목표를 잡았지요. 다행히도 아버지의 피인지, 엄마의 피인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보다 굿을 빨리 배웠어요. 내가 굿하면 사람들도 소리가 좋고 구성지다고 칭찬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신들린 듯 굿을 구경하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13살에 굿청에서 꽃노래, 뱃노래를 불렀죠.

### 그 이후는요?

16살 때 경북 호미꽃면에서 하회굿 한거리를 맡게 되었어요. 제가 언니들보다 재담이 특히 좋았어요. 게다가 노래도, 춤도 잘 추니 구경꾼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무당이라서 더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해요.

### 기량이 계속 늘었겠네요.

17살에 완판을 처음 했으니까 그렇죠. 무가의 처음을 9살로 보면 8년 뒤고, 13살을 처음으로 보면 4년 뒤지요. 구룡포 대보라는 동네에서 청보 완판을 했어요. 그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때부터 굿이 옛가락처럼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스스로 무언가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 완판 하시고 나서 아버지는 자주 만나셨습니까?

아버지를 중간중간 만나긴 했지만, 왕래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대신 아버지께 대한

이야기는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었어요. 내가 돌아다니다 보면 아버지가 하는 걸 보기도 했고요. 아버지랑 같이 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접하기도 했지요.

### 그렇다면 아버지와 함께 돌아다니신 건 꽤 지난 뒤의 일이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이십 대에 남편을 만났어요. 애기 아빠는 그때 스물여섯이었죠. 저는 손님이었고 애기 아빠는 영업용 택시기사였어요.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 이유로 집안에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애기 아빠가 남자무당인 양중 수업을 받는다는 조건을 내세웠죠. 남편이 워낙 눈썰미와 손재주가 뛰어나서 무악<sup>무악</sup>으로 이어갔고, 굿거리에서 장구채를 잡게 되었죠. 그런데 이리다 보니 남편과 나, 큰언니, 작은언니랑 아버지 쪽이 정치인들이 여야로 나뉘어 갈등하는 것처럼 파벌이 나뉘었지요. 동네일을 맡으려고 경쟁이 자주 벌어졌고요.

### 그렇게도 될 수 있나요?

어쩌면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보니 벌어진 일이죠. 한 번은 어떤 계약 때문에 아버지랑 대판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우리 언니 머리가 정말 한 움큼 뜯겨나갔지요. 그래서 아버지랑 10년을 안 봤어요. 그런데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게, 우연찮게 아버지가 문화재를 받으려니까, 천륜은 또 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참에 아버지 하고, 엄마하고 우리하고 화해를 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문화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쪽에서, 아버지는 이쪽에서 점점 굿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죠.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고 있는 김동연 부부의 모습

# 03

## 동해안별신굿의 이모저모

**굿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별신굿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요. 무당이 제사하는 큰 규모의 마을 굿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별신의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시해서 쓰는 건 신을 특별히 모신다는 것이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넓디넓은 마당에서 무당과 악사가 굿을 벌리는 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별신굿을 하는 기간이나 장소 같은 것이 있을까요?**

별신굿을 하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아요. 연중행사로 치르기도 하고, 해걸이로 3, 5, 10년에 한 번씩 행사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농촌, 어촌에서 많이 하다 보니 풍농제와 풍어제로 구분 지을 때가 많죠. 가끔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판이 벌이면 그건 난장<sup>難場</sup>굿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난장굿과 풍어제, 풍농제를 엄연히 구분했는데, 이제는 별신굿 자체로 보는 경우도 늘어났어요.

**별신굿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순서가 있을까요?**

별신굿은 일반적으로 무무<sup>무춤</sup>, 무가<sup>무가</sup>, 다시 무무, 그리고 무가 순으로 진행돼요. 보통 맨 처음 추는 무무는 푸너리 장단에 맞춰서 추는 푸너리 춤이고요. 무가는 청보장단<sup>(22)</sup> 또는 제마수<sup>(23)</sup>예요. 그 이후로는 검을 쥐고 추는 춤인 검춤, 명태와 오징어 따위를 들고 추는 춤인 어포춤이 진행되죠. 마지막에는 무당이 술잔과 신칼을 들고 굿을 하고요.

**그렇다면 동해안별신굿은 말 그대로 동해안에서 벌어지는 걸 텐데, 그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산의 다대포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남부 동해안 지역일대에서 행해지는 굿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부산, 경북 포항시 구룡포, 영덕군, 강원도 강릉을 이야기해요. 북한은 우리나라 국권이 미치지 못하기에 별신굿 전승 지역에서 제외되지요. 198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82-가호’로 지정되었어요. 보통 3~5월, 9~10월 사이에 굿을 많이 하

(22) 경상도와 강원도의 동해안 지방에서 쓰는 무악<sup>무악</sup> 장단의 하나이며, 다섯 박자 계통이다.

(23) 경상도와 강원도의 동해안 지방에서 무가<sup>무가</sup>의 반주에 쓰이는 장단으로 빠르기에 따라 3장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은 매우 빠르고 2장은 느리고 3장은 좀 빠르다.

는데 시기가 다 다른 것은 복이 들어오는 시기가 달라서라기보다는 그냥 동네마다의 특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해안별신굿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부정굿, 당맞이굿, 심청굿, 성주굿, 세존굿, 천왕굿, 용왕굿, 청좌굿 등이 있어요. 부정굿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고요. 당맞이굿은 서낭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청좌굿은 신을 모셔 좌정시키는 거예요. 세존굿은 세존신을, 성주굿은 성주신을, 천왕굿은 천왕신을, 용왕굿은 용왕을, 심청굿은 심청신을 모셔요. 이들 굿을 모두 올리려면 짧게는 삼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필요해요.

**별신굿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획량 차이가 있을까요? (웃음)**

데이터라고 말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영험함이죠. 우리는 굿을 하면서 축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축원이란 같이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죠. 무당들만 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축원만큼이나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길 바라는 마음, 사실 이게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껏 별신굿 했던 곳에서 큰 사고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굿의 규모나 중요성도 다르죠?**

다르죠. 풍습이 다르고, 그 동네에서 중요시하는 것도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바닷가 사람들은 용왕굿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어민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경상도 위쪽으로 가면 용왕굿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부산은 정성스럽게 하는데 경상도 위쪽으로 갈수록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동해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다를 섬기진 않거든요.

**선생님은 남해나 서해 쪽 해안에서 굿을 하시는 분들과 교류가 있으신가요?**

네, 교류를 맺었어요. 남해안과 진도예요. 진도는 씻김굿이라고도 해요. 두 군데에다가 동해안까지 포함해서 서로 교류를 맺으려고 노력했어요. 세 팀이 교류를 맺고 서로 돌아가며 다른 곳 분들을 초청해서 대접하기도 했죠. 선물도 주고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뜸하긴 하네요.

**상대적으로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굿이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가장 큰 굿이라고 하면 보통 심청굿이에요.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굿을 시작할 때 35세까지 심청굿을 완판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보통 심청굿은 4~5시간 정도 걸리는데 혼자서 판소리 완창하듯이 해야 해요. 그 시간 동안 완창하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포부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에너지 소비도 엄청나고요.

### 심청굿 말고도 특별한 굿이 있다면요?

성주굿이요. 일반적으로 무당마다 잘한다고 말하는 굿이 있어요. 저는 그게 성주굿이에요. 성주굿을 할 때도 심청굿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완판한다는 생각으로 해요. 가끔 약한 마음 가질 때면 큰형부가 응원을 해주면서 많은 위로가 돼요. 성주굿도 심청굿처럼 큰 규모로 진행되는 거라, 제게는 둘 다 특별하지요.

###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둘 다 정말 큰 굿인 것 같은데요. 체력적으로 괜찮으세요? 정말 쉽지 않은 듯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녁 먹고 성주굿을 2~3시간 하고 나서 굿 한 거리를 더 하고 나서는 바로 심청굿을 들어가요. 심청굿 들어가면 그걸로 밤을 새운단 말이죠. 그렇게 잠 한숨 못자고 나면 앞드렸을 때 허리가 안 구부려져요. 아파서, 다리가 통통 붓죠. 그렇게 하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더욱 아픈 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 말이죠. 둘째 언니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언니한테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언니는 그것도 못하면 뭐 하다 죽을래!” 라고 소리치기도 했죠.

###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 어머니만큼이나 자매간의 관계가 돈독함과 동시에 서로를 밀고 당기는 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수밖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원래 평범하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다가, 큰언니는 내게 엄마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나이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정과 사랑이죠. 이제껏 저와 큰언니, 작은언니 세 자매끼리 큰소리 내면서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선의의 경쟁은 해요. 적어도 저는 언니들보다 잘하려고 노력해요.

### 큰언니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영희 언니는 곰보무당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어릴 적에 천연두를 앓아서 얼굴에 곰보자국이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데, 원래 굿을 잘하죠. 그런데 저도 1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만약 언니보다 무언가 못하거나, 언니가 내 굿춤을 보고

인상이 달라지면 웬지 모르게 속이 상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큰언니, 작은언니 덕분이죠.

### 동해안별신굿의 반주 음악이 매우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먼저 별신굿은 무당이 의식을 행할 때 반주 음악을 써요. 그러한 점에서 동해안 별신굿은 조금 더 특별해요. 선율이 없고 리듬이 발달돼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동해안별신굿에는 대금, 해금 등 선율악기는 없이 장구, 징, 팽과리 등 타악기만 동원돼요. 35박 동해안 굿거리장단, 독꺾이장단, 국덕장단 등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혼합박자가 많은 점이 특이하기도 한데, 연주하기에 매우 까다롭죠. 대신 한번 익히면 매력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한 점에서 동해안별신굿의 반주 음악은 타악 연주 부문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고 봐요.

### 반주 음악만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죠. 반주 음악과 함께 무당이 장구 반주로만 불러나가는 장편 서사 무가에도 음악적 깊이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단, 앞서 이야기한 별신굿의 종류에 따라 나오는 서사무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겠죠. 그러려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선생님. 스님들이 하시는 창법 혹은 판소리에서 하는 창법과 무가에서 하는 것과 많이 다를까요?

다르죠. 달라야 하고요. 일단 절과 비교했을 때 목청이 다르죠. 스님들은 절 법대로 하고, 우리는 ‘무<sup>ㄹ</sup>’법대로 하죠. 판소리는 동해안별신굿에도 들어가 있어요. 경기 소리, 강원도 소리, 남도 소리도 다 있고요. 다만 소리를 내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기술도 다르고요. 그러한 점에서 지역별로도 굿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죠.

# 04

## 동해안별신굿의 현재와 미래

**이제까지 별신굿의 과거와 현재를 봤다면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굿거리가 많아서 사람이 모자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그렇지요?**

안타깝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굿을 잘 안 해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하더라도 5년 단위로 하던 곳은 7년 단위로, 2년 단위로 하던 곳은 3년 단위로 바뀌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많은 곳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굿을 점점 줄이는 추세네요?**

그렇지요. 굿을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단체에서 돈을 지원해서 해주는 곳이 많거든요. 풍요를 기원한다든가, 어떠한 행사로서 사용된다든가 말이죠. 그런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쓸 데는 많고, 굿은 점점 안 하려 하고 하다 보니 자꾸 굿에 들어가는 돈이 줄 수밖에 없지요. 정말 이리다가는 멀지 않은 기간 내에 굿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보존회 사무실 한쪽 벽에 걸려있는 김동언과 양아들의 사진

**그런데 수요도 수요지만, 공급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겠지요?**

그렇죠.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수요는 시기에 따라 언제나 변동성이 있지만, 공급은 그런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제 아버지나 어머니 쪽 같은 경우는 세습무 형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증조할아버지부터 시작한 세습무가 할아버지 3형제를 거쳐서 아버지 3형제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무업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을 보면 제 형제 1남 9녀 중에 무업을 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큰언니, 작은언니 총 3명이예요. 아버지의 형제 쪽으로 본다고 해도 작은아버지의 자식 말고는 없어요. 예전에 꼭 부러지는 사촌동생이 있었어요. 이름은 김정희였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강사였죠.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자살했어요. 당시에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4명에서 자식으로 후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현재 김씨 세습무 가계의 맥은 단절될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죠. 자기 집안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별신굿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동해안별신굿의 원형은 사실상 붕괴하기 시작한다고 봐야 할지도 몰라요.

**지금 선생님의 자녀분은 1남 2녀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아들은 양아들이예요. 한예종에서 농악을 전공했어요. 무악을 하고 있죠. 지금은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중앙대 조교로 있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남도소리를 잘하더라고요. 한 번은 내가 전화해서 굿 하는데 놀러 오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억지로 왔는데, 소리를 잘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교하면서 굿도 하고 해요. 이와는 달리 우리 딸들은 안 해요.

**그래도 함께 하는 언니들 뿐만 아니라 전수자 같은 개념으로 후발주자가 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언니분의 자녀분들은 어떠신가요?**

둘째 언니도 아들이 없는데 나처럼 양아들을 두었어요. 원래는 남편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둘째 언니 밑에서 잘 커가고 있죠. 둘째 언니는 아들한테 굿하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죠. (웃음)

**그럼 두 아드님이 계속해서 하신다면 동해안별신굿이 끊기지는 않겠네요?**

저랑 작은 언니의 아들들이 계속 걸어간다면 그렇게 되긴 하겠죠. 현재로는 끝은 없을 것 같아요. 공연을 해도 할 거고, 제를 지내도 지낼 거고, 굿을 굿식으로 하지 않고 공연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장 오구굿 보존회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인 김동연 무녀

**동해안별신굿의 전통이 이어지려면 단순히 후계자 개념으로서가 아닌 사회적인 부분에서 더 나아갈 방향이 있을까요?**

이전에는 아버지를 포함해 사람과 사람이 명맥을 이었다는 게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후대의 개념으로서가 아닌 문화의 개념으로서 계속 이어지려면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동해안별신굿은 전수회는 있지만 전수관은 없어요.

**전수회는 누가 운영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부터 우리 남동생이 사무장이 되었어요. 사무차장은 둘째 언니 양아들이 하고 있고요. 그 둘이 주동이 되어서 하는데 둘 다 고생 하지요.

**전수관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땅을 내와야 지어 준대네요. 그런데 대부분 알다시피 각자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땅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땅이 없으면 전수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려면 시나 군에서 땅도 내어줘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군수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여러 가지 도와주겠다는 말을 계속 들어도 그 이후로는 변하는 게 없어요. '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계속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후대가 끊기는 순간 모든 명맥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도 있는 건데요. 전수관 말고도 많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죠.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너무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좋은 이야기 잘 담아서 책으로 만들어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 연보

- 1965년 부산 충무동에서 출생
- 1977년 본격적으로 무당의 길로 들어섬
- 1981년 처음으로 소리 완판
- 1985년 부친 김석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 2005년 부친 김석출 별세
- 2006년 국가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지정
- 2014년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3호 부산기장오구굿 지정

## 참고 자료

- 스포츠경향, "동해안별신굿보존회, 고 김석출 선생 10주기 추모 오구굿 연다", 2016년 8월 22일
- 문화일보, "김석출의 음악 언어 표현하고 싶었다", 2010년 8월 30일
- 영화 <땡큐,마스터 김> (감독-엠마 프란츠, 출연-사이먼 바커, 김동원, 배일동, 김석출 등), 2008

# 마을 문화와 전통이 뒤엉키는 격변의 시기를 온몸으로 맞이하다



배재적 (영신제 보존회장)

## 들어가며

창리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자그마한 어촌 마을이다. 창리 주민들은 그리 풍족하진 않지만 그리 부족하지도 않은, 인심 넉넉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400년 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풍어제가 있다. '영신제'라는 이름의 이 풍어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먼 바다로 배를 끌고 나가는 이들의 평안을 기원하며 진행되는 대표적인 축제이다.

영신제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시는 임경업 장군은 조선 중기 혹은 말에 활동하였으며,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를 처음 발견했다고 하여 조기어업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바다와 함께 늘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바닷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수호신과 다름없는 더욱 특별한 존재다.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창리의 풍어제인 '영신제'는 마을의 상당과 하당 사이를 오가며 진행되는데, 이런 영신제도 빠른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다. 특히 '농토 확장'을 명분으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간척사업이 1983년<sup>(24)</sup>에 마무리된 이후 마을의 많은 것들과 함께 영신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마을의 지형, 특징, 주민들의 생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간척사업으로 창리 주민들은 생계의 터전이었던 바다를 잃고 영신제의 행사 규모도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으며 영신제를 모시던 상당이 사라지기도 했다.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창리 주민들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마을의 전통이자 문화인 영신제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배재적 영신제 보존회장은 1953년 이곳 서산에서 태어났다. 5대째 서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와의 만남은 충남 창리 영신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4) 이 간척사업은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8년부터 추진되어 제5공화국 시기인 1983년에 완공되었다.

# 01

## 5대째 서산에 뿌리내린 집안에서 태어나다

**회장님, 우선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창리 영신제 보존회장을 맡고 있는 배재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1953년 4월 5일 여기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로 68세가 되었죠. 저희 마을이 집성촌인데, 저희 집안도 대대로 5대째 서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서산에 있다가 이후로 객지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다 돌아와서 어촌계장도 맡고 서산수협 이사로도 활동하는 등 마을 일에 좀 신경을 써왔고요, 지금은 작은 횃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자란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우선 집안이 꽤 여유로웠습니다. 돈 걱정은 거의 하지 않고 지냈어요. 친구들보다 늘 좀 더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으며 성장했습니다. 돈도 잘 썼고요. 한 지역에서 5대째 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지역에서 인정을 좀 받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을 텐데, 집안 어른들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렇게 풍족했나요?**

어렸을 적 어렵듯이 증조할아버지를 뵈는 적 있는데 당시 돛단배를 가지고 서해에서 조기를 잡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도 간척사업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열심히 뒷바라지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30대에 돌아가셨고, 이후 할머니가 홀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 부친은 어선업을 꽤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 1983년 간척사업이 벌어지면서 사업이 힘들어졌고 결국, 부친도 어선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져서 접으셨죠.

**집안 어른들이 모두 바다와 관련된 사업으로 부를 일구셨군요. 회장님은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 모두 서산에서 성장하셨나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때부터 한참 떨어진 곳으로 진학해 하숙했어요. 지금 중학생들은 아이들처럼 여겨지지만 그땐 다들 중학생 때부터 하숙을 하곤 했지요. 이후로 고등학교는 서울 한양고에 진학하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래 방황했죠.



직접 운영하는 횃집에서 인터뷰 중인 배재적 회장

서울 용문고를 다니다가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학업에 소홀했고 이후 인천 선인고등학교로 가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시절 장래희망은 무엇이었는지요?**

아버지가 어선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막연하게나마 미국 외항선을 타는 마도로스<sup>(25)</sup>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해양대학교 진학도 꿈꿨는데 당시 성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결국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꼭 해양대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때 제대로 학교 다니고 공부했으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늘 마음 한 켠에 있습니다.

**네, 그럼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긴 했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후 방향이 계속 이어졌죠.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좀처럼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대 내내 친구들과 술이나 마시며 보낸 것 같아요. 역시 돌아보면 아쉬운 마음이 크죠. 그러다 방위로 군에 입대했죠.

(25) 네덜란드어 'matroos'에서 유래한 말로 주로 외항선을 타는 선원을 이르는 말이다.

### 외람되지만 큰 어려움 없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성장하다보니 절박함 같은 게 부족했던 걸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자라다보니 뭘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막연하기만 했지 의지가 그렇게 굳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어렸을 적부터 어렵게 학교 다니고 돈도 벌어야 했다면 훨씬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되죠. 집안에 여유가 있다 보니 오히려 그게 저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 부친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특성상 늘 많은 사람을 상대했고 그래서 사교성도 좋았고요. 뱃사람이라 거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자한 편이셨죠. 부모님 돌아가신 지는 약 10년 정도 되는데 그래도 다른 이들에 비하면 함께 보낸 시간이 꽤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어머니는 어떠셨나요?

아버지가 어선업을 하다 보니, 할머니와 어머니는 늘 아버지 뒷바라지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목포항, 여수항 등 여러 항구를 돌아다니며 일하시느라 집안일에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할머니와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특히 어머니에게 많은 귀여움을 받았어요. 저를 항상 뒷바라지해주셨고, 다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나 취업 후 분가했을 때도 항상 음식을 챙겨주셨습니다. 학창시절 하숙생활을 하다가 휴일에 집에 오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차려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 중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 부모님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집안 대대로 두 분 다 서산에 살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도 대대로 서산에서 사셨고, 어머니는 서산과 가까운 안면도에서 나고 자란 분이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가 간척사업에 참여해 서산 근처 여러 지역에 농토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 집안과 인연이 닿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을 중재해서 두 분이 결혼한 거죠.

어머니 집안도 비교적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외삼촌 네 분 모두 대학에 갔습니다. 그중 몇몇 분은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고, 그 탓에 외갓집에 문제가 종종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만 해도 유신 독재

정권하에 있었고, 가족 중 한 명만 잡혀가도 연좌제로 집안 모두가 따가운 시선을 받았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외가 쪽이 항상 불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 02

### 금융기관에서 첫 사회생활, 어촌계장과 영신제 보존회장

#### 성인이 되고 첫 사회생활은 언제 시작하셨고 어떠셨는지요?

20대 후반에 결혼하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받긴 했지만, 계속 의존할 수는 없으니 뭘 하면서 먹고 살지 고민이 많았죠. 그냥 공장에 가서 일할까 생각도 했지만 당시 서산에는 이렇다 할 공장도 없어 무척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금융기관 일을 권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은행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서산에는 딱 한 군데 있었죠. 그렇게 29살에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래에 비해 상당히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첫 직장인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배재적 회장

### 아내분과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고모님이 중매를 해주셨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나기로 했을 때, 저랑 무척 친한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다며 저 대신 아내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비밀비재했습니다. 그만큼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각별한 사이였던 거죠. 아내를 먼저 만나 본 친구가 괜찮은 사람이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 아내분과 결혼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교제를 이어나가다 결혼을 결심했는데 장모님이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흔쾌히 승낙했는데, 알고 보니 장인어른과 저희 아버지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당시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시아버지가 무척 훌륭한 분이라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워낙 반대하셔서 아내는 저 말고도 중매를 여러 번 봤다고 해요. 그러다 장인어른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 4월 5일에 결혼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날이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전통혼례로 식을 올리고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갔죠. 하지만 결혼 이후에는 제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집안일에 많이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 내친 김에 자제분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기분이 묘했던 기억이 납니다. 큰애를 임신했을 때, 당시 아내와 본가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바나나가 먹고 싶다고 해요. 지금은 흔하지만, 그때만 해도 바나나가 무척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시절이었는데 모두 드리기가 많이 부담스러워서 아내 것만 몰래 사와서 들킬까 조심하며 바나나 가져다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지금은 산업기능요원을 마치고 멀지 않은 곳에서 양식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해에 딸이 태어났고요. 제가 당직을 서고 있는데 집에 있던 아내의 진통이 시작됐고 마침 우리 집에 세 들어 지내고 있던 중학교 동창이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주었습니다.



배재적 회장 부부의 결혼식 사진

그렇게 무사히 태어난 딸도 대학 졸업하고 근처 직장에서 일하다가 결혼해서 지금은 아기도 낳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 첫 직장인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맡으셨나요?

채권관리였습니다. 보통 채권관리 하는 사람은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겼을 거라는 편견이 많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서 스티커 붙이고, 돈 갚으라고 협박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서류 다듬고 하는 행정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업무 자체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 점검하고 찾아가는 일이었고 때로는 값비싼 물건을 압류하고, 간혹 법원에 갈 일도 종종 있었죠. 다만 저의 경우는, 제때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도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하는데 애를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담당하는 고객들은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돈을 갚기 싫어서 안 갚는 건 아닐 테니, 또 각자만의 사정이 있을 테니 그런 걸 좀 감안하려고 했어요. 저는 비교적 풍족한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모두가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 서산이라는 도시가 크지는 않다보니, 과거에 일하면서 맺은 인연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평생을 여기서 살아오다보니, 당시 제가 도와줬던 분들을 지금도 만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편하게 술 한잔하다 보면 당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하죠. 당시의 고마움을 직접 이야기하진 않지만 표정이나 눈빛, 말투만 보더라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기분이라 좋습니다.

### 그렇게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셨나요?

점점 일에 익숙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비슷해지다 보니 더 이상 배울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마다 사람 만나 술 먹는 게 일상이 되었죠.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 저를 만나려는 사람도 부쩍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일상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제가 갈 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다짐했습니다.

### 큰 고민은 없으셨나요?

그렇게 큰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생활은 대부분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오히려 회사 월급으로는 사람들 만나고, 가족들과 여행 다니거나 맛있는 걸 먹는 데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어 월급을 못 받으면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직장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웠겠죠.

### 그럼 직장을 나온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일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 나름은 평판을 쌓다 보니 좋은 기회로 어촌계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만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했기에 새로 가두리 양식업도 시작했습니다. 이미 40대 중반쯤 나이를 먹으니 새로 시작하는데 두려움도 있었죠. 바다에서 나고 자랐지만, 저에겐 모든 일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쉽지 않더라고요. 꽤 큰 규모의 양식장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10년 정도 버티다가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 03

### 영신제의 과거와 현재

#### 영신제 보존회장을 맡게 된 것도 그 무렵인가요?

맞습니다. 고향에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신제 보존회장직을 제안 받았어요. 영신제는 마을의 가장 큰 연중행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점점 시들해지고 규모도 작아지고 있던 참이었죠. 누군가 책임지고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보존회장직을 맡을 사람이 마땅히 없기도 했지만 제가 영신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어떻게 맡게 된 겁니다.

#### 영신제<sup>영신제</sup>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희 마을 창리는 서해를 접하고 있고 건너편에 안면도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농업과 어업을 함께 해오고 있지만, 주 수입원은 아무래도 어업이죠. 바닷가를 끼고 있는 여느 마을이 그렇듯, 이곳도 고기를 많이 잡고 무탈하기를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오래전부터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약 400년 정도 되는데 그 전통이 발전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죠. 다른 어촌마을에도 영신제가 있지만 저희 마을 창리 영신제가 특히 유명합니다. ‘영신제’라는 단어는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왔는데, ‘영<sup>靈</sup>’은 말 그대로 영혼, 혼령을 뜻하는 한자이고 ‘신<sup>神</sup>’도 완벽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라는 뜻이니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신제 보존회장을 맡은 이후 매년 초 영신제를 준비해 진행하고 있다.

#### 400년이면 상당히 오랜 역사인데요.

문헌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대체로 350~400년 정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리 영신제는 특히 임경업 장군<sup>(26)</sup>을 모시면서 시작됐거든요. 임경업 장군은 조선 중기에 활동하셨잖아요. 당시 임경업 장군이 연평도에서 처음 조기를 발견했고, 그 이후로 서해안에서 조기를 잡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조기잡이가 특히 큰 수입원이 되었던 서해안에서는 임경업 장군을 많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 마을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한 회장님에게는 익숙한 전통이기도 하겠네요.

그럼요. 영신제를 처음 본 게 6~7살 때쯤입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만 바라봤죠. 그러다 국민학교 입학할 때쯤 매년 마을에서 하는 행사라는 걸 인식했습니다. 영신제의 의미나 목적은 잘 몰랐지만, 호기심에 참여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먼발치서 구경만 할 뿐 영신당까지 올라가보진 못했어요. 아버지가 영신제에 참여하는 모습은 매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어선업을 하는 분이었으니 누구보다 성실하게 영신제에 참여하

(26) 조선 인조 때의 명장<sup>1594-1646</sup>으로 이괄의 난에 공을 세우고, 병자호란 때 중국 명나라와 합세하여 청나라를 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자점의 모함으로 죽었다. 명나라로 향하던 중 연평도에서 가시나무를 이용해 처음으로 조기를 잡은 이후 서해안에서는 ‘조기잡이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셨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배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만큼, 아버지의 삶에서 영신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습니다.

### 과거 영신제를 떠올려보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적엔 배도 많았고 선주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깃대도 많았죠. 각각 깃대를 들고 영신당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지점까지 깃발을 들고 가다가 영신당까지 약 50미터 남겨 두고 열심히 달려가곤 했습니다. 다들 깃발을 들고 우르르 경쟁하듯 뛰어가던 게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척 박력 있는 모습이라 심장이 뛰죠. 그 모습이 축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산에 도착하면 다시 엄숙하게 제를 지내고요.

### 영신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찬찬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당주<sup>당주</sup>를 지정합니다. 주로 오랫동안 마을을 지키면서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분으로 선정됩니다. 예전에는 해마다 바뀌었지만, 지금은 한 분을 정해놓고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당주는 일주일 전부터 깨끗한 생활을 의식적으로 해야 하죠. 상가<sup>상가</sup>도 못 가고 부정한 사람과 어울려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음력 정월 초이튿날 밤에 당주만 참석해서 산신제를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상당 앞에서 작은 술에 메밥을 직접 지어 제를 지냈어요. 제사를 마치면 그걸 먹고 자정 지나 하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정월 초사흘날 오후 두세 시 정도가 되면 당주 집에서 영신제를 시작합니다. 이때 각 배의 깃대를 당주 집 앞에 가져와 세우고, 제를 마치고 술과 고기를 음복하고 나면 함께 영신당으로 향하죠. 선주와 선장, 선원, 풍물패 등이 각각 깃발 하나씩 들고 해변을 거쳐 영신당 쪽으로 올라갑니다. 들어가는 길이 꽤 좁은 편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영신제의 하이라이트로 이어지는 거죠.

### 하이라이트요? 계속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후로 밤이 새도록 당곳과 배치기를 번갈아 가며 영신제를 진행합니다. 원래 배치기는 조기잡이 나가서 만선으로 돌아올 때 붕기를 배에 꽂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조용히 구경하던 주민들도 굿이 끝나면 배치기를 하며 함께 흥을 돋우고 이렇게 밤새 반복되는 굿거리와 배치기는 영신제의 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만 추운 날씨에는 밤을 새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자연스레 술도 마시곤 했죠. 또 당연히 술 마시며 밤을 꼬박 새우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았던 기억입니다. 술에 취해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죠. 최근에는 밤을 꼬박 새우지는 않습니다.

### 그럴 때, 무당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영신제는 당곳의 형태를 하고 있어 무당이 굿을 주재하죠. 조기가 한창 많이 잡히고 행사 규모도 컸던 시절엔 다른 지역에서 무녀를 불러오기도 했어요. 돈을 많이 주고 큰 무당을 부르는 거죠. 최근에는 저희 지역에 계신 분이 굿을 진행하고 있고요.

### 마을 전체의 행사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영신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시는지요?

예전에는 소 한 마리 잡아야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죠. 제사 비용은 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씩 거두고 배 가진 선주는 조금 더 내는 식으로 부담했어요. 영신제 한 번에 천만 원 넘는 비용이 듭니다. 요즘에는 시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어촌계에서 모아둔 돈을 씁니다. 행사 준비는 부녀회와 함께 하고요. 조직적으로 되어 있고 역할 분담도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고 영신제가 다가오면 그때에 맞춰 준비합니다.

### 비용 외에도 영신제 준비하시는데 부담이 되는 점은 없나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사인 만큼, 그 시기가 다가오면 부담감이 당연히 점점 커지죠. 혹시나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서산에 찾아오는 손님이 뜰 끊기면, 우리가 준비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다만 최대한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행사를 잘 치르면 마을 전체가 한 해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성의를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월 초가 한 해의 시작이니 상징적이긴 하지만, 왜 영신제를 연중 가장 추울 때 지내는지 문득 궁금합니다.

영신제는 음력 1월 초에 진행하다 보니 날씨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년 중 가장 추울 때라 저희도 날씨 걱정을 가장 많이 하죠. 따로 전해들은 건 없지만 제 생각엔 어부들이 가장 한가한 시기라서 이때 지내는 게 아닐까 합니다. 대부분의 축제가 생업이 바쁘지 않을 때 진행되잖아요? 영신제도 아마 비슷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대부분의 축제에는 반드시 금기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영신제에도 그런 게 있는지요.?

당산의 나무를 베면 벌 받는다는 금기가 있었죠. 그래서 나무 이파리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 이미 떨어진 나뭇잎이나 가지, 돌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대자연에 대한 어떤 신심<sup>신심</sup>같은 게 그런 금기로 표현된 것일 텐데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가지도 치고 경우에 따라 나무도 절단하고 있지요.

# 04

## 간척사업과 마을의 변화

그런 말씀을 하시니 현대사회의 산업화가 많은 전통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기로 서산에서 진행된 간척사업이 마을에 큰 타격을 주었다던데요.

간척사업 전까지 서산은 순수한 어촌마을이었습니다.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게 일상이었죠. 어업으로 생계유지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렇게 필사적이진 않았습니니다. 잡은 고기를 팔 수 있으면 팔고, 아니면 이웃끼리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족이 풍부했고요. 큰돈을 벌거나 풍족하게 살진 못했어도, 다들 큰 부족함 없이 그런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산은 인심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아늑한 마을이었죠.

그러다가 대규모 간척사업이 시작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척사업은 1960년대부터 시작한 걸로 압니다. 농토를 확장해서 전 국민이 쌀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였습니니다만, 지역마다 환경이나 조건이 완전히 달라서 일관된 정책으로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산에서도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간척사업이 시작되어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간 1983년에 완공됐어요. 그때까지 간척사업은 보통 국가에서 진행했는데, 서산의 간척사업은 민간기업인 현대가 맡았습니다. 중동 건설 붐이 서서히 식어가던 때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뛰어들 것이었겠죠. 그래서 서산 간척사업에는 ‘국내 최초 민간 기업 주도’라는 타이틀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척사업은 마을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었던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간척사업 마무리되고 새로운 농지가 만들어졌고요. 농지가 새롭게 확보되면서 수확 후 남은 곡물을 먹겠다고 철새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몰려든 철새가 서산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기도 했죠. 지금도 서산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고,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머지 않은 곳에 버드랜드도 만들어 운영 중이에요.

그럼 서산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간척사업으로 서산 주민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어획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잘 잡히던 물고기들이 간척사업 이후 종적을

감췄어요. 특히 사업 직후에는 아직 땅에 염분이 있어 농사도 못 지었습니다. 원래 해오던 어업도 못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으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무려 5년이었습니다.

바다가 주된 삶의 터전이었을 텐데 농지 확보가 어떤 도움이 될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죠. 염분기가 빠진 후 간신히 농사를 짓게 됐을 때도, 이전의 어업과 비교하면 수입이 턱없이 낮았어요. 예를 들어 배 한 번 타고 나가서 3시간만 물고기 잡아도 10~20만 원은 충분히 벌 수 있었습니다. 반면 농사를 지으면 씨 뿌리고 수확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마저도 별로 수익이 크지 않아요. 물론 농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마을마다 환경이나 조건이 크게 다르잖아요. 농업 장려한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환경 문제도 생겼습니다. 바닷물의 흐름이 끊기다 보니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 거예요. 간척사업이 여러모로 주민들 일상을 망가뜨렸죠.

아쉽네요. 그렇게 마을에 큰 피해를 준 사업인데 진행과정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은 없었나요?

당시는 유신독재 시절이라 입도 뽕긋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 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엄두도 내지 못했죠. 당시 제가 어촌 계장이었는데, 주민들 일상이 망가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저희 마을의 큰 위기였어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주민들도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랬겠네요. 남아있는 마을 주민들도 생계 문제가 막막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했나요?

간척사업 마무리될 때쯤, 마을 주민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양식업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양식업도 하나의 큰 사업이 되었고 소비자들 인식도 많이 나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자연산이 풍부해서 양식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대체어업으로 양식업을



현재 남아있는 영신당 하당의 내부와 외부 모습

선택한 거죠. 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가두리양식을 시작했습니다. 양식업 초창기라 어려운 점이 많았죠. 조용히 잘살고 있던 마을이 그렇게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은 관광 산업 같은 걸 병행하면서 예전에 비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삶의 터전이 통째로 바뀌며 먹고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분들의 모습이 어렵듯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분들도 절반 이상이 돌아가셨죠.

### 간척사업이 영신제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데요.

영신제 자체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바다에서 사고 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참여도도 높죠. 간척사업 전에는 마을 주민 2/3 정도가 어업에 종사했기에 행사 규모도 컸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무당을 따로 모셔야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간척사업 이후 어업을 그만두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관심이 급격히 시들해졌습니다. 그나마 어업에 종사한다는 사람들도 예전처럼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양식이라는 대체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니 더욱 그렇게 되었죠. 자연스레 과거 풍습도 많이 줄어들고 또 사라졌습니다. 상당과 하당을 오가는 영신제는 상당도 그때 사라진 후로 이제 하당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 상당도 그때 사라진 건가요?

네, 원래 산신제를 지내는 제장은 마을 서북쪽에 있는 당산에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마을로 들어오는 좋지 않은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산 중앙에 발이 한 개 부러진 철마상이 있었어요. 원래 바다 건너에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고 이에 놀란 말이 다리로 그 호랑이를 쳤는데 그 때문에 말 다리로 절단되어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죠. 아무튼 1983년 간척사업과 함께 상당이 사라지고, 그 쇠말도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위섬도 사라졌고요.

### 하당은 괜찮습니까?

네, 하당은 지금 우리가 영신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북동쪽 해변 언덕 위 당산에 있습니다. 기와집으로 되어 있고, 주위에는 담이 둘러져 있고요. 지금의 당집은 1999년에 서산시가 지원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집 내부 정면에 임경업 장군 부부신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임경업 장군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바닷가와 접한 여러 마을에서 신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임경업 장군은 조기의 신·어업의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마을에서 조기가 많이 잡힐 때는 각 어선에서도 제를 지내며 모셨다고 해요. 임경업 장군 무신도는 1970대에 그려진 것이고요. 그러다 무신도를 잃어버린 후 2000년대 중반에 충렬사에 있는 임경업 장군의 사우에 모셔 둔 표준영정을 모사해 다시금 그려 모시고 있습니다.

무신도 좌우로 바다의 신이라 불리는 '수당'과 땅의 신이라 불리는 '지토당'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호구별상을 뜻하는 '손님신위<sup>神位</sup>'와 잠귀신을 뜻하는 '수배당'이 봉안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장군신위, 부인신위라고 묵서된 위패가 봉안<sup>奉安</sup>되어 있습니다.

## 04

### 영신제, 그리고 서산의 미래

#### 회장님,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개인적인 일상을 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횃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요즘 일상은 어떠신가요?

말씀드렸던 그 간척사업으로 서산에 땅 3,000평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불법으로 운영했어요. 그러다 여기저기서 고발하니까 결국 강제 철거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집회가 있기도 했죠. 원래 간척지는 충청남도 땅인데, 서산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 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용도를 변경했어요. 당시 제가 어촌 계장이었고,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만큼 모범을 보여야 했기에 횃집 운영을 시작했죠. 물론 생계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횃집 운영이 올해로 벌써 13년 정도 됐네요.

요즘엔 보통 새벽 5시쯤 일어나 5시 반쯤 가게 나와 오픈 준비를 하고 끝나면 집 근처를 한 시간쯤 걷습니다. 다시 9시쯤 가게로 나오면 동네 주민들이 매일 찾아오죠. 수다도 떨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마을이 크지 않다 보니 마을 사람들의 근황이나 재미난 일, 자식 걱정 등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오갑니다. 아내가 회를 못 떠서,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인터뷰 중인 배재적 회장. 자료들을 보여주며 창리 영신제의 역사를 설명 중이다.

달려가서 회도 뜨고 손님 없으면 일찍 문 닫고요. 큰 욕심 없이 쉬엄쉬엄 지냅니다.

### 그래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젊은 날 여유 있게 지내다 보니 제대로 저금을 못 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마을 사람들과 단체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함께 떠나면 좋은 추억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게 소박한 바람입니다.

### 영신제 보존회장이시니 영신제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신제가 얼마나 보존될 수 있을까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사히 이어지고 있지만, 마을에 젊은 세대가 많이 없다 보니 잘 계승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행사 규모가 작아지고, 사람들 관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존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 영신제 보존에 온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정부나 여러 단체, 또 민간에서도 영신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서산 창리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백 년을 이어져온 우리의 대표적인 민속 문화인데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재 지정 등의 권위가 생긴다면 사람들 관심도 다시금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긴 시간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신제의 미래, 또 이 마을 창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년 넘게 보존회장을 해오면서, 영신제를 잘 진행하고 또 유지해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중요한 행사지만 제가 직접 준비하다 보니 더욱 그래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저 역시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제 나이는 이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조금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선조부터 줄곧 지켜온 이 땅을 저 역시 굳게 지켜 나가면서 마을에 도움 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업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마을이 나아갈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가 관광 사업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새로운 특산품을 만들고 관광지를 홍보한다면 마을이 좀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 회장님, 끝으로 한평생 바다에서 살아오셨는데 회장님께 바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구 면적의 2/3가 바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다가 농토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바다가 삶의 터전이었던 우리 마을은 간척사업 이후로 하루 아침에

일상이 망가지고 생계수단을 잃어야만 했어요. 이후로는 마을 주민들에게 바다의 의미가 달라졌고요. 그럼에도 바다는 여전히,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황금으로서 제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저희 집안을 먹여 살려준 곳이기도 하고요.

### 긴 시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날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금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의미 있는 작업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 영신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영신제 보존회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하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을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연보

- 1953년 충남 서산 창리에서 출생
- 1970년 서울 용문고등학교 입학
- 1980년 결혼
- 1982년 상호신용금고 입사
- 2008년 횃집 운영 시작
- 2000년 창리 영신제 보존회장·어촌계장 맡음
- 2000년 가두리 양식장 운영
- 2000년 국제로타리 3620지구 보라매 로타리 클럽 초대, 1, 2, 3대 회장<sup>서산, 태안 지역대표</sup>
- 2010년 국회의원 보좌관

## 참고 자료

-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 지역 N문화 (<https://www.nculture.org>)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
- 한국일보, “서산 역간척 사업”, 2019년 6월 18일
- 프리미엄 조선, “서산 간척사업의 신화”, 2015년 10월 21일
- 홍태한, 「어촌의 변화에 따른 마을신앙의 변모」, 『도서문화3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8
- 홍태한, 「서해안 풍어제와 임경업 전설」, 『전설과 지역문화』, 민속원, 2002
- 주강현, 「천수만 창리 마을굿」, 『충남의 장승·숫대 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1

# 소리에 발이 묶인 거문도 뱃노래꾼의 회한과 애정

정경용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거문도 뱃노래 전수자)



## 들어가며

1947년 거문도에서 태어난 정경용 선생은 태어나기 전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홀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어머니는 새아버지를 만나 재가했고 밑으로 3명의 동생이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어린 나이에 다른 섬에서 몇 년간 머슴살이를 하는 등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노래를 곧잘 하는 새아버지 밑에서 어깨너머로 노래를 따라 했고, 섬에서 상이 나면 상여 소리가 듣고 싶어 상갓집에 찾아갈 정도로 소리에 심취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버텼다. 배 생활을 하면서는 거문도 뱃노래 선창꾼이었던 김창옥 선생과 함께 노래를 불렀던 경험이 있는데, 거문도 뱃노래가 전라남도 중요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기 전에 선생께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뒤를 이어 정경용 선생이 선창꾼으로 발탁되었으나 앞서 노래하던 선창꾼 김창옥 선생이 작고한 탓에 직접 노래를 배우지 못하고 녹음된 테이프로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며 소리를 익혔다.

말단 선원부터, 통신, 여객선, 환경미화원 등 섬에서 여러 직업을 거치는 동안 늘 소리와 함께 했고 거문도 뱃노래꾼으로 활동해왔으나, 오히려 바로 그 소리 때문에 친구들처럼 원양어선이나 외양선 등의 배를 타고 돈을 모으러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이 칠십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노래는 부를 때마다 항상 좋다고 말씀하시며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였다. 또한 정경용 선생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져 후계자를 양성해야 하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소리에는 연륜이 더해져야 하고 그럴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다며 큰 애정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감상선 암과 폐암 등으로 본인의 건강이 안 좋아졌고, 몇 년 전 2명의 후계자 중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일도 있어 앞으로 거문도 뱃노래의 명맥이 끊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그는 오늘도 거문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본다.

# 01

## 유복자로 태어난 恨, 새아버지로부터 받은 노래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거문도뱃노래 무형문화재 전수자 정경용이라고 합니다. 거문도는 동도와 서도로 나뉘어지는데, 저는 1947년에 서도에 있는 덕천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대대로 거문도에서 살아오셨나요? 선친께서도 노래를 하셨거나 거문도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셨는지요?**

우리 아버지는 일본 배 기관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잠시 쉬러 거문도에 왔다가 집에 초가지붕을 엮으려고 하셨대요. 옛날에는 초가지붕 엮으려면 짚이 있어야 했는데 섬에는 나락<sup>벼</sup>이 없으니 전남 장흥에 가서 짚을 사오기도 하고 아니면 산에 가서 남땀이<sup>역새</sup>라는 풀을 뿌리째 뽑아 엮어가지고 초가지붕을 덮었거든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려고 남땀이 구하려고 산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미끄러지셨다고 해요. 그날은 비도 오는 날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촌들이 급하게 가서 아버지를 배에 싣고 왔는데 그 와중에 돌아가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럼 모친께서 홀로 선생님 키우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가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제가 두 살쯤 되었을 때 재가를 하셨죠. 그렇게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후로 제 밑으로 동생 셋을 더 낳으셨어요. 형편이 워낙 풍족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혼 전에 만들었던 집도 팔았고 남의 집 셋방 얻어서 그렇게 어렵게 많이 살다가 너무 힘들니까 재혼하신 거죠. 동생들과는 아버지는 달라도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라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지금 여기 거문도에서 살고 있는 동생도 있고, 부산에 있는 동생도 있고요.

**모친은 아직 살아 계십니까?**

3년 전인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흔넷까지 사셨으니 오래 사신 편이죠. 올해 3년 상을 치렀습니다. 새아버지는 그보다 앞서 1985년도에 돌아가셨고요.



거문도뱃노래보존회 사무실에서 뱃노래 기록사진을 배경으로 인터뷰 중인 정경용 선생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학창시절이라든지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을 겪었습니다.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머니, 아버지 가슴은 찢어지셨겠죠. 아침에 학교 갈 때 고구마 몇 개쯤 먹고 갔다가 당시에는 12시가 되면 점심 먹으러 집으로 보냈는데, 저는 집에 가봐야 먹을 게 당연히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집으로 오는 척하다가 옆으로 새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 시간 때우다 오후 수업 듣고 돌아오는, 뭐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다들 그 시절 비슷하긴 했겠지만 참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환경이 곤란하다보니까 공부도 잘 안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도 국민학교 겨우 마쳤어요. 새아버지께서 중학교를 보내주셔야 하는데 집이 너무 궁핍하니까 국민학교 마치자마자 남의 집에 일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3년 지내게 됐죠. 선죽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아는

할아버지 집에 가서 나무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한 3년 있었는데 타지에서 어린 나이에 남의집살이를 하려니까 부모님도 보고 싶고 형제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 도움을 받거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습니까?

고모님이 계셨는데, 제가 배가 고프면 그 고모님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죽도 잘 못 먹는데, 고모 집에서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보리밥이나마 굶지 않고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 그 옛날 낫밥그릇이 있는데, 밥을 이렇게 가득 올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허겁지겁 먹곤 했는데 희한하게 그 밥이란 게 잠시잠깐 먹고 나면 어디로 먹었는지 금방 배가 꺼져버려요. 그러면 우리 고모가 부엌에 가서 그 밥하는 솜에 눌러 붙어있던 누룽지를 또 끓여다 주셨어요. 그렇게 먹고 배가 불러놓으니까, 집으로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저는 밥 먹었습니다.'하고 저는 집에서는 안 먹었죠. 그러면 저 대신 다른 식구가 먹을 게 조금이나마 많아지니까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식들은 많은데 못 입히고, 못 먹인 그것이 한이 돼서 맨날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 친구들하고 사이는 좋았습니까? 가난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는 등의 일은 없었는지요?

그런 건 없었어요. 당시는 뭐 다들 없이 살았으니까요. 그냥 밥 안 굶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었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대나무 장대 가지고 빨락이나 솜뎅이 잡으러 같이 다니고, 산에 열매 따먹는 것도 친구들과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선생님들이 교단 위에다 올려놓고 노래도 시키고, 운동회 때는 제가 단장으로 깃발 들고 그랬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친구들과하고는 잘 지냈습니다.



정경용 선생과의 인터뷰 모습

###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잘 하셨나 보네요. 가족 중에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이 있으셨나요?

일찍 돌아가신 원래 아버지나 어머니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요. 저희 할머니가 조금 소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복을 빌면서 소리하는 그런 건 좀 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제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돌아가셔서 잘 모릅니다. 피에 그런 게 섞인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사실은 새아버지께서 소리를 잘하셨어요. 창도 조금 하셨는데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새아버지 노래 듣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새아버지 따라서 창도 흐물흐물 해봤고, 새아버지가 창을 하시면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 따라 불렀던 노래를 조금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절통곡'이라고 많이 불리던 노래였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노래)

### 확실히 직접 들어보니 실감이 나네요. 소리가 참 좋습니다.

새아버지 말고 다른 분들이 부르던 것 중에는 '사철가' 조금 들어봤고, '홍부전' 같은 것도 조금 들어봤는데 그냥 귀동냥했던 거지요. 사실 그런 것도 어렸을 때 누가 가르쳐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듣고만 해보려니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잘 될 리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라도 배우려니까 이제는 잘 안 돼요. 뭐든 흡수가 빠른 어릴 때 배워야 하는데 그때 제대로 누가 좀 가르쳐주고 또 배웠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 02

### 말단 선원에서 통선과 여객선까지 뱃생활을 하다

### 선죽도에서 일하다가 다시 거문도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거문도에 돌아와서는 배를 타기 시작했죠. 그때도 뭐 여전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열여덟이나 되었나? 아무튼 고등학교 다닐 나이쯤 되어서 배 생활을 시작했죠. 배에서도 제일 말단이고 어려서 선원들에게 밥 지어주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배에서 밥 지어주는 일하는 사람을 옛날에는 화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화장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8명 정도 타는 꽤 큰 배였는데 주로 병어랑 삼치를 잡는 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밥 지으려면 양동이에 물 길러 와서 배에다 붓고 싹고 그럴 때인데 잘못하면 오는 동안 물 다

옆질러서 반동이만 남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그렇게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물도 안 앞지르게 되고 밥도 곧잘 하게 되었죠.

###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작한 배 생활은 할 만하셨는지요?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하는데 뭐라도 해야지요.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녁에 나가서 고기 잡아서 아침에 들어오는 배 생활을 한 5~6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스무 살이 넘게 되고 그 중간에는 제 밑으로도 밥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저도 선원이 되었죠. 말하자면 1계급 특진했다고나 할까요? (웃음) 제가 그래도 일을 잘 하고 인사도 잘하고 하나씩 실수를 할 때도 어른들이 회를 열어주고 타일러주는 등 덕도 좀 보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밥 잘못했다, 국 잘못했다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선원이 되고 나서는 그 뒤로 참치 잡는 배도 탔고 갈치 잡는 어장도 좀 다녔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진 않았고 계속 어려웠죠. 옥수수가루나 밀가루 같은 걸로 저녁을 먹고 나서 노를 젓고 바다에 가서 갈치를 잡아왔어요. 당시에는 동력선은 얼마 없었고 배가 대부분이 무동력 선이었습니다. 배 한 척당 선원은 5명 정도였고요. 등대섬 밖으로 다니면서 여름에는 삼치를 잡고, 겨울에는 갈치 잡으러 다니면서 노를 많이 저었습니다.

### 선생님, 그럼 거의 쉬시지도 못했겠는데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그래도 제가 나이가 좀 차니까 누가 중매를 서줬어요. 그때 제가 스물여덟이었는데 서도 덕촌마을에서 중매로 집사람을 만났죠. 예쁜 처녀를 신부로 데려왔으면 잘 해주고 해야 했는데 지금은 머리도 희고 주름살도 많아졌는데 그동안 못해주기만 한 게 후회스럽고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에 나이가 일흔넷이고 아내하고는 다섯 살 차이니까 올해 집사람은 예순 아홉입니다.

### 그래도 사모님과 긴 세월 잘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많이 컸을 것 같고요.

그렇긴 합니다. 결혼하고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는데 개가 벌써 올해 마흔아홉이 됐으니까요. 그 뒤로 2년 간격으로 딸 둘을 낳았고 막내아들이 올해 마흔 셋입니다. 그렇게 2남 2녀 낳고 살아왔네요. 그사이에 저는 배도 타고 통선도 해보고, 여객선에서 매장도 했고 나중에는 환경미화원도 하는 등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먹여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 크니까 고등학교도 가야 하지, 둘은 또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만약에 아이들이 다 대학교 가겠다고 했으면 정말로 어려웠을 겁니다. 돈 버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마저도 노후자금이라고 겨우 모아놓은 1억 원도 나중에 큰아들 빚 갚느라고 다 써버리고 지금도 많이 쪼들리며 삽니다. 옛말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선다.'고 했는데 기댈 수 있는 할아버지나 부모들이라도 있어야 할테지만 그렇지 못하니 아이들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 잠깐 말씀하셨는데 통선, 여객선 매장, 그런 건 어떤 일을 말씀하신 건가요?

(건너편 섬을 가리키며)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통선이 있었어요. 노를 저어서 가는 나룻배였는데 학생들 20~30명 정도가 그걸로 통학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배였는데 그때 하고 있던 사람이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손님이 있어도 빨리 안 가주고 하나씩 마을에서 애를 먹고 있었죠. 그래서 그럼 제가 해보겠다고 하니 나이도 젊고 해보면 되겠다고 해서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젓는 노도 굉장히 크고 무거워서 3~4명 달라붙어서 노를 저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흔 살 조금 넘었을 때 엔진을 하나 사서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말 세상 편하더군요. 시간도 확 줄어서 30분 만에 가고 30분 만에 오고요. 한 8년 정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 03

### 젊은 나이에 맺어진 거문도 뱃노래와의 인연

#### 선생님, 그럼 거문도 뱃노래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그건 한 4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나룻배로 통선 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1980년쯤 되나? 서른 좀 넘어서 통선하고 있는데 당시 면장님이 한 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자네가 정경용이지?” 해서 “네, 맞습니다” 하나씩 원래 거문도 뱃노래로 유명하시던 김창옥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최웅기씨를 데리고 광주에 전라남도 대표로 공연 갔다가 소리를 못해서 그냥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웅기 씨는 쇠뿔라리를 말한 는 좀 쳐도 소리는 김창옥 선생님과 좀 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리할 때 그 양반 믿고 행사를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새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연으로 면장님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소리꾼을 찾느라 애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 그러다가 선생님을 찾은 거군요.

그런 셈이죠. 저보고 “자네가 소리를 잘 한다던데 한 번 해봤으면 좋겠네” 하시기에 돌아가신 김창옥 선생님과 같이 어장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를 몇 마디 들려드렸더니, 제가 바로 적격자라면서 같이 하자고 하셨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소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 삼십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지만 실제로 시작한 것으로만 따지면 스물한 살 정도로 봐야겠죠. 거문도 뱃노래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게 1972년인데 원래 소리하시던 김창옥 선생님은 무형문화재 지정 받기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작고하시기 전까지 김창옥 선생님이 광주도 가고, 전국 예술경연대회도 나가서 상쇠도 하면서 노래도 불렀거든요. 뒤에 다른 분이 대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제가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1968년부터 해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물 한 둘에 한창 잡치 잡으러 다닐 때 김창옥 선생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앞소리 하면 제가 뒷소리 맡고, 그런 식으로 해오면서 제자라고 해도 좋을 만한 인연을 맺게 된 거니까요.

### 선생님은 원래 노래를 잘하셨습니까? 어떻게 잘 하게 되셨는지요?

그냥 선천적인 것 같습니다. 타고 난 것 같아요. 사실 연습이나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타고난 게 아니면 누구한테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닌데 잘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창이든, 민요든 저는 담 넘어 들리는 소리 들으면서 혼자 흥얼거렸는데 그렇게 배운다는 게 타고난 게 아니면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배웠으면 더 잘 했을 것 같은 아쉬움도 있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누구 집에서 초상이 나면 소리를 해야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상여소리를 하는데 누구 집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여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소리가 좋아서 초상집 찾아가서 들곤 했습니다. 희한하게 그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 소리를 듣고 싶어서 상갓집에 찾아다닐 정도면 정말 타고 나신 거 맞네요.

그리고 크고 나서는 제가 직접 상여소리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까 지금까지 상여소리 하러 190군데 넘게 다녔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아이들도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껏 하세요, 아버지”하면서 우리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여소리 할 곳만 생기면 가려고 했는데 어떤 날은 같은 날 상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하나니까 둘 다 갈 수는 없고 난감할 때도 많았죠. 보통 제가 앞소리를 하고 청년들이 뒷소리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고나면 상주가 고맙다고 얼마 줍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받은 돈까지 다 청년들에게 주곤 했어요. 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청년들은 또 봉투에 20만 원 담아서 도로 제게 줍니다. 참 그런 정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형님이 가장 잘하시는데 가져가시라고 하면서 봉투를 머리에 꽂아주기도 하고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와 정경용 선생의 소리가 담긴 옛 자료들

### 상여소리도 그렇고 거의 독학으로 공부하신 것 같은데 소리 공부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거의 독학이죠. 그나마 제대로 배울 기회는 김창옥 선생님 살아계실 때였는데 너무 일찍 작고하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선생님의 노랫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들으면서 따라했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테이프 틀어놓고 따라 불렀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그 테이프들이 다 늘어나버렸습니다.

## 04

### 거문도 뱃노래와 함께한 삶을 돌아보다

### 오랜 세월 뱃노래를 해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1979년에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구 공설운동장에서 공연이 예정돼있었어요. 그래서 전날 미리 가게 되었죠. ‘술비소리’도 해야 되고, 뱃노래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최 측에서 ‘술비소리’ 가사를 좀 바꿔 불러달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기에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항상 부르던 가사가 자동으로 나오지 새로 부르려는 가사는 영 입에도 안 붙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회원들은 자는데 밤이 새도록 저 혼자 가사를 외우려고 애를

했습니다. 공연을 망치면 안 되니까요. 아마 밤을 꼬박 새면서 수백 번은 연습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애를 쓰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젊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겨우 입에 붙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연 시간이 되어 아침 일찍 연습 한 번 하려고 공설운동장 공연장에 도착했는데 무슨 일이 난 건지 관리인들이 오더니 연습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밤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공연은 취소되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한 달 후에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저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겨우 뱃노래도 부르고 공로상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공로상보다 더 높은 상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며 공로상을 주더군요. 아무튼 그런 일을 포함해서 광주는 뭐 수도 없이 다니며 공연했고 제주도도 그렇고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울릉도였어요.

### 울릉도요? 거기는 왜 꼭 가보고 싶었던 건가요?

거문도의 선친들이 옛날에 울릉도에 가서 미역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해나 다른 쪽에 가서 팔고, 쌀보리하고 바꿔 가져와서 우리가 먹고 살았죠. 울릉도 가는 할아버지들이 탔던 배가 무동력선인데 그러니까 돛을 달고 사람 힘과 바람 힘으로만 울릉도까지 가야 했던 겁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리게 마련이죠. 바람 있으면 가고 바람 없으면 닻 내려놓고 기다리고 하면서 그렇게 다니던 시절이에요. 돌아올 때 울릉도 나무를 가져와서 그걸로 집을 지어서 사는 할아버지들도 계셨죠. 지금도 저 서도에 가면 울릉도 나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집을 개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울릉도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내다버린 일도 허다하지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거문도가 울릉도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옛날부터 왕래가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거문도 할아버지가 울릉도 처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게 된 분도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울릉도에 있는 어떤 박물관에서 여기에 있는 울릉도 나무를 한 번 보겠다고 거문도까지 왔던 일이 있었고 와서 보고 가면서 언젠가는 한 번 울릉도에 와주십사 했던 거죠.

###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한 번 다녀오셨나요?

그게 참 희한하게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울릉도 한 번 다녀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중에 재산은 별로 없으니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못가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 2년쯤 전에 울릉도 쪽에서 초청을 해주셨죠. 경비를 포함해서 모든 걸 부담할 테니 한 번 와달라고 해서 오래 버르다가 겨우 2년 전에 한 번 다녀왔네요. 스무 명 정도가 가서 거문도뱃노래 공연을 하고 왔는데 거 참

먼 길이긴 하더라고요. 배 타고 육지로 나가서, 거기서 포항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여객선을 타고 울릉도를 가는데 그 거리도 여수에서 거문도 오는 것보다 훨씬 멀고요.

### 또 다른 추억도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1995년인가,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저희를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가지는 못하고 약 7명 정도가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국립국악원 단원들과 우리 뱃노래 일곱 사람하고 한 일주일 연습을 했습니다. 자기네들 쓰는 악기 다 쓰고, 무대용 배도 하나 새로 만들고요. 그때 김영애 소리꾼하고 장사의 소리꾼이랑 같은 무대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큰 무대에 서려니까 상당히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바짝 긴장해서 떨고 있는데 장사의 씨가 대기실에 오더니 소주 두 병인가를 가져와서 한 잔씩 따라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대에 맨날 서도 떨린다고, 한 잔 드시고 하면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로서는 그런 방식의 무대에서 공연해보는 것도 처음이어서 상당히 떨었습니다. 그 사람들 악기에 맞춰서 소리를 한다는 건 생전 안 해봤던 방식이었거든요. 우리 소리는 바다 위에서 일하면서 하는 소리라서 어떤 틀로 맞추기가 어렵기도 했고요. 그런 걸 일주일 연습했다고 딱딱 맞추기도 어렵고, 어느 장단에 어떻게 소리를 맞춰서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소주 한 잔이 큰 힘이 되어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고마운 기억도 나네요.

### 거문도 뱃노래 전수자로 활동해온 것이 마냥 좋지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섬에서 태어나서 배도 타고, 노래도 부르면서 평생 바다와 함께 하셨는데 좀 지겹거나 여기 말고 '징하다.'고 느껴질 때는 없으셨나요?

왜 없었겠습니까. 뱃노래 소리꾼 선택한 걸 한때는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보유자가 되면 아플 때 헬리콥터가 와서 싣고 갈 것 아니냐는 말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 좋아하는 소리 실컷 하면서 인정도 좀 받고 하겠구나, 솔직히 기대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서른 될 때부터 노래를 했는데 그마저도 몇 년 동안은 노래를 배워가면서 무보수로 했어요. 당시 몇 만 원씩 제 앞으로 돈이 나왔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죠. 알고 보니까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가로채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화를 내니까 나중에야 다시 돈을 내줬던 적도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조차 아쉬울 만큼 경제적으로도 별 도움이 안됐어요. 기능보유자가 된 건 2008년이니 최근 십여 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문도 뱃노래가 아니었다면 제가 원양어선이나 외양선이라도 타고 나가 돈도 좀 벌고 집안도 건사했을 텐데 돌아보면 그런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발 잘라 먹은 문어마냥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배도 못타고 외국도

못가고 섬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 고생만 많았지요. 그나마 기능보유자 되고 나서부터는 한 달에 80~90만 원 정도가 제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밑으로 회원이 25~30명이 되는데 그분들은 거의 다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막걸리 값이라도 하라고 제가 받는 돈에서 30%씩 떼어서 보존회에 주고 있죠.

## 05

### 노래에 발 묶여도, 부를 때마다 더 좋아지는 뱃노래

#### 말씀하신 회원들은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는 분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원들은 안 배우고 후계자들한테만 전수합니다. 제 후계자가 두 사람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한 2, 3년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나이가 한 60정도 밖에 안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남은 게 지금 저 이강배 후계자님입니다. 제가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럽게 소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강배 후계자님이 대신 하게 됩니다. 아픈 것을 누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오늘 가서 노래가 잘 되면 내일도 잘 될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아플 때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럴 때 후계자 이강배님이 저 대신 많이 하고 있지요.

####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이제는 정말 건강이 제일 큰 고민이시겠습니까.

제가 2012년에 폐암에 걸렸습니다. 여수에서 세계박람회를 하던 해입니다. 7월로 행사 날은 받았는데 폐암 수술을 해야 하니 큰 병원에 가서 제가 의사선생님에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저 대신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꼭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시술을 하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선 시술을 받았고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이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노래를 못하겠더라고요.

####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을이나 다른 곳에서도 소리하실 일이 많으셨을 텐데요.

네, 실제로 우리 지방 자체 수협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풍어제도 있고, 여름에 눈빛 바다축제도 있고 소리 할 일이 많죠. 그런데 제가 노래를 못하니 하는 수 없이 후계자들 더러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해야 되니까요. 수술 뒤로는 소리하다보면 자꾸



거문도 서도리 장촌에 있는 거문도뱃노래보존회 사무실 전경.  
정경용 선생은 보존회와 회원들에게 갈수록 많은 고마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론 뱃노래 전승에 대한 걱정도 많다.

숨이 차고, 내일 공연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안 되고 그러다가도 또 어떨 때는 괜찮아지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술·담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끊었어요. 담배는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도 많이 피웠을 정도였습니다만 폐 수술하고 나서는 완전히 끊었고요. 그나마 술도 안 마시는데 아주 가끔 안주가 좋으면 한두 잔 하는 정도입니다.

#### 선생님, 몸도 편찮으신데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선생님께 거문도 뱃노래는 뭐라고 하면 좋을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야 뭐, 항시 좋은 것이지요. 뱃노래는 항시 좋은 것입니다. 제가 평생 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참 좋은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뱃노래에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본 소리가 많이 섞여버렸는데 거문도 뱃노래는 아직도 순수하게 우리 조상들이 부르던 그대로입니다. 이런 소리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우리 거문도 소리는 저희들 옛날에 살아왔던 그 한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에게도 소중한 소리지요. 지금까지 소리를 해왔고, 한때는 어려움이 있긴 했어도 그래도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아이고, 우리 정경용 씨가 있어야 소리가 제대로 되는데.’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 갑작스럽게 아파서 공연을 못하게 될 때면 회원들이나 마을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죠.

#### 수십 년 소리를 하셨으면 싫증날 법한데 아직도 그렇게 소리가 항시 좋다고 말씀하시니 감동적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리는 할 때마다 기쁩니다. 할 때마다 더 재미있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소리를 젊어서부터 했지만은 젊어서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창작하고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젊었을 때 소리는 아무래도 힘도 있고 여러 장점도 있었겠지만 돌아보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리를 하면 내가 들어도 참 좋아졌어요. 오히려 지금 소리가 더 좋은 것 같고 무대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사람들도 ‘아이고,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아요.’ 하니까, 할 때마다 기쁘게 생각하면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덕분에 저도 살아온 날을 한 번 쭉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눈물도 나고 후회도 참 많은데 별 볼 일 없는 제 이야기를 듣겠다고 차 타고 배 타고 하면서 여기 거문도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존회 사무실 벽에는 거문도뱃노래의 가사를 모두 채록해둔 액자가 걸려있다.

## 연보

- 1947년 거문도 출생. 태어날 때 이미 아버지를 여의었음
- 1968년 거문도 뱃노래 앞소리꾼으로 발탁
- 1972년 거문도 뱃노래 전라남도 제1호 무형문화재 지정
- 1974년 결혼
- 2008년 거문도 뱃노래 보유자 인정
- 2012년 폐암 발병

## 참고 자료

- 손웅, 「김창옥과 정경용의 거문도 뱃노래 소리 비교 분석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8
-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 거문도 뱃노래」, 여수시 삼산면

#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잠시 머물 듯, 뱃사람의 간절함과 애환이 담긴 임시 무덤, 초분

최병천 (초분 기술자)



## 들어가며

청산도는 사시사철 푸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에는 '신선들의 섬'이라 불렸으며, 현재까지도 그 장엄한 풍경과 진한 색깔이 만들어내는 절경은 많은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청산도는 예전부터 어업으로 유명하기도 했다. 모든 거래가 배 위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시장 '파시'가 자주 열렸으며, 일제강점기 때와 해방 이후에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다만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파시' 문화는 자연스레 사라졌다.

청산도가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영화 <서편제>의 영향이 크다. 영화 주인공들이 '진도 아리랑'을 부르며 신명나게 걸어가는 황톳길이 바로 청산도 당리에 있다. 청산도의 돌담길과 구들장 논, 유채꽃과 더불어 아름다운 풍경이 영화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런 청산도를 거닐다 보면 문득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짚으로 둘러싸인 무덤과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짚으로 만든 가묘에 뒀다가, 3~4년 후 선산에 묻는 장례법인 '초분'으로 오래전 섬마을을 중심으로 많이 행해졌던 우리의 고유한 장례풍습 중 하나다. 배를 타고 멀리 나갔을 때 집에 초상이 나면, 상주가 돌아올 때까지 시신을 땅 위에서 보관하는 게 그 유래라고 한다. 짚으로 뽕뽕 싸맨 무덤 안에는 뱃사람의 간절함과 애환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초분 기술자인 최병천 선생은 50살 무렵 처음 초분을 작업했다. 어깨너머 배운 초분을 작업한지 어느새 20년이 흘렀다. 오랜 지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초분 작업했다고 덤덤히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하다. 초분 기술자로서 많은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한 그에게, 초분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 궁금해진다.

# 01

## 신선들의 섬, 청산도에서 태어나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청산도에서 살고 있는 최병천입니다. 농사꾼인데 일하기 싫으면 안하고 낮에도 막걸리 한 잔씩 하며 돌아다니고 마을 주민들이랑 수다도 떨고... 뭐, 그러면서 지내고 있죠. 저 밑에 소 한 마리 보이죠?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노랭이'입니다. 저 놈이랑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냅니다.

**연세가 있으신 편인데도 여전히 개구쟁이 같으십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재미있고요. 어릴 적부터 여기서 사셨나요?**

1950년에 여기 청산도에서 태어나서 죽 살아왔지요. 중간에 부산에서 군대 생활할 때랑 그전에 서울에 형님 따라 잠깐 일하러 갔을 때 빼고는 여기 청산도에서 계속 살았어요. 내가 이제는 나이가 칠십이 넘었으니 이 섬에서 참 오래 산 거죠. 그래도 물<sup>완</sup>도 자주 나가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사야 할 것도 많으니까요. 특히 요즘에는 약 사러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5남매 중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컸어요. 어디나 막둥이들은 좀 귀염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개구쟁이시구나. (웃음)**

그거야 뭐 내 천성이기도 하고, 허허. 우리 할아버지도 청산도에서 나고 자랐다고 들었으니 대대로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참 아름답고 좋은 섬이긴 하지만, 어렸을 적엔 답답한 마음도 왜 없었겠어요? 세상에는 신기한 것도 많을 것 같고 도시에도 나가보고 싶고 그랬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라,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다 보면서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늘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말로만 듣다 처음 와봤는데 청산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인 줄 몰랐어요. 선생님 유년 시절 여기 풍경은 더 아름다웠겠죠?**

내 고향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기처럼 아름다운 곳도 없을 거요. 어렸을 적 높은 데 올라가서 섬을 쪽 둘러서 바라보면 섬 전체를 두르고 있던 돌담들, 아기자기한 집들, 커다란 나무들 같은 게 한데 어우러져 정말 절경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풍경들은 아직도 눈에 삼삼하지. 바닷가 마을이라면 어디나 해풍이 많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해풍을 막기 위해 돌담을 높이 쌓곤 했죠. 집은 해풍 영향 덜 받으려고 높이를 낮게 해서 짓고. 그러니까 여기 청산도의 집들은 대체로 다 조그마한 편이에요.

**어린 시절에도 초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초분에 관한 기억이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청산도가 뭐 그렇게 넓은 섬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보게 되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청산도만의 전통적인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게 참 많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초분인데 그나마 초분은 아직도 아주 조금 남아있긴 하죠. 어릴 때 처음 봤을 때는 호기심도 생겨서 가까이 가서 만져보기도 했는데 나중에 어른들이 그게 죽은 사람 무덤이라고 알려 줘서 아주 기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는 당연히 피해 다녔죠. 무서우니까요. 그때 뭐 전기가 있습니까, 가로등이 있습니까. 으스스하고 무섭죠. 또 초분 작업을 잘만 하면 냄새가 안 나는데 가끔 중간에 제대로 밀봉이 안 되거나 비바람이나 태풍으로 훼손되거나



최병천 선생이 청산도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하면 시신이 부패해서 나는 냄새가 퍼지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캄캄하고 사람들도 많지 않던 시절에 무덤인 데다 역한 냄새까지 나면 어린 아이한테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성장하면서 청산도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섬에서의 생활이 딱히 불만족스러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막내에다가 아들이었으니까 가족들 사랑도 과분할 만큼 받았고 집안 사정도 그리 나쁘지 않았고요. 동네 친구들은 물론 친한 형, 누나, 동생들도 많았고 동네 어른들도 다 저를 아꼈죠. 다만 중학교 졸업할



해질녘 당리에서 바라본 청산도 풍경

무렵에, 부쩍 섬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긴 했어요. 10대 중반이면 사춘기이기도 하고, 호기심이 한창 왕성할 때 아닙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섬에서 나갈 수 있을까 열심히 머리를 굴려봤지요.

**육지 생활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생기신 거군요.**

그런 셈이지요. 5남매 중 막내라 형님, 누나들과 나이 차이가 제법 났습니다. 중학교 졸업 무렵에 이미 형님, 누나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특히 형님은 서울에 가서 제철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섬에만 있다 보니 형님이 아주 대단해 보였어요. 우와, 서울까지 가서 살면 어떨까, 뭐 그런 육지 생활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중심이랄 수 있는 서울 생활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환상 같은 걸 갖게 된 셈이죠. 여자들도 얼마나 예쁠 것이며 맛난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뭐, 그런 그 나이 또래의 환상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서울로 가셨나요?**

육지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으니 당장이라도 배편을 구해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겁이 나요. 호기심이나 의지만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어디를 가더라도 노숙하거나 거지꼴로 다닐 건 아니니 우선 보금자리 하나는 필요하기도 했고요. 또 집에서는 따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당연했지만, 집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죠. 이 부분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꽤 오랫동안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서울에 올라가기로 다짐했죠. 형님 집에서 지내면서 숙식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대신 형님이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일하면서 밥벌이를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부모님께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이제 겨우 중학교를 마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였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에 가고 싶다는 제 의지를 꺾지는 못했지요. 또 서울에 계시던 형님도 저를 잘 돌봐주겠다고 부모님을 좀 안심시켜 주시고 해서 아주 어렵게 결국 부모님 허락을 받아내고 그렇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서울이란 곳에 가보게 됐습니다.

**10대 중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섬을 떠나 새로운 도시생활을 시작하셨네요? 그렇게 상경하셔서 얼마나 계셨나요?**

어디 보자, 한 4년쯤 있었나... 처음에야 온갖 환상과 낭만을 품고 시작한 서울 생활이었으니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나이드 워낙 어렸고 게다가 제철소 일이란 게 만만치 않아서 힘들기까지 하니까 금방 지치더군요. 객지 생활이란 게 아무래도 그래요. 일까지 힘들면 더하고. 그나마 형님이 많이 챙겨줘서 근근이 버틸 수는 있었는데 고향도 그렇고, 또 군대 문제가 닦치기도 하고 해서 결국 서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4년 정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예 눌러 앉아버릴까 고민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서울은...

**일단 바다가 없잖아요.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럼 서울 떠나자마자 바로 군에 입대하신 건가요?**

그랬지요. 20대 초반쯤이었으니 서울 떠나서 바로 입대한 거죠. 군대 생활은 부산에서 했어요. 남구 대연동에 있는 공병대에서 근무했죠. 딱히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부산도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아닙니까? 섬에만 있던 촌놈이 서울생활 거쳐서 부산까지 가서 살고 하니까 꽤 기분은 좋았어요. 그때 군 복무하던 중간에 고향에 있던 지인이 중매도 권해서 지금의 아내도 만났고요. 군대 휴가 나와서 처음 봤죠.

**사모님도 청산도 분이신가요?**

네, 아내도 청산도 사람입니다. 제대하고 제가 청산도로 돌아와 바로 결혼했고 이후로 자리 잡고 쪽 잘 살아왔어요. 아들도 둘 낳고.

## 두 아드님도 많이 컸겠네요.

다 컸죠, 뭐. 큰아들이 여기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산도의 많은 주민이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완도군의 전복 양식은 1998년 덕우도, 노화도 등에서 시작했는데, 처음엔 몇 가구만 시범적으로 하다가 수익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주민이 전복 양식에 뛰어들었어요.

## 그런가요? 원래 완도는 김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유명하지 않나요?

해조류도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추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양식 전복의 70% 이상이 완도군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니까요. 특히 청산도는 청정해역 아닙니까. 이곳에서 자란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란 전복이 품질이 아주 좋아요. 게다가 여기는 물살이 센 편이라, 다른 지역 전복보다 살도 두툼하고.

## 선생님은 청산도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셨어요?

주로 농사지었죠. 여기 청산도 당리는 구들장 논으로 유명하거든요.

## 구들?

못 들어보셨나요? 촌놈들이시구만. (웃음) 구들장 논이 뭐냐면, 산비탈이나 구릉에 구들장을 놓듯 돌을 쌓아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다 다시 흙을 부어 다져서 만든 논을 말하는 거예요. 섬은 육지보다 지형이 훨씬 다양합니다. 특히 척박한 비탈지가 많고 기름진 땅이 없는 편이라 구들장 논 방식으로 새로 논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야 하죠. 번거로운 일이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 할 수 없어요. 청산도가 산이 푸르고 예쁘기로 유명해도 농사 짓기에는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안 좋은 조건이고요. 버려진 산기슭 땅에 논밭을 일구려면 돌을 많이 골라내야만 합니다. 돌이 많으면 물 빠짐이 심해서 제대로 농사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 그 구들장 논에서 농사지을 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노랭이'랑 같이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소 데리고 농사짓죠. 우리 노랭이는 저래보여도 TV에도 나온 소예요. <6시 내 고향> 알죠? 유명한 소입니다. 연예인<sup>s</sup>, 아니 소니까 연예우<sup>#</sup>지. 나는 노랭이를 따로 묶어 두지도 않아요. 한가롭게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게 내버려두는 편이에요. 좋은 팔자지. 노랭이는 농사지을 때 외에도,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까 말한 이 구들장 논이란 게 비탈길을 억지로 논으로 만들어놓은 거라서 경운기 같은 농기계는 쓰기가 어렵거든요. 어쩔 수 없이 소와 사람의 힘으로 논갈이를 해야 하니 쉽지 않죠. 또 돌 위에 흙을 다져놓은

거라, 평지처럼 마음 놓고 쟁기질하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흙의 두께가 쟁기 날보다 깊이가 얇거든요.

## 농사 일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하시던데요. 마을 이장도 역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제가 맡은 역할도 점점 커지고 하다 보니 우연한 기회로 당리 이장을 맡기도 했죠. 청산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당시 군수님을 도와서 다양한 일을 추진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범바위길을 새로운 관광지로 만들면서 올라가는 길을 단장한 겁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크고 작은 자갈들을 모아 보기 좋게 꾸며놓았죠.

# 02

## 청산도의 과거와 현재

### 선생님, 청산도가 참 아름답긴 하지만 여기도 언젠가는 개발이 되고 지금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겠죠? 청산도 소개 좀 해주세요.

청산도는 사시사철 푸르다 해서 청산도입니다.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장도가 있고 더 멀리 나가면 동쪽에 거문도, 서쪽에 소안도, 남쪽으로 제주도, 북쪽으로는 신지도가 있어요. 옛날부터 '신선들의 섬'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섬인데 어렸을 적 어른들 말로는 조선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군사 요충지이기도 하고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연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국제 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 지정<sup>(27)</sup>도 받았어요.

### 신선들의 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기다 슬로시티까지 말씀하시니 정말 꼭 한 번 와봐야 할 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지인들 오면 소개하고 싶은 곳들이 있다면요?

일단은 뭐, 영화 <서편제>의 무대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거기 가봐야겠죠. 그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진도 아리랑'을 부르면서 한판 신명나게 걸어가던 황톳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청산도 당리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바로 저쪽이고 그

(27) 청산도 슬로길은 2010년에 전체 11코스(17길) 42,195km에 이르는 길이다. 길이 지닌 풍경, 길에 사는 사람, 길에 얽힌 이야기와 어우러져 거닐 수 있도록 각 코스를 조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길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로 선정되었고, 이듬해인 2011년에는 국제 슬로시티 연맹 공식인증 '세계 슬로길 1호'로 지정되는 등 그 아름다움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아래로 보면 올해 초에 작업한 초분도 있어요. 저기 올라가서 보면 청산도의 환하고 푸른 바다는 물론 돌담길과 구들장 논, 또 유채꽃 같은 게 한 눈에 들어와서 정말 아름다워요. 그 풍경이 영화에도 물론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그 덕분에 청산도가 훨씬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다보니 그 뒤로는 더 많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여기 와서 찍었죠. 그런데



영화 <서편제> 촬영지인 당리 바로 아래에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초분 모습

그런 것도 좋지만 청산도에서 원래 유명한 곳들을 봐야죠. 옛날에 여기 청산도 호랑이가 살았는데, 바위를 향해 포효했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랬다가 호랑이가 자기 소리에 놀라서 그만 섬 바깥으로 도망쳤다는데 여기에 그 호랑이 모양 바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범바위입니다. 거기 근처에 가보시면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아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그 근처에 강한 자성이 있기 때문이라 이유가 밝혀졌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했겠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청산도 ‘슬로축제’도 흥미롭네요. 전통이나 민속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정확히 몰라도, 도시 사람들처럼 너무 빠르게만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 비하면 청산도 주민들은 훨씬 한가롭고 느긋하게 살아가는 편이에요. 농사를 짓든 어업을 하든 양식업을 하든 각자 생계유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도시와 비교했을 때 여유 있게 지내는 편이죠. 이러한 모습은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 우리 청산도에서 매년 4월이 되면 슬로축제가 펼쳐져요. 청산도 슬로 길을 걷는 행사인데, 총 11개의 코스가 있지요. 청산도 슬로 길이란 게 사실 청산도 주민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늘 걷는 길들입니다. 섬이 그리 크지 않으니 천천히 걷기도 좋아요. 오르막과 내리막, 숲길과 해안길이 번갈아 나타나고 축제 기간에는 단순히 걷는 것 외에도 힐링 콘서트, 범바위 기 체험, 슬로장터, 사진전, 유채꽃 정원 버스킹, 농어촌 생활문화 전시관, 슬로푸드 체험, 초분 시연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 같은 걸 즐길 수 있습니다.

**슬로축제 같은 걸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라지는 전통이나 문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점은 있죠. 청산도가 섬이니까 예전부터 물고기도 많이 잡고 그래서 특히 고등어나 삼치 파시<sup>(28)</sup>로도 유명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으니까요. 파시가 이루어지던 곳이 지금의 도창항 안통길인데, 한때는 많이 커지면서 거기에 어판장, 배 부품이나 도구 파는 가게들, 식당이나 술집, 여관 같은 게 바글바글했다고요. 특히, 고등어 파시는 나도 태어나기 전인 일제강점기 때 대단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삼치 파시할 때 기억은 있어요. 지금은 잡히는 물고기도 예전 같지 않고 어업 기술도 많이 달라져서 파시가 없어졌지. 저 안통길 뒷골목에 가면 아직도 그때 흔적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행해요.

**그래도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바닷가 마을의 전통으로 풍어제 같은 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28) 파시<sup>(28)</sup>는 물고기를 거래하기 위해 바다 위의 배에서 바로 열리는 해상 시장을 의미한다. 상인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가 고기잡이배들로부터 생선을 사고 대신 어부들에게 필요한 식량 등을 팔고 돌아온다.

그건 그렇습니다. 어업이나 파시는 거의 사라졌어도 당리 풍어제는 지금도 하죠. 그게 한 3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여느 풍어제가 그렇듯, 물고기 많이 잡게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을 바라는 그런 행사죠. 우리는 매년 양력 12월 25일에 제주를 선정해서 음력 정월 초사흘 당리 사당에서 풍어제를 해요. 제주는 주로 이장이 맡죠.

**음력 초사흘날이면 저희가 만난 충남 서산의 영신제하고도 비슷하네요. 하지만 청산도의 독특한 풍습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초분<sup>부뎌</sup>’ 아닐까요? 어떤건지 좀 설명해주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땅에 바로 묻잖아요? 그런데 초분은 그러기 전에 짚으로 만든 임시 묘에 두었다가 한 3년이나 4년쯤 지난 다음 선산에 비로소 제대로 묻는 그런 장례문화를 말합니다. 청산도 뿐만 아니라 오래된 섬마을을 중심으로 많이 행해졌다고 알고 있어요. 섬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일이 일상적이잖아요. 그럴 때 집에 초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또 집에 있는 사람들도 바다 나간 사람 올 때까지 열흘이고 보름이고 무작정 기다릴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있는 상주가 돌아올 때까지 시신을 땅 위에서 임시로 보관했던 게 초분의 유래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고 바로 땅에 묻는 건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풍습이라고도 하더군요. 이게 화장이나 매장에 비해서 아주 절차도 복잡



초분에 대해 설명 중인 최병천 선생

하고 오래 걸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오히려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초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분은 오랫동안 관리해야 하고 번거로워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 하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초분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풍장<sup>풍장(29)</sup>’ 같은 건가 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풍장도 땅에 묻는 게 아니니까 언뜻 보면 비슷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풍장은 그 자체로 시신을 처리하는, 말하자면 그걸로 이제 끝난 장례풍습이고요. 반면에 초분은 이후에 본장을 치른다는 점에서 일종의 임시 무덤이고 그 자체로 끝난 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죠. 초분은 일종의 ‘이중장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튼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봐야 해요.

## 03 초분 풍습의 변화

**선생님께서 초분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인가요?**

20년쯤 됐나... 그러니까 한 50살 정도 됐을 때 처음 초분을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다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당시 가까이 지내던 지인이 부탁해서 어찌다보니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하게 됐네요.

**초분을 하려면 어떤 자격 같은 게 필요한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따로 시험이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을에서 대대로 해오는 거니까 어릴 적부터 어깨너머로 본 게 있고 대충 순서나 일머리가 있으면 하면 됩니다. 물론 큰 틀에서 순서는 어디나 비슷할 수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3년이 지난 다음 뼈를 발라 선산에 묻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시신에 손을 대지 않고 관 그대로 묻는 곳도 있는 것처럼 지역마다, 또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해서 주로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들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29) 시체를 묻지 않고 그냥 땅 위에 두고 자연 소멸시키는 장례법이며, 바람에 내맡긴다는 의미로 바람 ‘풍<sup>풍</sup>’자를 쓴다.



초분의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 중인 최병천 선생

### 청산도 초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초분장을 할 건지 우선 결정해야겠죠. 결정되면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다음 장소가 어디라고 정해지고 나면 거기 가서 잡초나 돌 같은 걸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위에다가 크고 작은 돌들을 수평이 되도록 깔아요. 이걸 우리가 '덕대'라고 부릅니다.

### 땅위에다가 돌로 일종의 단을 만드는 거군요? 왜 그렇게 하죠?

시신이 썩으면서 나오는 물들이 밑으로 빠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돌을 깔아놓으면 가능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소나무 가지를 촘촘하게 깔고 새끼줄을 놓습니다. 그리고 명석을 깔아서 그 위에 관을 올리죠. 이때 머리는 산 쪽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명석을 관 모서리 기준으로 사선이 되게 잘라주고, 좌우와 상하로 접어요. 그런 다음에 밑에 깔아놓은 새끼줄로 관을 묶어 고정하고 또 그리고 이엉을 두르죠. 이렇게 하는 건 빗물이나 바람 같은 걸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으로 이엉 위에 용마름을 엮었습니다. 용마름은 엮어놓은 이엉의 중심을 잡아 초분을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마치 초가지붕을 엮는 느낌을 떠올려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끼줄 끝에 돌을 달아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고, 용마름 양쪽으로 새끼줄을 돌려 동여매고 고정하면 끝납니다.

### 언뜻 들어봐도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렇게 한 뒤에 초분은 누가 관리하나요?

주로 가족들이 하죠. 초분 주위에 소나무 가지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해 나무나 그물로 울타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엉 같은 경우는 매년 갈아주는 편입니다. 가족들이 초분을 다녀갈 때는 솔가지를 새끼줄 사이에 꽂아둬요. 그렇게 하면 병충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누가 왔을 때, 아 가족들이 다녀갔구나 하고 알아볼 수도 있죠. 일종의 묘에 다녀갔다는 표시 역할도 하죠.

### 초분은 일종의 임시 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또다시 해체해야 한다는 의미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초분을 해체해야죠. 아까 얘기한 순서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뒤. 우선 씨줄과 날줄로 엮어놓은 빗줄과 돌맹이를 먼저 풀고요, 그다음 이엉을 벗겨냅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몇 겹으로 덮어놓은 이엉을 걷어내야죠. 안에 있는 이엉일수록 벗겨낸 색이 누렇게 됩니다. 그렇게 걷어내다 보면 소나무 가지와 함께 관을 감싸고 있던 명석이 드러납니다. 이 관을 옮겨서 땅속에 매장하면 비로소 끝나는 겁니다. 초분에서 뜬이엉은 불로 태워서 정리하고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덮개를 열어 시신을 잠깐 확인할 때도 있어요. 관을 열고 뼈를 드러내 깨끗이 매장하는 방식도 있지만, 청산도에서는 관 그대로 선산에 묻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 정성이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직접 초분을 하시다보면 힘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게 말로 후딱 설명하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직접 해보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시간도 아주 많이 필요해요. 반대로 말하면, 한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고, 죽음에 대해 고민할 기회도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들을 내 손으로 직접 초분 하는 일도 종종 생겨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막걸리도 한잔했는데, 그런 사람이 관 속에 누워 있는 걸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시간이 흐르면 나도 저렇게 관 속에 누워 있겠구나, 나를 아는 누군가가 지금처럼 나를 초분 해주겠구나, 그런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면 기분도 묘하고... 아무튼 그래요.

### 하지만 지금은 청산도에서도 초분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많이 줄긴 줄었죠. 이 초분은 조선 말기까지 전국적으로 흔하게 행해졌다고 들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위생법이 제정되면서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화장이 장려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청산도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섬 전체에서 일상적으로 이 초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락리, 도청리, 당리 등 밭이나 산언덕에서 흔히 볼 수 있었을 만큼 초분이 많았어요. 일제강점기 위생법 때문에 육지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말이죠. 그러다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대대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시행했잖아요. 초가지집 대신에 슬레이트 지붕이 등장하고 흙길은 전부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통문화도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바닷가 쪽에서는 그나마 좀 남아있던



초분 작업을 위해서는 미리 많은 새끼줄을 준비해둬야 한다.

초분 문화가 이때 한 번 더 많이 줄어들게 됐죠. 이후로는 우리 청산도를 포함해서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간신히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마저도 이제는 현대식 장례문화가 대세가 되면서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다는 게 직접 초분을 하시는 입장에서 실감이 나십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초분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일단 마을에 꽤 많았습니다. 따로 사례비도 없는 일이었지만, 마을의 전통적인 문화로서 많은 사람이 배우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되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거기에 초분을 하는 가족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장례법, 특히 화장과 비교하면 초분은 비위생적이고 현대적이지 못한 뒤떨어진 풍습이라는 인식이 만연해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와 새마을운동 때 국가에서 주입하려던 생각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릴 때부터 초분과 늘 접하며 살았던 마을 어르신 중에서도 초분을 꺼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초분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초분 기술자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됐고요. 배우고 익혀야 할 수 있는 작업이고, 보존을 위해선 전수되어야 할 문화인데도 그럴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러다가 아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게 되면 영영 끝나는 거니까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분 시현 행사에도 자주 참여하신다고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까 말한 우리 청산도의 대표 축제인 '슬로축제' 때 초분 시현 행사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두세 명의 초분 기술자가 더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지요.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분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해요. 보는 사람은 대부분 관광객이지만, 이들에게 초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걸 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평상시와는 다르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겠죠. 그러다보면 뭐 하러 이렇게 아등바등 사나 싶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이 초분이 청산도와 일부 지역에만 남아있지만 우리 모두의 전통문화이기도 하니까 사라지기 전에 한 분에게라도 더 보여주고 알리기도 하고 있는 거죠.

## 04

### 청산도와 초분의 미래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선생님 뵈러 온 것처럼, 최근에는 청산도나 우리 전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다시 초분에 대한 관심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전통문화나 관광 상품 같은 게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영화 촬영지도 좋고 드라마도 좋지만 사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는 것도 여행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청산도에는 아무튼 초분 같은 전통이 희미하게나마 아직 남아있긴 하나가요.

**그런데 말씀하신 걸로만은 좀 부족해보이기도 하고 뭔가 본질적인 전통 계승과는 거리가 있어보여서요. 좀 더 근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부족한 수가 있나요. 이미 초분에 대한 관심이 시들한 상황에서, 나이 든 사람에게 억지로 초분을 권하거나 청산도에 남은 몇 없는 젊은이에게 초분을 배우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초분을 하겠다는 사람도, 배우겠다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초분을 보존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전통의 보존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민해봐야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무형문화재나 지역문화재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나야 뭐 그런 쪽 전문가가

아니고 누가 부탁하면 초분 해주는 기술자에 지나지 않으니까 정책이나 큰 얘기는 잘 모르겠고 다만 개인이 뭘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 선생님은 어떠세요? 돌아가시면 초분 해달라고 하실 건가요?

그게 참... 초분을 하고 싶은 마음 반,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반입니다. 하도 많은 사람을 제 손으로 초분해서 그런지, 제가 반대로 관 속에 누워 있다고 상상하면 썩 유쾌하지가 않아요. 다만 섬에 몇 안 남은 초분 기술자가 정작 자신은 초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일이겠다 싶기도 하고... 당장 죽을 건 아니니까 천천히 고민해봐야죠. 뭐. (웃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 그럼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 바다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나고 자란 곳. 고향이지. 여기 청산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섬만의 독특한 전통 속에서 내가 컸고요. 특히 어린 시절 서울에서 몇 년 지낼 때 그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한평생을 청산도에서 지내왔으니 바다는 곧 내 삶 자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든 싫든 늘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동반자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중인 최병천 선생

### 연보

- 1950년 청산도에서 5남매 중 막내로 출생
- 1966년 서울에 있는 제철소에서 근무
- 1973년 입대
- 1976년 제대 후 결혼
- 2000년 초분 작업 시작

### 참고문헌

- 샘이 깊은 물 (<http://www.britannica.co.kr/sam/culkr/cukr02>)
- 청산도 (<http://www.cheongsando.net>)
- 연합뉴스, “국내 유일 이중 장제 ‘초분’...완도 청산도서 28일 재현”, 2019년 4월 25일
- 머니투데이, “청산도에 가면 초분이 있다”, 2018년 7월 21일
- 오마이뉴스, “이승과 저승 중간에 있는 무덤...‘독특한’ 장례식”, 2015년 5월 24일
- 완도신문, “효도와 정성의 상징, 청산도 초분 문화”, 2015년 4월 21일
- 오마이뉴스, “임시무덤 ‘초분’ 속 들여다 보니...”, 2012년 5월 10일
- 오마이뉴스, “두 번씩 장례 치르는 마을, 사연 있었네”, 2009년 6월 27일

